

東亞文化

1996 · 제12호



특별
판인

속초문화원

설악관광(주) 케이블-카

신뢰와 정성으로
SORAK FOCUS TRAVEL이
열어갑니다.



회장 韓丙起



대표이사 愼容文

설악관광(주) 케이블-카(신설) 해외여행부

- ◆ 해외여행 ◆ 신혼여행
- ◆ 여권 비자 수속대행
- ◆ 각종 항공권 판매

본 사 :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170번지
☎ (0392) 636 - 7362

여행부 :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582-5번지
☎ (0392) 636 - 1011

지 사 :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38-13번지
☎ (02) 5454 - 020



꿈과 희망이 넘치는 東草 건설



민선 자치 시대의 생동 하는 東草市



시장 董文星



부시장 郭垓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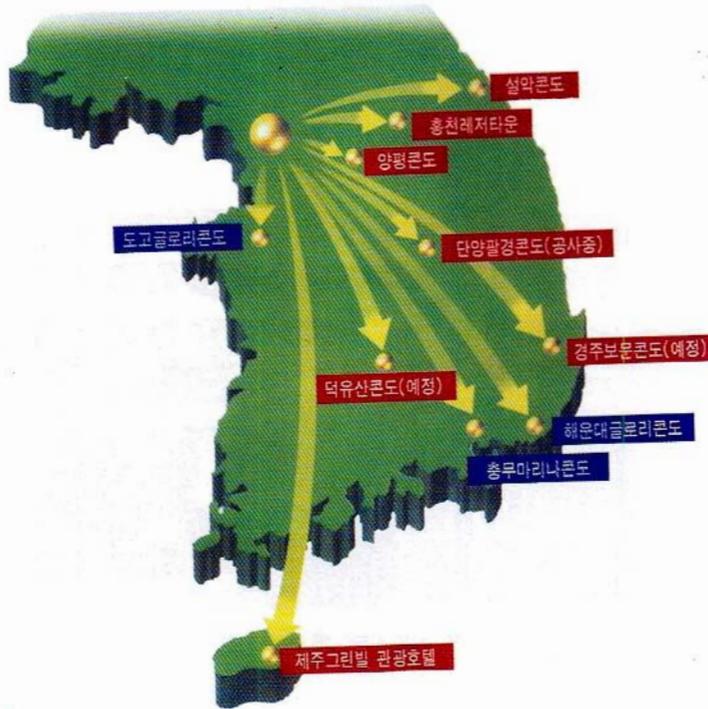
시정 방침

- 투명한 자치 시정
- 질 높은 시민 복지
- 내실 있는 재정 자립
- 생동 하는 지역 개발

대명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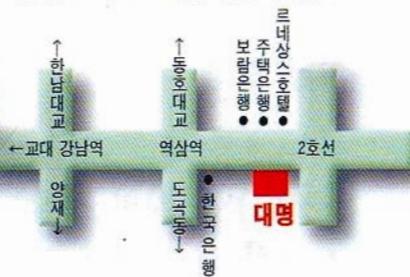
“설악에서 제주까지 다양한 체인”

전국 어느 곳이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분양사무소 및 문의처

* 모델하우스 약도 : 르네상스호텔 건너편



(주)대명건설

(주)대명관광

(주)대명유통

(주)대명엔지니어링

(주)대명레저산업

모델하우스: (02)508-1311, 222-700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19-5

- 설악 콘도 : (0392)635-8311
- 홍천 레저타운 : (0366)434-8311
- 양평 콘도 : (0338) 71-8311
- 제주그린빌관광호텔: (064)32-8311
- 대구 지사 : (053) 742-7472
- 38선휴게소: (0396)672-3838
- 수원 지사 : (0331)222-5981
- 인천 지사 : (032) 432-8311
- 대전 지사 : (042) 221-8311

法古 翻新



東草文化第十二號

叢刊에 부쳐

霽山池應準



설악서예학원

원장 霽山 池應準

- 동국 조수호 선생에게서 사사
- '86 중화민국 대북시장 교육 공로상
- '94 대한민국 서예 전람회 입선
- '96 대한민국 서예 전람회 입선
- 속초문화원 서예 교실 강사



동천이 불그레하다. 해가 뜬다. 시벨건 옥일(旭日) 불쑥 솟았다.
물결이 가물가물 만경 창파(萬頃蒼波)엔 다홍 물감이 끓어 용솟음 친다.
장(壯)인지 쾌(快)인지, 무어라 형용하여 말할 수 없다.

동명항에 불쑥 솟은
그 옥일의 장관.



최 낙 민(CNM art 대표)

- “천의자태 설악산 안내책” 저자
- 개인전 2회 및 전국사진공모전 다수 입상
- 속초예총 감사 ☎ (0396) 672-34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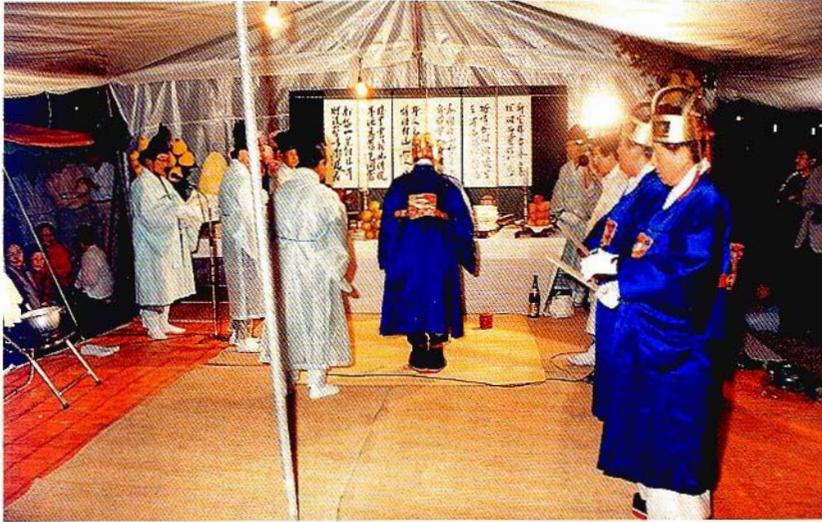
제31회 설악제 (동명항 부두)



'96 산악 마라톤대회 (설악산)

제31회 설악 문화제

三山五岳已下名山 下山大川. 分爲大中小祀. 一 小祀. 雪岳 (守城郡)



산신제



문화제가
펼쳐지고
있는
동명항 부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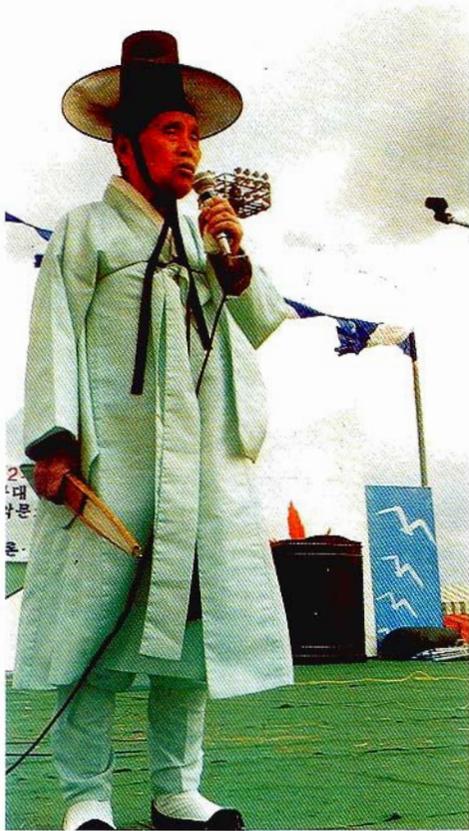


시민들의
설악제
참여



해양 문화 축전 행사





국악 및 무용단 초청 공연
'판소리'의 명창
박동진



무용단 초청



그네



주부들의
투호(投壺)
경기



힘을 겨루는 사람들

궁도



씨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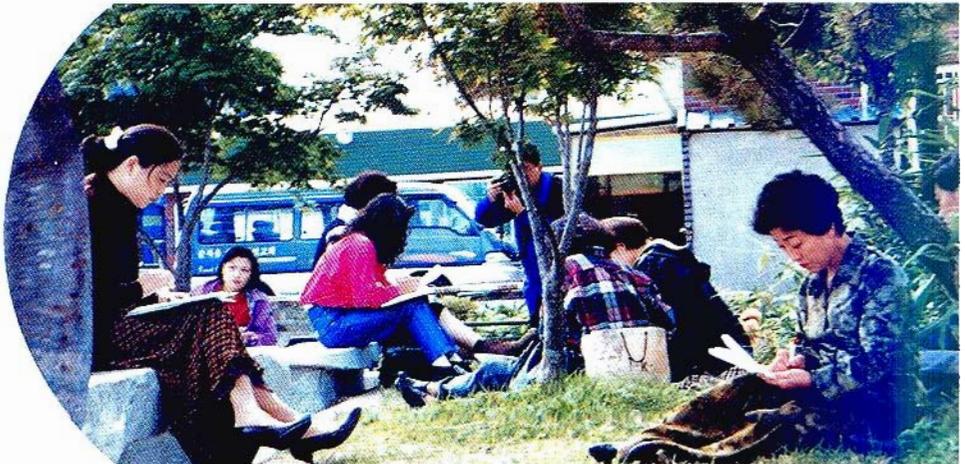
줄다리기

지역 문화 전달 기능을 선도 하는

속초문화원



고운입 모아 부르는 속초 문화원의 주부 건전 가요 노래방



글솜씨를 겨루는 주부 백일장

李盛夫

산경표(山經表) 공부



물 흐르고 산 흐르고 사람 흘러
지금 어쩐지 새로 만나는 설레임 가득하구나
물이 낮은 데로만 흘러서
개울과 내와 강을 만들어 바다로 나가듯이
산은 높은 데로 흘러서
더 높은 산줄기를 만나 백두로 들어간다
물은 아래로 떨어지고
산은 위로 치솟는다
흘러가는 것들 그냥 아무 곳으로나 흐르는 것
아님을 내 비로소 알겠구나!
사람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들 흘러가는지
산에 올라 산줄기 혹은 물줄기
바라보면 잘 보인다
빈 손바닥에 얹은 슬픔 같은 것들
바람소리 슬바람소리 같은 것들
사라져버리는 것들 그저 보인다

文藝中興宣言

우리는 民族中興의 歷史的 전환기에 처하여 새로운 文化創造의 使命을 切感한다.

한 겨레의 運命을 決定짓는 根源的 힘은 그 民族의 藝術的 文化的 創意力이다. 藝術이 創造力을 잃었을 때 겨레는 침체되고 文化가 自主性을 찾았을 때 나라는 興한다. 新羅統一의 偉大한 업적과 世宗時代의 文化創造는 이를 증명한다.

우리는 길이 남을 遺産을 開發하고 民族的 正統性을 이어받아 오늘의 새 文化를 創造한다. 盲目的인 復古傾向을 警戒하고 分別없는 模倣行爲를 배척하며 천박한 頹廢風潮를 一掃하여 우리 藝術을 확고한 傳統속에 꽃 피우고 우리 文化를 튼튼한 主體性에 뿌리박게 한다.

우리는 祖國의 現實을 直視하고 榮光된 겨레의 來日를 위하여 價値意識과 史觀을 바로잡고 表現의 自由와 文化의 自主性을 함께 누리며, 곳곳마다 文化의 殿堂을 세워 온 겨레가 함께 藝術을 즐기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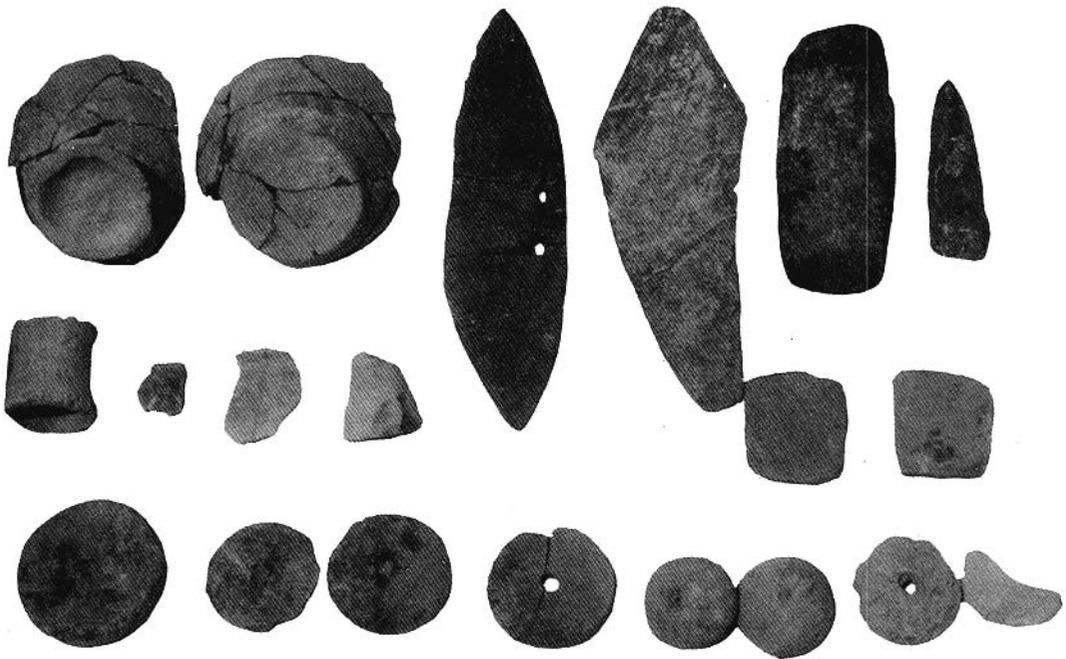
우리는 自身의 姿勢를 새롭게 가다듬어 우리의 업적이 世界에 부각되도록 힘쓰며, 文化의 활발한 國際交流를 통하여 人類文化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한다.

이에 모든 藝術家 모든 文化人들은 온 國民과 同參하는 隊列에 서서 藝術과 文化를 아끼고 사랑하는 風土를 造成하고 정성을 다해 文藝中興을 이룩할 것을 宣言한다.

1973년 10월 20일

東亞文化

1996 · 제12호



특별
편집인

속초문화원

東草文誌 1996 · 제12호

차례

- 권두사/속초 문화를 일구는 항심(恒心)으로 · 최용문 · 15
축간사/지방화시대에 맞는 지역 문화 · 송훈석 · 16
축간사/지방화시대의 문화 자치 이념을 구현하며 · 동문성 · 18
축간사/제12호 발간을 축하드리며 · 임호성 · 19
논단/21세기를 대비하는 속초 교육 · 민태식 · 20
특집/막을 내린 유토피아의 꿈 · 동문성 · 24
특집/세계화를 겨냥한 속초시의 문화정책 · 광상욱 · 28
특집/21세기의 속초관광과 설악산 · 최무일 · 32
특집/새 명소로 도약하기 위한 관광진흥사업 · 임창기 · 35
특집/참 우리 노래, 전통 가곡 · 임수철 · 42
제31회 설악문화제 시리즈 · 편집부 · 47
설악문화제 연구단의 보고 · 단장 최용문 · 51
문화단체/속초 문화원 사업보고 시리즈 · 53
화보/문화사랑방 · 65
문화단체/한국 예총 · 67
문화단체/민예총 · 86
문화단체/속초 도서관 · 이영찬 · 90
문화단체/속초 여성회관 · 신성욱 · 93
전통민속의 활성화/속초농악대 · 95
전통민속의 활성화/갯마당 풍물패 · 96
유적지 탐방/가락국의 유적을 찾아서 · 윤홍렬 · 97
국립공원 시리즈/국립공원 설악산(12) · 박익훈 · 103
향토사료관 건립 · 106
농어민 대상 수상 · 윤의구 · 107
한복 입는 예정 · 이종욱 · 108
우리 고장 초등학교 순례/초등학교 9개교 · 110
통일염원 한시(漢詩) · 엄주천 · 132
통일 시 · 최종석 · 133
주부 백일장/정찬순외 8명 · 134
한시(漢詩)/김종임외 7명 · 144
속초문화원 임원 명단 · 151
표지이야기 · 박영동 · 152
판권 · 153

문화(文化)란 말의 개념에 대하여는
학자 간에 종종(種種)의 해설이 있으나
나로서는 간단히 말하면 사람의 사람된 생활,
즉 가치 생활의 총양상(總樣相)을
문화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문화는 창조·발명·자유·행복을
기본으로 한 충실 생활의
모든 양식이라 할 수 있다.

<李丙燾 / 신라 문화의 특징>

책머리에

아름다운 고장, 살기 좋은 고장으로 속초 문화를 일구는 항심(恒心)으로



崔 龍 文
(속초문화원 원장)

문화(文化 · culture)는 그 어원이 라틴어에서 유래되지만 개척과 개발 경작 등 일군다는 뜻을 지니고 있으며, 문화란 자연을 인간이 생활에 편리하고 유리하게 개조 개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학자들이 내린 문화에 대한 정의는 무려 155가지에 이르지만, 우리 인간 생활에 있어서 품격과 질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때 문화란 지금의 생활에서 더 높은 곳으로 향하는 삶의 품격과 질의 향상에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는 고도 산업 사회를 구가하면서 현격하게 우리의 것을 잃어버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치관의 혼돈에서부터 인간성 상실의 황폐화로 크게 그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사회적 병리 현상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문화 뿐이다.

이런 관점에서 지방화시대에 각 지역마다 향토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키는 한편, 선진 문화 국민의 가치 의식을 함양해야 할 것이라는 데 이르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속초만이 가지는 즉 향토 문화의 개조와 개발에 주안점을 두고 매년 '설악 문화제'를 시월 상달에 제천 행사를 비롯하여, 이 고장이 가지는 혼합 문화 즉 산악 문화 · 해양 문화 · 토착 문화 · 북한 문화(실향민 문화)의 접목으로 화합과 관광 경제성까지를 생각하는 축전으로 발전시켜 나아가고 있다.

속초 문화를 생각하면서 창간된 '束草文化(속초 문화)지가 어언 12년을 헤아려 오늘에 이른다. 문화 전달 기능의 첨병(尖兵)을 자처하는 문화원으로서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 노력한 뚜렷한 증좌라고 할 것이다. 이번 12호는 표지에서부터 혁신을 시도하여 새로운 체재로 거듭나기를 탄실하게 다지느라 하였으며, 편집 위원 제위의 지적에 따라 문화지로의 갖추는 일도 나름대로는 챙겨보았다.

12호에서는 제31회 '설악 문화제'를 통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살펴보았으며, 다음으로 속초시의 9개 초등 학교를 찾아보았다. 이는 이 고장 최초의 정규 학교, 대포 초등 학교가 그 시발이라는 점에서는 물론 아동 교육의 현장 점검이라는 차원에서 비중을 두었다.

속초 도서관과 여성 회관을 시민들에게 더욱 가깝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으며, 또한 본 문화원의 하는 일을 통해서 문화원을 이해하고 동참하는 데 목적을 두고 '96년 한 해의 문화원 사업을 정리하여 실었다.

지방화시대에 맞는 지역 문화



宋 勳 錫

(국회 의원)

존경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우리 고장 속초의 전통문화를 보존·계승하고, 이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속초문화원의 문화지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8만시민의 정성과 힘을 모아, '속초문화' 발간을 준비해 오신 속초문화원 최용문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향토문화란 사람이 태어나고 자란 지역에서 면면이 흘러오는 동안 이루어 놓은 의식주를 비롯한 문화, 예술, 학문, 종교, 도덕 등의 정신적 물질적 모든 생활양식과 내용을 일컫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향토문화는 근본적으로 획일성보다는 다양성을 추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지역의 정체성(Identity)에 바탕을 둔 독특한 개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고유문화를 발굴·육성하여야 하며, 전통문화 유산의 보존과 전승, 발굴 및 재창조를 통해 특색있는 지역 문화를 창달해 나가는 것이 지방화시대에 맞는 지역문화 활성화의 지름길이라 생각합니다.

속초 시민 여러분!

세계적 명산인 설악의 정기가 모인 우리 속초는 하늘이 내려주신 자연환경과 더불어 고유의 향토문화를 간직한 자랑스런 문화 예술의 고장입니다.

또한, 속초 지역은 우리 조상들의 삶의 여유와 생활의 지혜가 진하게 스며있는 풍부한 문화유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계승·발전시킴은 물론 관광자원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역사문화 자원의 관광화 즉 문화와 자연이 결합된 문화 관광 활성화추진과 더불어 전통문화를 현대화 하고 문화사업화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한 점에서, 향토에 대한 자긍심을 통해 지역민의 결속력과 애郷심을 다져온 설악문화제를 전국 국제화하고, 점차 국제적인 전통문화 축제로 확대 육성해 나가는 것이 우리 속초지역의 문화 예술 발전을 위한 길이라 생각합니다.

친애하는 속초 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 속초는 그 어느때보다 새로운 활력과 발전의 기운이 용솨음 치고 있습니다. 신국제공항건설과 미시령관통도로 확장에 이어 동서고속철도와 고속도로 건설 등을 통한 동서를 연결하는 교통망 확충으로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설악산을 중심으로한 동해안과 금강산을 연계하는 세계적 관광지로 부상될 것이며, 또한 환태평양 시대에 대비한

해양 진출의 거점지역이자, 국제 교역 중심지로 발전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속초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제관광지로서 또한, 일본, 러시아, 중국간의 경제협력을 위한 국제 항구도시로서 국가의 국토 정책상 매우 중요한 전략적 위치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속초 지역 발전을 위한 관광 및 역사자원 개발과 더불어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부가가치 창출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라 생각하며, 이와 같은 경제적인 발전과 문화예술의 발달이 뒷받침 될 때 21세기 환동해권 중심도시로 도약해 나가리라 확신합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관광지와 국제 교역 중심지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우리 고장의 전통적인 향토문화가 바탕이 되어 이뤄져야 하며 그 선도적인 역할을 우리 속초 문화원이 훌륭히 수행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속초 문화예술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 노력하시는 문화예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속초문화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고장 문화예술의 길잡이인 속초문화 제12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속초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지방화시대의 문화 자치 이념을 구현하며

지방정부는 궁극적으로 주민의 삶을 질적(質的)으로 높여야 한다는 정책목표를 추구합니다. 따라서 지방화시대를 맞아 가장 우선되어야 할 정책과제는 사회복지와 문화복지의 실현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는 향토의 고유한 문화양태를 보호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董 文 星
(속초 시장)

우리 시는 이러한 기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중장기 문화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국제 관광지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행여 나타날 수 있는 가치관의 혼돈을 방지하고, 외래문화와의 충돌을 완충시키며, 우리의 향토문화를 상품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겠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시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우리 시를 문화 수부(首都)로 발돋움시키게 될 것입니다.

속초문화원에서는 지방화시대의 문화자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오래전부터 여러 사업을 의욕적으로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향토사료관 건립 추진, 설악문화제연구단 운영 등 구체적인 문화 실익 확보를 위하여 의욕적으로 일해왔고, 시민의 문화향수(享受)능력 향상을 위해 여러 사회교육도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속초문화원의 이러한 활동은 우리 시의 정책목표와 일치하고, 따라서 우리 시는 문화원을 적극 지원해 왔습니다. 문화원의 이러한 활약에 힘입어 그 어느 곳보다도 앞서 문화자치 이념이 구축되리라 믿습니다.

‘속초문화’지 발간사업도 그런 속초문화원의 의욕적 활동 중의 하나이며, 주민의 문화복지 실현을 위한 한 방편입니다. ‘속초문화’는 그동안 향토문화중흥의 파수꾼으로, 문화전쟁 시대의 첨병으로 그 몫을 다해 왔습니다. 이번 제12호도 그런 소명을 다하리라 확신합니다. 발간을 위해 애쓴 속초문화원 관계자와 편집위원들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드리며 감사에 갈음합니다.

제12호 발간을 축하드리며

‘속초 문화(束草文化)’ 제12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12년 전 순수한 향토 문화지 하나 없었던 문화의 불모지 이 곳 속초 지역에 향토지 창간이란 지역적·시대적 여망에 부응하여 지역의 소식을 전하여 온 지도 어언 12년 세월.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하여 소임을 다하여 온 속초 문화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 호 성
(속초시 의회 의장)

하나의 씨앗이 이 땅에 떨어져 발아하기 위해서는 지각을 뚫고 나오는 고통과 아픔이 동반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속초 문화 발전의 밑거름이된 초창기의 피와 땀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속초 문화는 설악산 대청봉 정상에 우뚝 선 소나무처럼 창망한 동해를 굽어보면서 제3의 비상(飛上)의 나래를 펼칠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창간 이래 지금까지 공들여 쌓아 온 향토지로서의 찬란한 금자탑을 존속시켜 나아가야 할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위에 새로운 첨탑을 세워야만 하는 것이 속초 문화에 놓인 지상의 과제라 여겨집니다.

속초 문화는 지역 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토론의 장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의 기관 단체등을 통하여 우리 고장을 소개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으나마 지역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될 수 있다는 것만이라도 우리 모두는 많은 축복과 행운을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창간 12년을 계기로 속초 문화 발전사에 커다란 하나의 획이 그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속초 문화는 그 명성에만 만족하지 말고 새 역사 창조의 주역이 되어 그 역할을 다함으로써 향토지로서의 명예를 찬연히 빛낼 수 있는 자랑스런 향토지가 되어 줄 것을 바랍니다. 아울러 속초 문화 타향토지보다 뜻있는 독자들과 온 시민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커다란 기대를 걸고 있음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온 시민의 향토지요 강원도민의 향토지이며 나아가 전국의 향토지임을 늘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열두 번째로 발간되는 속초 문화는 제자리를 잡아 향기와 빛을 멋지게 발하여 시민들의 향토지로 승화시켜 주길 바라며,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향토지로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21세기를 대비하는 속초 교육



閔 泰 軾
(속초 교육장)

1. 머리말

다가오는 21세기는 정보화사회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속에서 지금까지의 경험으로는 전혀 예측하기 힘든 다른 사회구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21세기의 사회적 특징은 정보화사회, 열린사회, 세계화, 지구촌, 무한경쟁시대, 국경이 없는 사회, 탈 이념의 사회 등으로 이름지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들 용어들이 내포하고 있는 내용들이 서로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공통성이 있다. 즉 그것은 지금까지의 가치기준이나 관행 등으로는 짚 수 없는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전개되어 갈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예측때문에 학교교육도 지금까지의 교육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새로운 정보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정보화 시대와 다변화시대에서 21세기를 대비하는 교육과 국제적인 관광도시이며 실향민의 염원을 담은 통일 교육 방안, 우리 고장 속초의 특색을 살리고 열린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21세기를 대비하는 우리 속초교육의 나아갈 방향과 추진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2. 21세기를 대비하는 속초교육의 추진 내용

21세기를 대비하여 속초교육청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 내용은,

첫째, 정보화 사회를 대비하는 교육

둘째, 관광교육

셋째, 통일대비 교육

넷째, 열린교육의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으며 각 추진 내용을

소개하면

1) 정보화 사회를 대비하는 교육

정보화 사회의 특징을 여러 측면에서 말하고 있으나, 간단히 말하여 정보가 모든 사회현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정보란 비밀정보기관의 자료로부터 어떤 사실에 관한 모든 데이터는 물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까지 포함된다. 각종 서적의 내용도 정보이고, 교육과정의 내용, 가르치는 내용도 정보에 속한다. 이러한 정보 없이는 앞으로 아무일도 할 수 없는 사회가 도래된다. 물론 과거에도 정보 없이는 아무일도 할 수 없었지만 정보의 유통이 매우 느렸기 때문에 정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 반면 현대에는 최신 컴퓨터의 등장으로 정보의 흐름이 대단히 빨라졌기 때문이다.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기억시키고 활용하는 일이 대단히 빨라졌기 때문에 정보를 잘 다루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정보화 사회에서는 지구촌 곳곳의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안방에서 송수신하기 때문에 정보의 홍수속에서 살게 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보가 매우 빠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정보를 신속하게 흡수하고 활용하지 않으면 국제 경쟁속에서 낙오되고 만다.

이러한 정보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속초

교육청에서는 전 학교에 컴퓨터보급을 1994년도에 완료하였으며 '95년도부터는 최신 586컴퓨터의 보급을 확대해가고 있다. 따라서 관내 모든 학교에서는 컴퓨터를 통한 CAI 학습을 실시하고 있으며 PC통신(KITEL망 활용)을 활용하여 교사가 통신망으로 과제제시나 학습준비물 및 아동과의 대화를 하는 학교가 점차 확대하고 있다.

특히 속초초등학교는 교육부지정 컴퓨터 시범학교로 지정되어 교사와 아동이 직접 학습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금년에는 강원도내에서 처음으로 멀티미디어실을 설치하여 최첨단 컴퓨터 시스템에 의한 정보화 학습을 하고 있다. 또 교육청 관내 모든 학교에 PC통신망을 설치하고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각종 교육정보 및 교수-학습지도자료를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문서를 다운 받아 PC 통신으로 처리함으로써 인력과 시간의 낭비를 줄여가고 있다. 이러한 교육활동의 연차적 확대로 21세기를 대비하는 정보화 사회를 주도하는 인재육성에 앞장서가고 있다.

2) 관광교육

21세기의 주인공은 지금 자라나는 학생이다.

세계화의 바람속에서 우리것을 간직하고

세계 속의 대한민국 국민이 되려면 내 고장을 사랑하는 애향정신에서 출발하여야 할 것이다. 가정·학교·고장의 뿌리를 알고 고장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며 조상의 얼과 지혜가 담겨있는 미풍양속과 고장의 자연을 가꾸고 지키는 일에 앞장서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 속초와 양양은 명산인 설악산 국립공원을 비롯한 천혜의 자연조건을 많이 가진 한국 최고의 휴양지로 그 위치를 확인한 관광자원은 우리의 귀중한 자산이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지역의 특성을 잘 알아야 남에게 알릴 수 있고 가치도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자라나는 학생이 우리 고장의 소중함을 알고 긍지를 가지는 해양교육을 실천하고 나아가 관광객에게 우리의 자랑거리를 소개하고 안내하는 관광요원화 교육에 힘쓰고 있다. 1995년도부터 실시한 관광요원화 교육은 각 학교별로 고장의 관광지를 소개하는 관광학습자료를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속초교육청에서는 속초시가지 약도, 속초 지방의 안내, 속초의 명승고적, 속초시의 관광코스 안내, 속초의 문화재, 속초의 문화행사, 민속놀이 특산물, 속초의 맛자랑, 교통이용 안내 등을 자세히 소개할 수 있는 관광교육자료집을 개발·보급하여 각급학교에서

관광교육을 실천하는 장학자료를 발간하여 배부하였으며 연2회 학교대회를 거친 대표들이 교육청에서 내고장 자랑 발표회를 개최하여 관광교육에 힘쓰고 있다.

3) 통일대비 교육

우리 고장 속초는 38선 이북의 수복지구 도시이며 실향민이 고향을 그리며 살아가는 망향의 도시이다. 이러한 지역적 여건으로 통일을 열망하는 마음은 어느 지역보다 높다. 이러한 통일 여망을 교육에 반영하기 위해 본 교육청에서는 과거의 도덕, 사회과 중심의 통일교육에서 모든 교과과 특별활동 영역까지 확대하고 있으며,

첫째, 민족동질성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전통문화교육과 언어 동질성회복 교육 실시.

둘째, 민족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 같은 동포로서의 동포애 교육 실시.

셋째, 민주주의 및 자유경제체제 우월성 고취를 위해 남북한 생활상 비교 교육과 사회주의 경제체제 비교 교육 실시.

넷째, 북한 바로 알기 교육을 통해 상호 이해와 화해를 위한 노력과 북한 학생들에게 편지쓰기를 통해 동포애를 심어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추진과제의 해결을 위해 훈화, 학교행사, 시사교육, 환경계시교육, 현장학습 등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통일대비교육

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다.

4) 열린 교육

21세기의 사회의 특징을 열린사회라 한다. 열린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열린교육은 필수 요소이다.

열린교육은 정보화, 다양화, 세계화 등 급속한 변화속에서 새로운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인간을 육성해보려는 노력이다. 21세기의 사회는 얼마나 각자의 소질,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고 창조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자유와 공생을 누릴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국제적 개방 추세속에서 자유롭고 멋있게 살 수 있는 인간을 길러나가기 위해 열린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여겨져 속초교육청에서는 1995년도부터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하여 왔다.

첫째, 꾸준한 교육투자를 통하여 각 학교에 열린교육을 위한 환경조성과 교실시설을 개선하고 교육자료를 확충하였으며 각종 시청각 기자재를 보급하여 왔으며,

둘째, 열린교육 시범학교 운영, 열린교육 연구회 활동지원, 열린교육, 연수회 개최 등을 통하여 열린교육의 분위기를 확산하였으며,

셋째, 각 학교에서 주간학습예고제 운영을 통해 과제를 실시하고 조사토의학습, 소집단 협력학습, 지그소우학습, 브레인스토밍 등의

다양한 학습방법을 통해 아동들이 학습과제를 찾아서 즐겁게 해결하는 교수-학습활동으로 장학활동을 전개하여 평생학습의 기초를 닦는데 힘써 왔으며,

넷째, 책가방 없는 날 운영으로 견학학습 및 체험학습 활동을 강화하여 왔으며, 소규모 학교에서는 소인수 학습의 특색을 살린 개별학습코너와 직접·간접학습 실시를 위한 자료 및 시설을 지원하여 왔다.

3. 맺는말

앞에서 소개한 속초교육은 21세기의 정보화사회, 열린사회, 세계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기초교육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번 시·도교육청 교육개혁 평가에서도 속초교육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앞으로 속초교육청은 21세기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인재양성에 매진하며 정보화 사회를 이끌어갈 주인공, 내고장을 사랑하는 관광안내자, 통일의 일꾼과 열린사회의 실천자로서 손색이 없도록 학교현장에 과감한 투자와 지원에 온 힘을 쏟을 것이다.

막을 내린 유토피아의 꿈

— 구 소련이 붕괴된 현장에서



董 文 星

(속초 시장)

1864년 ‘런던’에서는 ‘칼·마르크스’가 기초한 선언과 규약이 채택됨으로써 공산당이 지구상에 첫 형태를 드러냈다. 이른바 ‘제1인터내셔널’의 출발이었다. ‘마르크스’가 기초한 공산당 선언은 1848년에서 1864년까지 영국에서 “자본가의 부(富)는 증가했는데 노동자는 더욱 궁핍해졌다.”고 통박 한데 근거를 두고 있다. 이와 같은 궁핍을 타파하기 위해 노동자들은 단결해야 하며, 국제적 유대를 공공히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1864년의 런던 회의는 세계 공산당의 태동을 의미하고 그것을 태동시킨 ‘제1인터내셔널’의 결성은 공산당 창립 선언이었다. 학술적으로는 세계 최초 노동자 계급의 국제적 조직이라고 일컫고 있으며, ‘국제 노동자 협회’라고 했다. ‘푸르동 바쿠닌’등이 참가한 바 있으며, 1876년에 의견 대립으로 해산되고 말았다. 그러나 ‘마르크스가 기초해 선언한 ‘국제 공산당 선언’은 그대로 명맥을 지탱해 1889년에는 ‘파리’에서 ‘제2인터내셔널’이 창립됨으로써 ‘제1인터내셔널’의 주지를 계승하였다. 노동 조합에 의한 국제 연합 조직으로 사회주의 정당의 모습을 갖추었으나 제1차 세계 대전이 발발함에 따라 실패하였다가 1919년에 재건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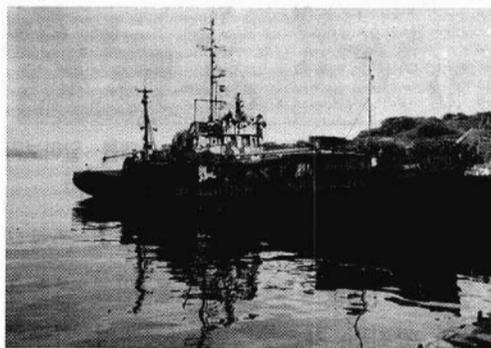
이와는 별도로 ‘마르크스’밑에서 공산주의에 심취했던 ‘레닌’은 자기 조국 러시아로 숨어들어 핵심 분자 7명과 혁명군 2만 명을 모아 부패한 제정 러시아를 쓰러뜨리고 1917년 10월 17일 광대한 러시아 영토에 지구상 첫 공산당이 지배하는 국가를 건립하게 되었다. ‘마르크스’는 공산당 선언을 기초하면서 노동자와 자본(노·사)의 관계를 수평적 협력 관계로 보지 않고 지배와 피지배 착취자와 피착취자적 의미로 부각시키고 자본가는 타도되어야 할 대상이며,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어 노동 계급이 국가를 다스리는 지상 천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파한 것이다. ‘마르크스’는 자본가를 증오하는 데 근본 논리를 맞추고 있으며, 영원히 타도해야 할 대상이라고 강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칼·마르크스'가 이러한 사회적 논리를 완성케한 배경은 어디에 있었던가? 그것은 그의 조국 독일도 아니고 프랑스, 러시아도 아닌 공산 혁명 초기의 영국 사회 환경이었다. 증기 기관의 발명으로 가내 공업이 초급 단계에서 대량으로 내몰린 노동자들의 실직 사례와 실직자들을 고용할 수 없는 사회적 조건들은 '마르크스'의 주장의 합리성을 부여하게 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군주국이었던 영국의 통치 제도가 자본가를 옹호하는 정치적 배경으로 '마르크스'가 생각하고 있는 공산주의 이론을 완성케 하는 사회적으로 충분한 요건이 되기도 했다.

러시아 혁명을 성공시킨 '레닌'은 '마르크스'의 이론에 기초하여 소련 공산당의 지도 논리로 1. 자본가, 지배 계급 타파론 2. 인민 해방 투쟁론 3. 국제 노동자 연대 투쟁론 4. 인민 복지론(유토피아 론) 등을 중심으로 반대 세력에 대한 숙청을 거듭하면서 국내 정치적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폭력 수출에 의한 국제 공산화운동을 펴왔지만 '레닌' 당대에는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레닌'을 계승하여 소련 공산당을 거머쥔 '스탈린'도 내부 반대 세력에 대한 가혹한 숙청에만 몰두하였을 뿐 소련이 제창한 국제 공산주의 운동은 소련 내부에서 제자리 걸음을 걸었을 뿐이다. 그러나 제2차 세계 대전의 종전과 함께 공산주의는 그 모습이 달라짐을 확인하게 된다.

유럽에서의 독일과 극동에서의 한반도 분할로 공산당은 양대륙에서 거점을 확보하게 되고 '알타 회담'에서 구라파의 전후 처리 문제로 동독과 폴란드·체코·유고슬라비아·헝가리·루마니아·알바니아 등 제국을

손쉽게 소련은 자기네 영향 아래로 귀속시키면서, 공산주의 판도는 확대되어 갔다. 2차 대전의 전승국인 소련은 여세를 몰아 전후 복구와 함께 공산주의를 대대적으로 수출, 1960년대에는 '쿠바'혁명을 성공시켰고, '쿠바'를 거점으로 중남미 지역에 공산당의 거점들을 확보하였고 베트남·라오스·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에 공산 혁명을 성취시키거나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리고 6, 70년대에 이르는 긴 기간을 통해 구라파의 식민 통치로부터 독립한 후진국인 아프리카 신생



▶ 녹슬어 버린 러시아 어선, 러시아의 어선들은 선박에 페인트칠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 녹슨 어선을 가지고 고기잡이에 나서고 있다. ('슬라비안카'항구에서)

국가들에게도 혁명을 수출하여 오늘날 아프리카 내의 민족 갈등에 불씨를 지피주기도 했다.

그러나 공산당은 최초 국가의 창설에서 74년만에 스스로 백기를 들고 몰락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유토피아'란 공산당의 원전에만 있었지 그 어디에서나 실행의 꽃은 피우지도 못하고 사그러졌다. 그렇다면 공산당은 왜 몰락하였는가? 여러 가지 구체적인 원인들이 있겠지만 다음의 몇 가지로 집약할 수 있을 것이다. 1.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잘 살고 있는 서방 국가들과 지나친 군비 경쟁

으로 엄청난 국가 재정의 부담. 2. 공산주의 확대를 위한 과도한 폭력 혁명의 수출. 3. 1당 체제(지배 계급)의 등장. 4. 경직된 관료 체제에 의한 통치. 5. 개인을 노동자로만 생각한 인간 두뇌의 개발 경시 등으로 꼽을 수가 있다.



▶ '햇산 라이온'연안의 수산 자원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자원조사선에 승선했다. (기운데 필자)

공산주의자들은 자본주의를 악질적 존재로 규정하고 쉬임없이 그의 타도를 위해 전력을 기울여 왔지만 자본주의는 아직까지 지구상에서 최선의 제도로서 채택되고 있다. 공산주의가 반대자에 대한 피나는 숙청과 경직된 자세로 1세기도 채 존립하지 못하고 스스로 멸망한 것에 비교하면 자본주의 제도가 아직까지 인간이 받아들이고 있는 제도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신기한 일일 수도 있다. 자본주의 제도는 따지고 보면 불합리성이나 모순이 많은 제도이다. 그러나 공산주의가 짧은 기간에 경직된 통치로 일관하다가 쉽게 사라져 버린 것에 비하면 자본주의는 공산주의가 지적한 내부 모순이나 불합리성을 과감하게 개선하고 보완함으로써 21세기를 내다 보는 오늘의 현실에서는 동요됨이 없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구소련이 해체될 때 그의 멸망을 예언한 소련 전문가는 거의 없었다.

오직 한 사람만이 소련은 감당하기 어려운 내부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없어 멸망하고 말 것이라는 예언을 내놓았다. '지미·카터' 대통령 당시 안보 보좌관을 역임했던 '브레진스키'이었다. 소련이 무너진 지 6년이 다가오는 오늘 모든 러시아의 시계는 소련의 붕괴되던 1991년의 시점에 멈춰있는 채 꼼짝하지 않고 있다. 소련의 붕괴로 연쇄적 반응에 의해 무너진 동구권 공산 제국(共產諸國)들이 살아 남기 위해 자구책을 강구하고 열심히 뛰는 것에 비교하면 러시아는 제자리에 앉아 일어나지 않는 형국에 비유할 수가 있다. 아파트나 대형 건물들은 낡은 상태 그대로이고 당시 건축 중이던 시설물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취약한 러시아의 경제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어디를 가보나 도로·항만 등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은 엉망이고 전력의 부족은 엄청난 제한 송전으로 공장 가동의 차질, 수도불 공급의 차질 등 사람들의 생활에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 재정의 적자는 일반 공무원과 교직원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5, 6개월씩 봉급이 체불됨으로써 젊은 교사들은 거의 학교를 떠나고 퇴직했던 늙은 교사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온 실정이다. '골호즈(집단 농장)'·'솔포즈(국가 공영 농장)'들도 거의 해체된 상태이고 관할 부서마저 희미한 실정이다.

분업 체제의 파괴로 모든 산업체가 마비되어 있다는 점이다. 구체제 아래에서는 각 공화국의 단위로 배당된 부품을 제작하여 일정한 공장에서 완성품을 만들어 냈는데 각 공화국들이 독립함으로써 이는 단절되었다.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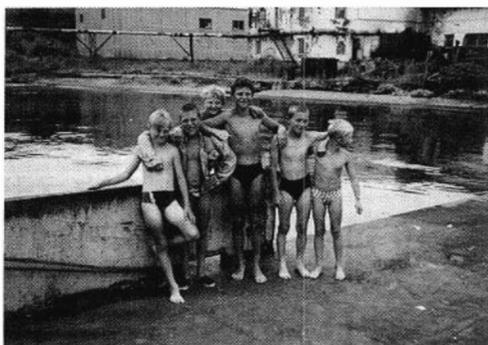


▶ '슬라비얀카 바자르'(시장) 입구에서 러시아 어린이들이 가자미 몇 마리씩 놓고 팔고 있다. 파리를 쫓기 위해 풀을 뽑아 흔들고 있다. 앞에 보이는 빗자루는 우리가 사용하는 것과 같다.

러나 러시아쪽에만 편재되어 있었던 초긴급을 요하는 군수 공장들은 예외라고 한다. 현재 러시아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형차량(승용차)은 대부분이 일본제이고 대형 화물차는 자국산으로 부속품이 없어 운행하다가 고장으로 멈추면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또 군대가 축소되고 산업체들이 문을 닫아 엄청난 장비들이 그대로 녹슬고 있다.

지금 러시아는 외자 유치(기업 투자)를 갈망하고 있으나 러시아 내의 치안 상태 불안과 기타 여건들의 불미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블라디보스톡'을 비롯한 연해주 지방의 경우 유통 상품의 4,50%는 외국 상품이다. 구체제에서 미국에 대해 당당히 도전했던 태평양 함대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었고 거대한 항공 모함 '민스크'함은 무장이 해체된 채 한국에 팔려와 해체되기 위해 '포세이트' 항구에 대기 중이다. 지금의 러시아는 옛날 붉은 기를 앞세우고 소산스럽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다. 철저히 통제된 체제 아래에서 조련되었던 사람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활력을 찾아보기 힘든 사람들의 행렬이 오갈 뿐이다. 소련 공산당의 성취를 지켜보

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모든 인민들에게 배부르게 빵을 먹게 한다는 것이었다. 제정 러시아를 쓰러뜨리고 폭력 혁명을 완성한 '레닌'도 모든 인민들에게 골고루 빵을 준다고 하였다.



▶ '자르비노'항구에서 어린이들이 천진스런 표정으로 카메라 앞에 섰다.

그러나 그는 새로운 계급인 공산당원 들에게만 배부르게 빵을 제공했을 뿐 전체 인민들은 70여 년을 빈곤과 가난에서 헤매이게 되었다. '고르바췌프'는 이 같은 불행을 더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붉은 깃발을 내려야만 했다. 소련의 공산주의는 빵을 배불리 먹게 하여 주겠다고 시작하였으나 빵을 제대로 조달하지 못해 무너져 버린 제도이다. 공산주의의 '유토피아'는 70년 동안 인간에게 허구와 증오, 적대적 개념에 의한 엄청난 살상만을 남긴 채 역사의 뒤로 사라져 갔다. 구소련이 붕괴된 현장에서 느끼게 된 것은 이제 우리가 받을 딴고 사는 지구상에는 다시는 허구에 찬 이념 분쟁이나 냉전 상태가 두번 다시 도래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다.

세계화를 겨냥한 속초시의 문화정책



郭 埈 玉
(속초시 부시장)

1. 속초 문화의 세계화를 위하여

속초는 궁극적으로 국제적인 관광도시를 지향(指向)한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단지 시간이 문제일 뿐이고, 좀더 높은 부가가치를 생산해 낼 수 있는 안목있는 개발이 요구될 따름이다.

사실 지금까지의 속초는, 이 나라 최북단 수복지구, 동해바다와 태백산맥 그리고 휴전선으로 가로막힌 - 그야말로 사면이 단절된 - 그런 변방으로 인식되어 온 게 사실이다. 관광산업이 본격화되기 전까지만 해도 속초를 중심으로한 영북지역은 수천년간 이 나라 최변방으로 고립되어 있었을 뿐이다.

그러나 속초를 둘러싼 이 인근의 수려한 자연은 훌륭한 관광자원으로 부상하고 있고, 실제로 한 해 기백만 명의 관광객이 몰리고 있어, 적어도 관광에 관한 한 가히 국내 최고라 할만 하다. 완벽에 가까운 관광자원을 확보하고 있는데다, 관광객들을 수용할 시설 또한 전국에서 가장 잘 정비되어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스스로를 관광 수도(首都)라 일컫고 있다.

전국 최고의 관광지라는 말은, 뒤집어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관광문화의 발상지'라는 의미다. 새로운 관광문화가 이곳에서 창출되고, 새로운 양태의 관광 소비가 이곳에서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달라진 관광 취향을 제일 먼저 파악할 수 있는 곳이고, 변화된 관광 양태를 제일 먼저 체험할 수 있는 곳이다. 이는 또한, 관광을 통한 다른 지역과의 문화 교류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렇듯 관광문화의 창출과 교류의 중심에 선 속초시는 이제 우리의 문화를 관광자원화하고, 나아가 이를 널리 보급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속초문화는 더이상 고립되어 있을 수 없으며, 국내 혹은 세계문화와 끊임없이 교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문화적 독자성을 상품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고, 외래 문화와의 교류과정에서 퇴폐적이고 불순한 문화를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2. 속초 문화의 확장 가능성

속초시는 이미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있다. 국제관광도시로의 성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이로써 가능해졌다. 또한 정부에서는 한국을 대표하는 10대 상징물 중의 하나로 우리의 설악산을 선정했다.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설악산에서 펼쳐지는 문화축제를 주요한 상품으로 홍보하고 있다. 또한 일본과의 직항로 개설, 제주도와의 항로 개설등으로 일본이나 동남아시아의 관광객들을 직접 유도할 수 있는 장치도 곧 확보될 전망이다. 차세대에서는 관광문화나 레저문화가 크게 확장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고, 이들을 수용할 모든 자원이 골고루 우리 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므로, 관광을 통한 문화적 확장 가능성은 이미 이것으로도 충분하다.

거기에도다 우리 지역은 또한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크게 부흥할 잠재적 요소들을 확보하고 있다. 우리의 지정학적 위치는 산업부흥의 '위치에너지'라 할 수 있다. 속초시는 동해안의 중심 항구이며 따라서 장차 통일한국시대에는 그 쓰임새가 요긴해 질 수밖에 없다. 북방교역의 전진 기지로 활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속초시는 러시아와의 직항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 두만강하구의 포시에트항과의 항로가 개설되면 중국 길림성의 연길시나 훈춘시와의 교역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되면 서울 등 내륙지방과의 근거리 육로를 확보해 각종 화물들을 실어나

르게 되므로, 국제항만으로서의 기능을 갖추게 된다. 게다가 북한과 경계를 접하고 있어, 통일한국시대가 열리거나 화해분위기가 조성되면, 가장 먼저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도 금강산과 설악산의 공동개발이 추진되고 있는데, 어떤 형태로든 북한과의 교류를 위한 전진 기지로 우리 지역이 활용될 것이다. 38이북 수복지구인데다 주민 구성원 중 상당수가 이북 출신이어서, 통일한국 시대의 민족동질성 회복에 가장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 바로 우리 영북지역이다.

이처럼 북한과의 교류,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교역, 외국관광객의 증가등으로, 외국 문물과의 접촉은 불가피하다. 이러한 환경은 속초문화의 확장가능성을 예견한다.

3. 문화적 독자성과 상품성 확보

문화의 흐름도 전류의 흐름과 같다. 전류의 흐름은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한다는 '옴의 법칙'을 따른다. 문화의 흐름도 그러해서 토착문화의 저항이 강하면 외래문화의 유입 속도가 느려지고, 외래문화의 압력이 강하면 급격한 문화적 변화를 겪게 된다. 문화의 흐름이 너무 빨라지면 사회적 혼란이 오게 되고, 문화 흐름의 속도가 지나치게 늦어져도 사회적인 고립을 당하게 되므로 그 속도는 적절히 조절되어야 한다. 우리 지역이 외래문화에 노출되었을 때 자기 문화의 독자성을 얼마나 오랫동안 지킬 수 있으나 하는 것은, 바로 토착문화의 애착도와 자긍심에 달린 것이다.

흔히 속초문화는 전통성에 근거한 문화라 볼 수 없고, 따라서 독자성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인식되어 있으나, 설령 그것이 사실

이라 하더라도 그리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속초가 가지는 문화적 특수성만은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서도 지적한 바 있지만, 통일한국 시대에 이르렀을 때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충분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 이를 활용한 문화상품 개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다, 그 자체가 속초문화의 독자성이라 할 것이다. 가령,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가꾸어 온 북한지역의 문화적 양태가 이곳의 실향민들은 그후 어떻게 이를 지켜왔는지를 확인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북청사자놀음은 남한에서는 속초에서 최초로 실향민들에 의해 부활되었는데, 실제 북청지역에서는 이 민속이 어떤 형태로 남아있는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 지역 실향민들은 모두 전쟁으로 발생한 유민들인데 비해, 일본 강점시절 러시아나 중국으로 이주한 북한 출신 유민들은 이와 상황이 다르다는 점에 착안한다면 그들과의 문화적 양태 변화도 비교해 볼만 하다. 따라서 우리 지역에 자존하고 있는 북한 문화들 - 음식이나 민속, 말투나 생활방식 등 - 은 모두 문화적 독자성이나 특수성으로 형상화가 가능하고, 이것을 모두 문화상품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다.

속초 인근 지역과 연계하여 역사적 자원을 문화상품으로 개발하는 것도 가능하다. 양양은 6천년전의 선사유적을 가지고 있고, 고성과 속초에서도 3-4천년전의 선사유적이 대거 발굴되고 있다. 양양에서는 선사박물관을 짓는 등 이를 자원화 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와 연계한 상품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양양의 낙산사·진전사·선림원, 그리고 속초의 신흥사, 고성의 건봉사 등은 지난 날에도 우리 지역이 문화적 중심지였음을 입

증하는 근거들로서, 이들을 패키지화할 수도 있다. 해양박물관을 만들어 고기잡이의 역사적 변천과정이나 선박의 발달사 등을 일목요연하게 살필 수 있게 하고, 어로요의 발굴이나 어촌 민속의 진열, 동해안 어종의 수집 전시, 그리고 바닷속 전경을 관찰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도 훌륭한 관광상품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생태관광상품도 개발해 봄직하다. 인근 도시인 고성에서는 비무장지대의 생태계를 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양양에서는 남대천 일대의 생태계를 활용하여 연어 축제를 개최할 예정이고, 태백산맥 줄기에서 자생하고 있는 송이를 이용해 송이축제도 준비하고 있다. 우리도 설악산의 생태적 가치를 활용하거나, 동해안 청정해역의 생태를 상품화하는 방안이 연구되어야 한다. 다음 세대는 생태관광이 각광받는 관광상품이 될 것임은 명확하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우리 지역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로, 노년층의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다. 중앙에서 활동하다 은퇴한 원로들이 대거 정착하고 있는데, 말년을 휴양도시인 우리 지역에서 보내기로 작정하고 내려온 이들도 있다. 이런 경향은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고, 이는 결국 이곳이 실버타운(silver town)화 될 것임을 예고하는 현상이다. 물론 이런 비생산적 인구가 유입된다는 것은 지역사회로서는 별로 반길 일은 아니다. 그러나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들이 퇴폐문화의 유입을 경계하는 한 방패막이가 될 수 있다. 이들로 인해, 중앙회 고급문화가 묻어 들어오게 되고 천박스러운 퇴폐문화가 잠시 지체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일단의 문화적 소양을 갖춘 도회지

노년층의 유입으로 인해, 고급스런 중앙문화의 전파와 수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노년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이로써 국제관광지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화적 황폐화를 막고, 휴양도시로서의 상품적 가치를 추가할 수 있겠기 때문이다.

단순 휴양의 개념에서 벗어나 연구나 회의를 동시에 개최할 수 있는 기능도 첨가되어야 한다. 각종 세미나나 학술토론이 연이어 개최되어 도시의 품격을 높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세계 정상의 정치가나 사업가들이 국제회의를 위해 이곳으로 몰려들고, 예술가나 학자들이 작품생산이나 연구발표를 위해 이곳에 머문다면, 국제적 문화도시로서의 면모가 혼충 강화될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적 규모의 축제를 개발하는 등 문화적 가치와 수준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명제는 여전히 유효하다. 우리만의 문화적 독자성을 상품으로 개발해 이를 국제화시켜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퇴폐적인 유희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국제관광객을 맞을 것이 아니라, 세계인이 즐길 수 있는 격조높은 문화상품을 준비하고 이들에게 손짓해야 할 것이다.

4. 국제문화 구성원으로서의 속초문화

속초를 위락도시로 성장시키기보다는 문화관광도시로 발전시켜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의 여러 자원적 요소들을 극대화하여야 한다는 사실은 새삼 다시 거론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앞으로 속초의 관광과 산업 정

책은 문화적 배려를 우선하여야 한다. 지역 주민들이 문화적 주도권을 가진 채 관광개발의 실익을 챙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는 필수적이다.

이와함께 고려해야 할 점은, 외래 퇴폐문화의 차단이다. 양양 국제공항건설, 속초항만 개발 등으로 앞으로는 속초가 외국 문물과 직접 접촉하는 선봉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이들 퇴폐문화도 함께 들어오게 되고, 이는 우리 삶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문화적 방어장치가 절실하다. 주민과 접촉하기 이전에 어느 곳에선가는 이를 완충시키기 위한 장치가 있어야 한다. 이는 앞으로 세계화를 겨냥한 지역문화정책 입안과정에서 가장 먼저 배려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런 몇가지 유의사항을 감안하여, 속초의 문화정책이 세계화를 지향한다면, 우리 속초문화는 기어코 국제문화의 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유럽의 '에게해(海) 문화', 남미의 '잉카 문화', 그리고 태평양 북서연안의 '속초문화'. 이처럼 장차 속초문화는 이들 세계문화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분류될 것이다. 속초 주민의 삶의 형태인 속초문화가, 한국의 대표적 문화이자 국제 문화를 구성하는 한 요소로 자리잡고 그들과 어깨를 같이 하기 위해서는, 이제 관광 수도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문화수도(首都)로의 전환이 시도되어야 한다. 국제화를 맞는 속초시의 면모에 걸맞는 품격있는 문화창출에 정책목적이 설정되고 그 방향이 모색되어야 한다. 속초문화는 세계로 열려있고, 그 문화는 당대 우리에게 의해 창출되고 확대되며 보급되기 때문이다.

21세기의 속초관광과 설악산



崔 茂 一
(속초시 변영회 회장)

21세기를 몇 년 앞두고 아직도 집적지역으로
최북단 도시의 불안감이 전연 없는 것도 아니다.
통일을 기대하는 실향민의 애뜻함 마음도 지척의 북녘
마을을 더욱 자주 바라보게 할 뿐 아직도 통일의
조짐은 찾을 길이 없으며 때아닌 무장공비 출현으로
더욱 큰 아픔을 남기고 있다.

설악산 관광특구의 중심도시 속초.

우리 강원도가 자랑하는 속초는 설악산의 빼어난 경치와
계곡마다의 맑고 깨끗한 물, 이와 어우러져 있는 아름다운
호수, 정취있는 온천, 넘실거리는 푸른 청정 동해바다 등등.

가히 세계적이라 할 수 있는 뛰어난 풍치를 고루 갖추고
있다.

관광산업이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3차 산업으로 부각되면
서 속초의 발전 잠재력은 국내 그 어느 도시보다 크다 하겠
다.

실제로 한해 700만명 이상의 내외국인 관광객이 설악을
찾고 있는 현실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다른 부존자원이 별로 없는 강원도의 경우 장래를 걸고
추진해야 할 주력 산업은 관광산업이라는 데는 별로 이론이
없고 도민 전체가 관광산업의 진흥으로 낙후된 도세를 회복
하고 보다 풍요롭게 살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그렇다면 도내에서 관광자원이나 그 성장 잠재력으로 보아
속초보다 더 가능성이 큰 도시는 없을 것이다. 강원도의
주력 산업이 관광산업이라면 그 주력 산업의 중심은 당연히
설악산을 중심으로 한 속초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105㎡의 넓지 않은 면적에 절반 이상이 국립공원 구역으로 자연공원법에 묶여 있는 속초는 강원도에서 그 가용 토지 면적이 가장 적은 행정 단위에 속한다.

인구 또한 8만을 겨우 넘기고 있는 소도시에 불과하다.

먹는 물 사정도 가뭄이 있을 때마다 가슴을 조여야 하고, 환자가 생겨도 안심하고 찾을 큰 병원도 별로 없을 뿐더러, 자식이 크면서 집에 데리고 있으면서 보낼 4년제 대학 하나없는 교육의 불모지이다.

그나마 주말이나 휴일의 문화 욕구를 채워 줄 수 있는 격조있는 음악회나 연극 공연 또한 찾기가 매우 힘들다.

그야말로 산 좋고 물 맑은 자연 자원 이외에는 이렇다 할 내세울 것이 별로 없는 동네라 할 수 있다.

21세기를 몇 년 앞두고 아직도 접적지역으로 최북단 도시의 불안감이 전연 없는 것도 아니다. 통일을 기대하는 실향민의 애뜻함 마음도 지척의 북녘 마을을 더욱 자주 바라보게 할 뿐 아직도 통일의 조짐은 찾을 길이 없으며 때아닌 무장공비 출현으로 더욱 큰 아픔을 남기고 있다.

시즌에만 되면 몰려드는 관광객으로 도심 교통은 말이 아니고, 시장 물가도 뿔발직이 심하여 주부들의 심사를 불편하게 하며, 관광객 특유의 느슨한 마음 자세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거지, 해폰 씹씹이 등이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을 자칫 탈선으로 유혹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은 불안하기만 하다.

속초에 사는 우리 모두는 속초가 설악산

관광특구로 세계적 관광지가 되어 다른 지역보다 주민 소득이 월등히 높은 관광 선진지가 되기를 원한다.

한편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자식을 키우며 대대로 잘 살기를 원하며 질높은 문화생활을 풍요롭게 누리며 아름다운 설악산과 깨끗한 동해 바다를 언제나 그대로 가꾸어서 깨끗한 물, 맑은 공기를 이웃에 자랑하며 후손들에게 떳떳이 되돌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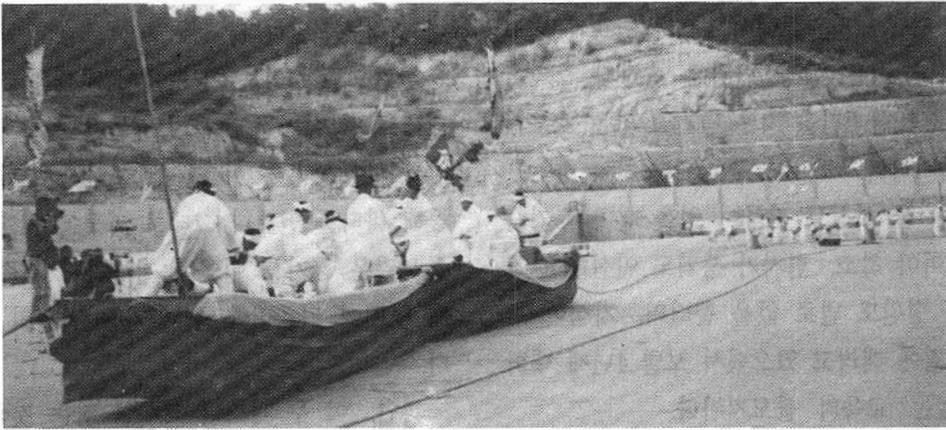
과연, 이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지금 제대로 틀을 잡지 못한다면 이 두 목표는 점차 그 거리가 멀어져서 어쩌면 영영 양손에 두 마리의 토끼를 같이 잡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관광산업은 그 대상이 관광 오는 외지인이기 때문에 관광객 위주의 편의위락 시설이 현지 주민들의 주거 문화에 반드시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불편을 감수해야 할 경우가 있으며, 교통 혼잡이나 환경 훼손의 부담이 가중될 소지를 항상 갖고 있는 것이다.

또한, 관광산업은 그 투자 규모가 대규모인 경우가 많고, 인허가를 득해야 하는 등의 정책적 뒷받침이 있어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지역의 영세 자본으로는 감당하기가 매우 어렵고, 실제로도 설악산을 중심으로 한 숙박 시설도 그 규모가 큰 것은 거의 외지 자본에 의한 투자로 그 과실이 지역 주민에게는 극히 적은 부분만이 돌아올 뿐이다.

설악산을 이용한 관광산업의 발전으로 하



여 생기는 이익은 반드시 지역주민의 몫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당위성에 근거하여 지역의 영세 자본을 규합해서 관광 소득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민의 단합된 힘으로 지역에 대한 애정과 자긍심을 이끌기 위해 향토 기업을 발족하는 설악산 모노 레일사업과 관광 유람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설악산 관광특구 지역이 명실 상부하게 국제적 관광지가 되기 위하여는 현행의 관광진흥법상의 관광특구가 아닌 상위법 개념의 특별법이 재정되어 자연공원법이나 문화재 보호법에서와 같이 불합리한 규제에서 벗어나 실제로 자연 환경을 보존하면서 관광시설을 합리적으로 개발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연공원법의 개정으로 가능해진 국립공원 구역의 일부 변경도 서둘러야 하며, 불합리하게 이원화되어 있는 국립공원의 관리권도 반드시 지방자치 단체에 이양되어야 할 것이다.

설악산을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로 만들어서 많은 외국 관광객을 적극 유치할 수

있어야 하며, 량의 개념에서가 아닌 질의 개념에서 고품질, 고급 관광지를 만들어 나아가며 지역 자본이 총연대하여 지역 기업의 참여폭을 넓히고, 관광산업에서 벌어드린 수익은 그 대부분이 지역 주민의 몫으로 되돌아와서 현지에 재투자되도록 유도하여 가장 소득이 높은 관광선진지를 만들어 가야 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설악산과 동해 바다, 호수, 온천 등의 천혜의 자연 자원을 한치의 훼손없이 철저히 보존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문화시설과 교육, 의료 기관의 확충 또는 반드시 이루어 내야 하겠다.

목전의 작은 이익에 치우쳐서 큰일을 망쳐 버리는 어리석음을 되풀이 말아야 할 것이며,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뜻을 모아 나아가 아름다운 자연 환경이 잘 보존되어 관광선진지 속초에서 풍요로운 문화생활을 함께 영위하는 착한 이웃들과 함께 오손도손 정답게 살 수 있는 속초가 되기를 바란다.

새 명소(名所)로 도약하기 위한 관광진흥사업(觀光振興事業)



회장 **林 昌 基**
속초 고성·양양·인제
상공회의소

1. 실태(實態) 및 문제점(問題點)

- 사실 우리 강원도 특히 설악권(속초시·고성군·양양군·인제군)은 지역 특성상 주력 산업이 관광 산업이고, 이를 진흥 및 개발하는 데는 많은 제약 요건을 안고 그야말로 험난하고 괴로운 고난의 길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 지리적으로는 북쪽으로 접경을 이루고 있으며, 지형적으로도 강원도 면적의 82%가 산지로 구성되어 있고, 해안선도 경사도가 심하여 항만입지, 간척, 임해 공단 조성등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 여기에도 토지 이용에 대한 규제도 강원도 면적의 65.4%를 차지하는 산림 보전 지역을 포함하여 총·개발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는 토지가 강원도 전체의 72.2%나 되며, 설상가상으로 여기에 자연 공원법, 문화재 관리법 등에 나타난 규제 현황까지를 합하면 강원도 특히 설악권 개발 가용 면적은 7~11%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 또한 정부에서는 국토 7개 광역권 개발 계획을 발표하면서 강원도는 국민 여가 지대로 선정되었고, 국토 7개 광역권 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개발 방향을 제시하였으나 강원도, 특히 설악권 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개발 방향이나 자원 조달 방법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대안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 한편 UR협상 종결로 세계 경제는 새로운 무역 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게 됨에 따라 우리 나라에 대해서는 '제2의 개국'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국제 사회의 현실입니다.
- 더욱이 소련이 와해되고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 몰락으로 탈냉전 시대를 맞이하였으나 경제·패권주의에 의한 유럽 공동체(EU)와 북미 자유무역 협정(NAFTA) 등 배타적 지역주의

경제 불력이 세계 경제를 지배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 우리나라가 WTO체제의 출범에 따라 회피할 수 없는 국제화와 개방화라는 제2의 개국에서 다시 낙오자로 전락하게 된다면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는 세계 경제의 활동 무대에서 고아의 신세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 또한, 국무회의는 지난 '94년 10월 31일 산림과 환경 훼손 방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국립 공원을 비롯, 자연 공원에서 골프장 및 스키장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자연 공원법 개정을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국립 공원을 둘러싸고 있는 속초시·양양군·고성군·인제군 지역내에서는 골프장 및 스키장 등 레저 시설의 조성이 불허하도록 자연 공원법을 강화, 의결한 것은 관광 전략 산업의 장기적 개발을 말살하는 처사로, 간과할 수 없는 다급한 현실이 우리 앞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 지방 자치가 본격화 되면서, 지방 재정 상태를 가장 쉽게 진단할 수 있는 것은 '재정 자립도'이고, 지방 자치제의 성패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지방 자치 단체의 '재정 능력'입니다.
- 제도적으로 아무리 지방 자치가 보장된다 하더라도 '재정 자립'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실상 중앙 정부에 의해 타치(他治)를 벗어나기 힘들며 홀로서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지역 일반시의 평균 재정 자립도는 그나마 50%를 넘는 수준인데

(53.7%) 비하여, 속초시(39.4%)를 제외한 설악권 소재 군 지역의 평균 재정 자립도는 20%에도 미달되는 실정입니다.

- 설악권은 여름 휴가철이면 어김없이 경향 각지에서 몰려드는 도시인들의 휴식 공간으로써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관광 인파로 인하여 수려한 자연 공간이 급속도로 훼손되고 있습니다.
- 또한, 설악권으로 접근하는 국도와 지방도로는 심각한 체증 현상으로 도로 기능을 사실상 상실하고, 주차장화되고 있어 수도권에서 설악권으로 접근하는데 무려 12시간 이상이 소요되고 있는 심각한 실정입니다.
- 한편 관광 최성수기 등 피서철이 되면 영동 고속 도로, 7번국도는 물론이고 미시령, 한계령으로 이어지는 44번 국도, 심지어는 새로 뚫린 46번 국도마저 차량으로 붐비고 엉겨붙어 있어,
- 농수산물의 유통이 막히고, 동해안의 활선어(活鮮魚)들이 국도상에서 운반이 지체되어 죽었으며
- 고랭지(高冷地)에서 애써가꾼 채소는 긴시간의 정체속에서 폭염으로 인하여 싱싱함(新鮮度)을 잃어, 도시의 시장까지 싣고 가봐야 지극히 싼값에 팔리고 있습니다.
- 이와같은 경제적 손실은 물론이고 이들이 버리고 간 각종 쓰레기 더미와 오물을 처리하는 것은 설악권 주민들의 몫이므로 분노와 짜증만 늘어나고 있어 설악권이 「자연의 보고」이니 「미래의 땅」이니 하는 것은 설악권 주민들에게

는 이제는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 지방자치란 개별단위 지역에서 민주주의를 실현시키고자 만들어진 것인데 우리의 민주주의 역사가 짧고, 더구나 지방자치제의 시행의 역사가 일천(日淺)한 가운데 지방은 재정, 제도, 행정등 각 분야의 자립역량이 아직 미흡한 상태여서 중앙부처의 지원과 협조가 절대 필요합니다.
- 특히 우리 강원도 설악권을 비롯한 동해안은 타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태이므로 중앙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상태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앙 정부에서는 강원도에 대한 지원을 주저하는 듯한 여러 현상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그 실례로 '96년도 상반기 중앙정부에 요청한 국비 지원건은 대부분 묵살당하였으며, 지방 공사 의료원 신축 사업 지원금 삭감 등 탈락·삭감·제외되는 현상이 빈발함에 따라 형평성 문제에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또한 지난 '94년 9월 1일자로 설악권의 총면적 148.6km²(속초시 전지역: 104.9km², 고성군 일부: 42.2km², 양양군 일부: 1.5km²)가 관광특구로 지정되면서 명실상부한 관광특구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설악권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국제화된 개발을 모색해야 하는 실효성있는 중장기 발전계획도 수립해야 하는 긴박한 시점에 우리들은 서있습니다.
- 속초시 총면적 104.9km²중 53%에 해당

하는 55.8km²가 국립공원으로 과다 지정되어 있어 지역개발 여건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구역 면적이 절대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 지난 10여년동안 꾸준히 제척(除斥)을 희망하는 국립공원지역은 속초시가지와 인접되어있는 소위(所謂) 척산, 도문, 설악동 일부지역을 포함한 총12.85km²로서 먼 옛날부터 가농(家農)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들이 자연부락을 형성하고 있는 야산(野山) (해발 20m~250m의 평야지대가 국립공원 지역에 포함되어 있어 관광개발 측면에서 고찰해 볼 때 미개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 대부분이 사유지로 소유권행사가 제한됨으로써 재산권 침해 여론이 증폭되고 있고, 가옥의 증·개축 제한으로 초라한 몰골이 지난 1950년대를 연상케 하여 관광 특구 지역으로서는 전혀 걸맞지 않습니다.

2. 국제적 관광 명소(國際的 觀光 名所)로 만들기 위한 대책 방안(對策 方案)

- 설악권은 수려한 자연환경과 부존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남북통일을 전망하고 환태평양 시대의 중심지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자연관광, 문화관광, 스포츠 및 레저 등을 연계하는 종합관광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 강원도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고려할 때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도로, 항만, 고속

전철, 공항, 통신등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여 풍부한 관광자원과 부존자원을 개발하여 특수관광상품을 내놓아야만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이른바 3섹터 개발 방식을 도입해야 합니다.

- 현재 부족한 교통시설과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개발계획을 통하여 설악권 관광 지역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특히 취약한 2차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산업구조의 균형을 이루고 생산성 있는 인구유입을 확보하는등 장기적 전략수립이 시급합니다.
- 지역개발과 발전에 기초적 밑거름인 강원도의 교통수단은 서울을 축으로하는 동서와 춘川을 중심으로 麟蹄에서 설악권과 동해안으로 연결되는 고속도로는 기존 영동고속도로로(春川~原州間) 중앙 고속 도로와의 연계로서 전 강원도가 만나질 생활권으로 지역간 균형적 개발에 기여할 것임으로 고속전철의 1/5에 불과한 사업비로도 가능한(공사기간: 약 2년) 동서 고속 도로 민자 유치가 시급합니다.
- 본격적인 지방 자치는 홀로서기 위한 노력이 가장 절실함으로 주민 본위의 참봉사를 위하여 법령, 조직, 재정 운영 등 지역 특성에 걸맞게 정비되고 보완되어야 한다.
- 환경 보전과 개발 정책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고 영구한 보존을 위한 환경 친화적 생태 개발을 견지하기 위해서는 관광

산업, 저공해 첨단 산업 유치에 주력하고,

- 현행 환경 영향 평가서 작성을 기술과 장비를 갖춘 전문적인 업체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에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환경 영향 평가원'같은 정치·경제적 논리가 배제된 상태에서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결과를 자신있게 내놓을 수 있는 독립된 기구 탄생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선진 관광국 '스위스'의 경우 해발 3천~4천m 이상의 알프스 고산의 비경을 쉽게 볼 수 있는 케이블카와 산악철도, 바다처럼 넓은 수많은 호수변 마을에 바퀴처럼 생긴 수차로 추진되는 배가 운항되고 있고,
- 산 아래 '비르그 역'(671m)에서 출발하는 글래시어 익스프레스 관광 열차는 1,000m가량 더 높은 곳에 있는 '체르마트'를 향하여 오르는데(거리: 44km, 소요시간: 1시간 20분) 천장 일부까지 통유리로 설치하여,
- 양쪽으로 펼쳐지는 알프스산의 아름다운 경치와 산간 마을의 풍경을 막힘 없이 감상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최선진 관광국 '스위스'의 특수 개발 기법을 배워,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보존과 개발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 스위스가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 되기까지는 '알프스'라는 관광보고(寶庫)가 있었음을 세계 주지의 사실입니다.

- '설악권'은 '알프스'보다 더 나은 관광이 보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위스가 외화 수입과 지방 재정의 근간을 관광 수입에 두고 있듯이, 알프스를 특수 관광 상품으로 개발한 선진관광 개발기법과 성공사례를 정확히 분석 평가하고, '스위스'의 관광 행정 기구별 사업 및 업무 내용을 심도있게 분석·검토해야 합니다.
- 스위스가 '알프스' 개발을 위해 두고 있는 관광 행정 기구로는
 - ① 관광 문제 심의 위원회 ② 호텔 용자 협회 ③ 관광 공사
 - ④ 관광 연맹 ⑤ 관광 연구소 ⑥ 여행 공사 등 무려 8개 기구가 있습니다.
- 특히, '베른 대학', '잔쿠르트 대학' 등에 관광 관계 연구소 역할과 관광 행정과 진흥에 관한 주요 프로젝트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에서는 관광 전문 행정 기구를 조속히 정비하여 신설해야 합니다.
- '스위스'는 총연장 5,000km에 이르는 주요 도시와 명소, 산 정상의 노선까지 빠짐없이 도로가 이어져 있는 것은 물론, 알프스 산맥과 빙하로 연결된 총 5만마일의 도로 총연장 1만 2천km의 자전거 전용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 또한, 1,484개의 호수에는 수상스키, 카누와 보트레이스, 뗏목타기 등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알프스'의 물을 이용한 '대형 온천탕'이 외국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 알프스 산악 35만 농가 등 5만호가 관광 농가이고 이들이 보유한 숙박시설 침대수만도 40여 만개로 관광객의 80% 이상이 농촌에 머물면서 휴가를 즐길 수 있는데, 설악산과 스위스의 이들 지역은 기후, 지형등이 비슷하여 여름에는 피서지 휴양촌으로 겨울에는 스키 휴양지로 개발하면 설악권 주민들의 소득 증대에 한몫을 차지할 것입니다.
- 특히 알프스가 소속 자치 단체 기관들의 의지와 힘으로 개발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설악산 국립 공원의 '관리권'이 '지방 자치 단체로 이관'되어 이곳의 수익금을 재투자 또는 특정 시설 설치에 투자하는 관리 일원화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겠습니까.
- '스위스'는 산악지대가 국토의 3/4을 점유하고 있고, 산악이 많아서 터널이 무수히 많은데 제일 긴 터널은 무려 18 km (45리)가 되었습니다.
- 케이블카나 터널이 많은 '스위스'는 우리나라 '설악권'과 같이 공기가 맑고 깨끗하며, 국민 소득은 US\$ 35,000정도로써 세계 제1위이며, 산악 지대가 국토의 3/4을 점유하고 있지만, 개발 가능 면적도 국토의 3/4일 정도로 효율적인 개발을 하였습니다.
- 개발 기법은 전국토를 영구히 보존하기 위하여 개발하면서 특징있는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등을 제공하는 특수 상품화에 역점을 두고 있어 세계 제 1위 관광국임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관광 수입도 무려 US\$연간 100억 (8조 원) 정도입니다.

- 알프스의 여러 봉 가운데 '피라도우스 봉'이 해발 2,132m로서 으뜸인데 올라갈 때에는 케이블카를 이용하고, 내려갈 때는 48° 경사의 레일로 열차를 이용하는데 이용 요금은 US\$ 79.38(64,000)입니다.
- 내려갈 때에는 48° 경사 레일을 내려달리는 열차를 이용하는데 이 시설은 1889년에 만들어졌다고 하며, 내려오는 도중 다른 열차를 만나면 교행할 수 있도록 레일을 두 갈래로 깔아 놓았습니다.
- '피라도우스봉'을 향하여 오르면서 내려다 보는 풍경은 가히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고, 금시 안개가 끼는 듯 싶더니 곧 걷히고, 정상쪽의 옆길에는 터널을 뚫어 관광 명소로 개발하였는데 '스위스'인들의 '독특한 개발기법'을 엿볼 수 있습니다.

3. 결론(結論)

- '스위스'의 관광 행정 기구별·사업별 업무 내용을 심도있게 분석·검토해야 할 것이며 '설악권'(속초시·양양군·고성군·인제군)을 한데 묶어 '광역개발 협의체'를 구성하여 하나의 광역권으로 종합개발하는 것이 '국제관광거점지'로 자리를 확보할 것이고, 지역 경제에 총체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강원 개발 연구원'이 오는 2010년을 목표 연도로한 제3차 국토 종합 개발 수정 계획에 '설악권'을 포함시키도록 설악권 주민들은 총력적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국토 이용 계획과 병행하여 환경 정책이 펼쳐져 나가야 하며, 우리 나라는 고밀도 사회이므로 환경 보존의 관점에서 충분한 배려를 하면서 토지이용 대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이제 우리는 '스위스'나 '싱가폴' 등과 같이 국토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환경 정책을 펴나가야 하는데 작금의 환경부의 환경 시책은 개발억제로 일관하고 있어 환경 보존을 위한 국토의 효율성을 제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환경 평가의 권한은 환경부에 귀속되어 있어 대상 지역의 지방 관청이 관여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환경부가 모든 결정을 내리는 것은 서울의 시각에서 보고 판단하는 것이므로, 지방의 시각은 처음부터 배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나 시·군이 환경부의 결정에 사전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일방 통행의 시책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 선진국(일본·미국·스위스·프랑스 등)에서는 공해 방지에 관한 사회적 요청을 받아들여 연구 개발이나 기술 도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공해 방지 기술에도 전력 투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보존' 기술의 발전은 국토 이용을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환경 정책과 떼어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 없이 무조건 거부권 행

사를 할시에는 행정은 편하겠지만 대상 지역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됨을 알아야 합니다.

- 지방 자치의 큰 원칙을 요약하면 자기 재원(自己財源)을 토대로 자기 사무(自己事務)를 스스로 처리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으므로, 지역특성에 맞는 '관광세(觀光稅)'나 '온천 이용세'같은 새로운 지방세원을 적극 개발해야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재정 자립도 98%, 5대 광역시도 85.4%이므로 지방 자치를 하는데 재정에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도'와 대부분의 '시·군·구' 등 기초 자치 단체로 내려가면 재정 자립도가 평균 47% 이하여서 공무원의 봉급도 주가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자주재원' 개발, 즉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지방 자치가 정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 도시권의 팽창수요(膨脹需要)를 지역 여건상 국립공원 지역에서 수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직시할 때 국립공원 구역으로 과다 지정된 일부지역을 도시 계획구역에 포함시켜 국제적 관광·수산도시로서 또한 관광특구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는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조속한 조치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 지난 '87년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제시된 후 10여년 동안 표류(漂流)해온 동서 고속 전철 사업은 다가올 남북 통일

시대와 환동해권 시대를 대비한 강원도와 동해안 영동·영북지역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여 강원도민의 결집된 힘으로 적극 추진토록하여 환동해 경제권의 중심축(中心軸)을 형성해 나가야 합니다.

- 또한 북방지역의 전진기지 확보와 환동해 경제권 중심지로서의 교두보적(橋頭堡的) 역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양관광·해양 레저·해양 교육의 중심지인 해양 도시(Marinepolis) 건설을 위한 '신항만 개발계획'에 강원도 동해안 지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강원도 주민들의 총체적인 결집이 필요합니다.
- 수원(水源)이 적고 수량(水量)의 한계로 인한 만성적인 식수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다가오는 2,000년대의 우심한 물부족사태를 예비하기 위해서는 지나친 지역주의를 배제하고 설악권 지역 자치 단체 등의 유기적이고도 철저한 공조 체제를 형성하여 해마다 증가하는 내·외 관광객 격증에 따른 물 부족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광역상수원 시설' 확충 사업에 설악권 주민들의 절대적인 결집과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관광 특구 지역에 걸맞는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 시행되어야 하겠습니까.

참 우리 노래, 전통 가곡



林 秀 哲

I. 짜가가 판치는 요지경 세상

요즈음, 우리 사회에 진짜가 별로 없는 것 같다.

몇 년 전, 혜성과같이 나타났다가 낙엽과같이 사라져버린 노처녀 가수 신신애 씨(그 사이 시집을 갔는지?)의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노래의 가사대로 동서남북 사방팔방에 온통 '짜가'뿐인 것 같다. 가짜 처녀, 가짜 총각, 가짜 기자, 가짜 꿀, 가짜 산삼, 가짜 응답 등등 도대체 가짜 아닌 게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있다.

신혼 첫날, 신부가 신랑에게 이렇게 고백했다고 한다.

“저의 이 윤기있고 치렁치렁한 머리, 가발이에요, 하얗고 고른 이는 틀니예요, 검고 짙은 눈썹은 인조 눈썹이에요, 끈게 뻗은 이 다리는 의족이에요.”

이 고백이 사실이라면 어디 이뿐이었겠는가? 처녀성도 가짜요, 마음도 틀림없이 가짜가 아니었겠는가.

노래 역시 예외가 아닌 듯 싶다.

우리가 진짜 우리 노래인 줄 알고 있는 것 중 알고보면 가짜 우리 노래인 것이 한 두 곡이 아니다. 가곡도 그렇고 가요도 그렇다. 동요도 그렇고 민요도 그렇다.

가짜 우리 노래가 진짜 우리 노래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은, 물론 우리가 진짜 우리 노래와 가짜 우리 노래를 구별해낼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진짜 우리 노래 중에서 전형(典型) 중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전통가곡을 소개함으로써 진짜

우리 노래와 가짜 우리 노래를 구별해낼 수 있는 기초적인 능력 배양에 부족하나마 보탬이 되고자 한다.

II. 이 노래를 아십니까?

진짜, 오리지널, 참 우리 노래인 전통 가곡에 대해 글을 쓰려고 하니 갑자기 글문이 막히는 것 같다. 너무 억울하고 할말이 많으면 오히려 말이 안 나온다고 했던가?

일명, 만년장환지곡(萬年長歡之曲)이라고도 하는 우리 전통 가곡은 가짜 우리 가곡인 한국 가곡(홍난파·현제명 스타일의 가곡)에 밀려 마치 아메리카 인디언 신세와 같은 존재가 되어 버렸으니 어찌 음악적인 역장이 무너지지 않겠는가.

현재 음악 상황이 이러하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가곡'하면 '봉선화'나 '희망의 나라로'와 같은 홍난파, 현제명의 한국 가곡만 떠올리게 되지 진짜 오리지널 우리 가곡인 전통 가곡에 대해서는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심지어 음악 교과서에조차 우리 가곡의 효시가 홍난파의 봉선화라고 기록되어 있다. 정말, 천만 만만의 말씀…….

우리 전통 가곡은, 봉선화 이전 이미 몇 백 년전부터 엄연히 존재해 왔다.

좀더 구체적으로 전통 가곡에 대해 언급해 볼까 한다.

전통 가곡은 고려 때 시작되어 조선 때 완성이 된, 우리 전통 성악곡 중에서 가장 예술성이 뛰어난 노래이다.

노랫말은 시조시(時調詩)를 사용하며 5장

(章) 형식에, 관현악 반주 형태로 된 노래이다.

솔직히, 이 글을 쓰고 있는 필자도 봉선화 이전에 이미 이러한 우리 가곡이 있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게 된 것이 그리 오래전의 일이 아니다. 필자 역시 홍난파, 현제명 스타일의 한국 가곡이 바로 우리 가곡의 효시요, 정통(正統)인 줄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우리의 진짜 오리지널 가곡인 전통 가곡이 아메리카 인디언과 다름없이 참담한 신세가 된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 음악 교육의 과실 탓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제, 우르콰이 라운드 타결에 따라 모든 것이 전면 개방된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 음악 교육 시장이라고 한다.

그 동안 우리는 '음악의 서구화가 곧 음악의 선진화'라는 엄청난 착각에 빠져 모든 음악 교육을 서양 음악 중심으로 해왔었다. 그 결과, 우르콰이 라운드 타결 이전부터 음악 시장을 계속 열어준 풀이 되고 말았는데, 서양인들에게 한국 음악 시장만큼 황금 시장이 없다고 한다.

조수미 씨에 대해, 장영주 양에 대해 열광하고 감탄할 때가 아닌 것이다. 오페라 아리아에 흥분하고 파가니니에 도취될 때가 아닌 것이다.

도대체 조수미가 누군인가.

조수미는 대학 재학 시절에 성적이 불량해서 학교를 그만 두지 않으면 안 되었던 유급생이었다. 거기에 남자 친구에게까지 버림받

아 결국 한국을 떠났던 것이다. 물론, 이것이 개인에게는 전화위복이 되었지만 필자뿐만 아니라 성악에 대한 약간의 기본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조수미 씨가 어째서 그렇게까지 큰 박수를 받아야하는지 도통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조수미씨는 마스크에 의해 날조된 전형적인 가짜이다.

그럼 '신이 내린 목소리'라는 세계적인 지휘자 카라얀의 조수미 씨에 대한 찬사 역시 가짜인가? 조수미씨의 팬들에게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말이 되겠지만, 카라얀의 찬사 역시 가짜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노망이나 다름없는 잘못된 찬사였던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다음 기회로 미루겠다.)

조수미 씨는 우리 나라 사람들이 인정하는 세계적인 성악가이지 세계 사람들이 인정하는 세계적인 성악가가 결코 아니다.

도대체 세계화가 무엇인가, 민족적인 주체와 자존마저 내팽개치고 남의 것만 좇아가는 것이 세계화란 말인가.

정말 우리 나라 음악 교육 시장은 외국인들에게 가장 만만한 호구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전통 가곡의 의미는 참으로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전통 가곡은 우리의 무지와 무관심 때문에 거의 전멸 일보 직전에까지 몰린 가련한 노래가 되었지만, 예전에 전성기 때에는 빠르기에 따라 만대엽(慢大葉), 중대엽(中大葉), 삭대엽(數大葉) 등 세 종류가 있었다고 한다. 현재는, 이 세 종류의 가곡 중 가장 빠른 템포인 삭대엽만 전승되고 있는데, 사

실은 삭대엽도 실제로 들어보면 알 수 있겠지만 엄청나게 느린 노래이다. 아아, 세계에서 가장 느린 노래가 아닌가 생각된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서양 음악의 템포와 비교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다.

서양 음악에서 가장 느린 템포는 그라베(Grave)로, 1분간 약 40번 정도의 속도이다. 그러니까 한 박의 길이가 1.5초인 셈인데, 성인들의 1분간 정상 맥박수가 60~80번 정도이니까 정말 대단히 느린 템포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삭대엽은 보통 템포의 곡이 그라베 정도이고, 아주 느린 이삭대엽이란 곡의 템포는 그라베보다 약 두배 가량이 느리다.

그렇다면 삭대엽보다 느린 만대엽과 중대엽이란 가곡은 얼마나 더 느렸을까? 현대인들의 템포 감각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느렸을 것이다.

필자가 그 동안 국악과 관련된 글을 통해서 거듭 되풀이 주장해온 바와같이, 우리 나라 사람이 성질이 급하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급하기는 커녕 너무 느려서 문제가 되었었다.

현재와 같이 우리 나라 사람들이 성질이 급해진 것은 개화기(개화기란 말만큼 우리에게 모독적인 말도 없다. 개화기 이전의 찬란했던 우리의 문화와 역사는 그럼 무엇이란 말인가? 엄청난 착각 속에서 우리는 그 동안 개화를 당해온 것이다), 일제 치하, 6·25전쟁, 5·16, 12·12 등을 겪으면서였다. 그 전에는 전통 가곡처럼 세계에서 가장 느긋한 기질의 민족이었던 것이다.

만시지탄감이 있지만, 이제부터라도 본래

의 우리 기질인 유유자적함을 되찾아야 할 것이다. 이것을 되찾지 못하는한은 성수대교 붕괴같은 끔찍한 사고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전통 가곡의 의미는 음악적 의미 그 이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각설하고…….

전통 가곡은 5장 형식으로 된 노래라고 했는데, 전통 가곡의 노랫말인 시조시는 주지하다시피 3장 형식이다. 따라서 노래의 형식과 노랫말의 형식이 다르다.

이에 대해 몹시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다. 하지만 시조시를 가곡에 얹어 부를 경우에는 3장을 가곡 형식에 맞게 5장으로 나누어 가락을 구성하기 때문에 노래와 노랫말의 형식이 결국은 같게 된다. ‘동창이 밝았느냐’란 시조시를 한번 예로 들어보자.

초장 :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지리
우지진다

2장 : 소치는 아희눔은 상귀 아니 일었느냐

3장 : 재 너머 사래 긴 밭을 언제 갈려
하느니

이와같이 이 시조시는 3장 형식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시조시를 가곡의 가락에 얹어서 부르게 되면 다음과같이 5장 형식으로 재구성이 된다.

초장 : 동창이 밝았느냐

2장 : 노고지리 우지진다

3장 : 소치는 아희눔은 상귀 아니 일었느냐

4장 : 재 너머 사래

5장 : 긴 밭을 언제 갈려 하느니

그러니까 형식이 좀더 세분화가 되는 셈이

다.

그런데, 특기할 만한 사실은 이러한 형식으로 된 전통 가곡은 실제로 부를 때 여러 곡을 한꺼번에 묶어서 마치 서양의 연(連)가곡처럼 부른다는 점이다. 이것을 가곡 한 바탕이라고 하는데, 가곡 한 바탕은 남창(男唄 : 남자들이 부른다는 뜻) 가곡의 경우 24곡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24곡을 모두 다 들어야 제대로 가곡을 감상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필자가 24곡 모두 감상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계산을 해본 적은 없지만 세번째 곡까지 계산을 해본 일이 있다. 약 30분 가량이 걸렸다. 겨우 세 곡만 감상하는데도 웬만한 협주곡 전(全) 악장 정도의 시간에 해당하는 30분이나 걸렸으니 24곡 모두는 어느 정도인지 대충 짐작이 될 것이다.

게다가 가곡은 음악적 구조도 매우 복잡하며 언급한 바와같이 반주도 독주 형태의 반주가 아니라 합주 형태의 관현악 반주이다. 한 마디로, 전통 가곡은 아무나 부르고 감상할 수 있는 대중적이고 아마추어적인 노래가 아니라 고도의 음악적 훈련을 거친 사람들이 부르고, 즐길 수 있는 전문가의 노래인 것이다. 더욱이, 전통 가곡은 예전에 선비나 양반들 계층의 노래였기 때문에 부르거나 듣는데 있어서 그 법도와 방도가 대단히 까다롭다.

난초나 매화의 암향(暗香)처럼 그윽하고 청초한 흥취를 간직하여야 하며, 장미나 모란같이 화려한 멋을 부리지 말아야 한다. 또, 격렬한 떨림이나 폭넓은 음의 꺾임도 금한다. 노래 부르는 이의 얼굴 표정도 담담해

야지 찌푸린다고 활짝 웃는 표정도 금한다. 서서 노래하는 것도 물론 금한다.

그러므로, 요즈음같이 천박하고 경박한 시대에는 전통 가곡이 대중들에게 애호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민족이 누구인가? 우리 민족은 칼잡이(사무라이)의 후손인 일본인과도 다르며 총잡이의 후손인 미국인과도 다르다. 해적의 후손인 영국인과는 더더욱 다르다. 우리는 붓잡이 선비의 후손들이 아닌가. 따라서, 우리는 누구나 전통 가곡을 이해하고 애호할 수 있는 잠재적인 능력을 다 가지고 있다. 고상한 사람은 클래식 귀신에, 좀 천박한 사람은 팝 귀신에 씌어 전통 가곡을 몰랐던 것 뿐인 것이다.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선비 행세하면서 좀 품위있고, 고상하게 살아야하지 않겠는가?

Ⅲ. 알고보면 아주 부드러운 노래인데

이외에도, 전통 가곡에 대해 설명해야 할 부분이 참으로 많다. 하지만, 국악 초보자들 내지는 문외한인 분들에게 처음부터 너무 많은 것을 설명해 드릴 수는 없는 일……. 흥난과의 가곡이 우리 가곡의 원조가 아니라 그 전에 이미 존재해왔던 전통 가곡이 바로 우리 가곡의 원조라는 사실 한 가지만이라도 독자들께서 제대로 이해했다면 큰 소득이라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필자 나름대로 설명을 쉽게 하노라고 했지만 어느 정도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다. 지나치게 음악적인 접을 많이 준

것은 아닌지…….

전통 가곡이 깐깐하고, 고지식하고, 몹시 까다롭고, 어려운 노래인 것만은 사실이지만 조금 친해보면 그것도 아닌데 필자의 어설픈 설명이 독자들에게 전통 가곡을 더 멀어지게 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전통 가곡의 참맛을 제대로 아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전통 가곡이 너무 느려서 지루하고 답답한 것처럼 느껴질 것 같지만 그렇기는커녕 신선놀음에 도끼 자루 썬 줄 모를 정도로 사람을 폭 빠지게 하는 노래라고 한다.

농담같은 진담이지만, 이러한 전통 가곡을 처음 듣자마자 좋다고 느껴지는 분은 선비의 후손이 틀림없다. 한번, 자신의 음악적 혈통을 시험해 보고 싶지 않으신지…….

그러나, 첫귀(耳)에 반하지 못했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첫귀에 반할 사람은 0.1%도 안 될테니까… 또 타고난 선비보다는 만들어진 선비가 교육적으로는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

필자같이 타고난 선비라고 자타가 공인했던 사람도 전통 가곡과 친해지는 데 시간이 좀 걸렸었다. 하물며….

<林秀哲 略歷>

-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음악교육과 졸업
-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대학원 졸업
- 한국작곡가회, 한국음악평론가협회 회원
- 월간 음악저널 편집위원
- 속초고등학교 음악교사
- 주요저서 : O.K 國樂 I · II 권(국악해설서), 음악적 오류와 오해(음악평론집), 사랑한 것에 대하여(장편소설집)



산악 · 해양
토착 · 실향민
문화의 접목

제 31회 설악 문화제 (雪嶽文化祭)

- 10월 5, 6일 양일 간에 펼쳐 -

제31회 설악 문화제(雪嶽文化祭 위원장 金麗水)는 이 고장의 문화 특성인 산악 문화·해양 문화·토착 문화와 함께 분단의 부산물인 실향민 문화까지 혼합된 이질 문화의 특성을 최대한 살린 문화 축제로 평가할 수 있다.

산악 문화의 특성으로 설악 대제로 설악 산악 제전이 예년의 행사보다 강화되었으며, 해양 문화 제전으로 해안 별신굿·해상 불꽃 놀이와 오징어 할복 경진 대회를 비롯한 바다와 수산물을 통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였으며, 토착 문화의 특성은 향토 민속 축전으로 이어져 농악 경연·투호(投壺·일명 精神投壺)·그네·씨름·토산품 전시회를 들 수 있으며,

실향민 문화의 특성을 살린 것이 이번 문화제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통일 염원을 향한 제전으로 북한 민속놀이 잔치·연등띄우기·북한 음식전·사투리 경연 등을

들 수 있다.

크게 나누어 ① 설악 대제 ② 설악 산악 제전 ③ 통일 염원 제전 ④ 설악 예술 축전 ⑤ 해양 문화 제전 ⑥ 향토 민속 축전 ⑦ 거리 문화 축전으로 펼친 31회 설악 문화제 행사는 '95년 '설악 문화제 연구단(雪嶽文化祭研究團) 단장 崔龍文 속초 문화원 원장)이 기획한 제반 안들이 설악 문화제 위원회에서 수용한 것으로 공설 운동장 행사를 지양하고 열린 공간 즉 마당놀이화로 동명항 매립지를 활용하여 시민들의 참여도를 높이었으며, 또한 지역 특성을 살린 문화 행사들이 속초 시민들만의 행사가 아닌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크게 한몫하는 관광 수익 차원에서 경 제성을 창출할 수 있는 문화재로서의 격(格)을 높일 수 있도록 이번 문화제를 거울로 삼아 그 위상을 한 차원 격상시켜야 할 책무를 전 시민들과 함께 문화제 연구단은 물론이며, 문화제 위원회가 풀어야 할 과제이다.

— 지역민들에 의해 계승되고 창안된 전통적인 지역 축제

향토 축제(郷土祝祭)는 지역민들에 의해 계승되고 창안된 지역 축제를 말하는 것을 향토 예술·향토 예능·향토 민속놀이 등과 일정한 연계성을 가진다. 즉 향토 문화 축제(郷土文化祝祭)는 해당 지역 사회를 구성하는 지역민들의 일상적인 생활 문화가 중심이 되어, 계승된 전통있고 개성있는 제의적 놀이마당의 성격을 띠는 문화행위인 셈이다.

축제는 예술과 문화, 놀이적인 의미가 가미된 제의(祭儀)의 한 형태로서 비종교적인 제의성(祭儀性)과 예술 유희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다시 말해 축제는 일과 놀이, 생산과 유희의 고리로써 상호 보완과 규제 기능을 가진다. 일하는 인간에서 놀이하는 인간으로 환치(換置)되는 장치가 축제다.

따라서 축제는 즐거운 흥분과 해방감을 맛보는 신나는 무대이기에 축제 놀이는 자발성과 목적성, 규칙성, 비일상성의 성격을 가진다. 그것은 정서의 표출이라는 두 가지 기능에서 비롯되는 데 이는 단순 소비나 퇴폐향락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진취적이며 창조적인 문화를 형성한다.

이처럼 축제는 생활 공동체 구성원들이 노동과 일상적인 속박에서 잠시 벗어나 일정한 기간 동안 풍요를 기원하며, 춤과 노래, 놀이를 통해 자연스런 감정을 털어놓은 놀이마

당이며, 대부분 제의를 중심으로 세속적인 세계를 성스럽게 만들려는 의도를 지닌 것으로 그 제의가 갖는 원초(原初)로의 회귀를 보여준다.

춤과 탈춤, 노래, 경기 등을 수반하여 혼돈을 질서로 바꾸는 장치며 동시에 현실 세계가 신화적(神話的) 세계로 환원됨으로써 혼돈과 대립의 이원적인 세계를 완화하고 해소해 준다. 또한 개별적인 노동의 세속적인 삶을 집단적 믿음의 공동체적 신성의 세계로 전환하는 계기를 만들어 준다.

다시 말해서 일과 휴식, 신성과 세속, 선과 악, 신과 인간, 생과 사, 남과 여, 양과 음, 하늘과 땅, 안과 밖, 질서와 혼돈, 이익과 손해, 가난함과 부유함, 깨어있음과 술취함, 산악 문화(山嶽文化)와 해양 문화(海洋文化) 등 이러한 모든 이원적 가치나 성격이 축제를 통해 일원적 세계로 융합되며, 너와나의 벽을 허물고 갈등과 반목의 고리를 풀어 “우리”라는 공동의 유대로 결집되는 한마당의 기능을 하게 된다.

따라서 억압된 인간의 감정과 행동 표현의 기회를 제공하며, 인간 본연의 위치를 되찾게 하고, 축제를 통해 사회 결재와 비판의 기능을 제공하며, 사회적, 종교적, 문화 교류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 관광·수산·수복 도시 특성을 부각 창조적인 한마당 축제로 승화

일찍이 속초 지역은 선사 시대(先史時代) 유적지 출토품으로 확인된 것과 같이 수천 년 전부터 인류 문명의 다양한 싹을 피워왔다. 더욱이 이 지역은 부족 국가인 예국(濊國)의 문화권역에 속해 있었던 관계로 매년 10월에 하늘신에게 제의를 올리던 국중 대회(國中大會)인 무천제(舞天祭)를 열었던 곳이다. 이후 신라 시대에 들어와 설악산(雪嶽山)에서 국가적인 제의로 대중 소사의 하나인 국가적 소사(小祀)로 치제(治祭)한 지역이다.

그러한 역사를 계승하는 산악제(山嶽祭)로서 설악 문화제(雪嶽文化祭)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속초는 지리적 특성으로 산악과 해양, 호수가 조화롭게 형성된 곳으로 일찍이 관동 팔경(關東八景)에 들었던 청초호(靑草湖)가 있으며 명산 설악과 동해안이 풍요로운 문화를 형성하였다. 束草市(속초시)는 남북 분단의 체감 지역으로 많은 실향민들이 월남하여 난민촌을 형성한 곳이다. 분단 50년의 살아있는 현장으로 6.25 전란 이후 많은 문화적 변화를 겪은 지역이다.

이런 사정으로 속초의 기층 문화는 자연히 외래 수용 문화와 융합되면서, 또 다른 문화 형태로 자리잡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970년대 이후 관광을 통한 선진국 진입이라는 명

제 하에 본격적인 지역 개발이 이루어졌으며, 그 영향으로 관광 문화라는 또 하나의 문화적 층을 쌓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와 환경적 변화에 따른 속초 문화의 기형적 문화적 층은 선명하게 문제점을 잉태했으며, 그에 따른 치유와 통합 작업이 필연적으로 요청되기도 한다. 따라서 속초 지역의 실정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추진되는 분홍빛 개발 계획이나 환상적 발전안은 사상 누각(沙上樓閣)일 수밖에 없다.

지역 개발의 주도 세력이나 문화 창안 집단의 확대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가 되는 현실에서 이미 31회를 맞은 설악 문화제는 속초 문화의 재창조와 활성화로 지역 문화의 토착화에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역사성에 입각한 전통적이고 향토색이 짙은 축제 행사를 통한 주민 일체감 조성 과 화합은 설악 문화제의 진로이며, 방향이다. 또한 이러한 기반 위에 전국적이고 세계적인 특성화의 축제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속초 시민의 삶을 총체적으로 집약하고 선양 계승하는 창조적인 한마당 축제로서의 승화로 관광 도시·수산 도시·수복 도시로서의 도시 특성을 부각하여 향토 축제의 특장화(特長化) 도모에 있다.

제례 행사와 실향민 문화의 복원



제의적(祭儀的) 원초성 확보

사람으로 치면 이제 31세의 성년을 넘어서신 설악 문화제는 지방 자치 시대의 중요한 관건이 되었다. 물질적 삶의 질보다 정신적 삶의 질을 요구하는 시대에 맞는 축제로 바꿀 시점이 되었으며, 그러한 과제는 주민 모두의 책임 하에 놓여 있다. 자신들이 살아가는 지역을 가꾸고 만들어야 할 책임은 남에게 있지 않다. 후손들에게 살맛나고 참으로 멋진 지역으로 물려주어야 할 애향심도 남에게 있지 않다. 설악 문화제는 이른바 속초 지역민의 삶을 총체적으로 집약하고 선양하며, 계승하고 창조하는 한마당 축제가 되어야 한다. 바라건대 설악 문화제는 전형적인 산악 축제를 복원하고, 동해안의 해안 문화를 접목하며, 여기에 분단 문화를 포괄한 새로운 이념의 통일 지향 문화 축제로 가꾸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이러한 향토 축제의 활성화와 발전 방안은 속초 지역 문화 운동의 핵심으로, “속초 지

역 만들기”의 본보기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설악 문화제의 특성화에 대한 전략은 신라 시대 이래 전통적으로 행해진 산신제(山神祭)의 복원과 계승을 통해서 제의적 원초성을 확보하고 이론적 근거를 마련한 가운데 지역성을 반영한 통일 이념으로 승화시켜야 할 책무가 있다. 아울러 지정학적 위치에서 속초 지역이 지닌 장점을 활용한 환동해권 시대의 문화 교류의 중심지로서 향토 축제를 중요한 행사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분단 시대 실향민의 아픔을 다독거리며, 문화적 갈등을 해소하는 장치로도 설악 문화제를 활용해야 할 것이다. 실향민 문화를 결집함으로써 통일 지향의 의지를, 축제를 통해서 부각시킬 수 있다. 아울러 속초의 기층 문화를 재발견하고 발굴 평가하며, 정착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제31회 설악제를 마치며

설악 문화제
연구단의
보고

단장 崔龍文



본 연구단은 작년도 제30회 문화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했다.

그리하여 올 상반기까지 다음 같은 주안을 만들어 설악문화제위원회에 제의하였다.

- ① 전통민속제전을 주간으로 하고 체육대회를 지양한다.
- ② 연출자와 관객이 혼연되는 한마당을 위해 종전의 공설운동장을 지양한다.
- ③ 대제를 통일염원제로 승화시킨다.
- ④ 각 동대항경쟁을 지양한다.
- ⑤ 산악, 해양, 토착문화로 크게 구분하고 여기에 실향민문화를 부각시킨다.

설악문화제위원회는 위의 안을 대부분 수용하여 이번의 31회 문화축제를 지난 10월 4일부터 3일간 동명항 향만매립지에서 성대히 치루었다.

본 연구단은 이번 문화제가 민속축제로서의 완전한 자리매김이라고 만족은 아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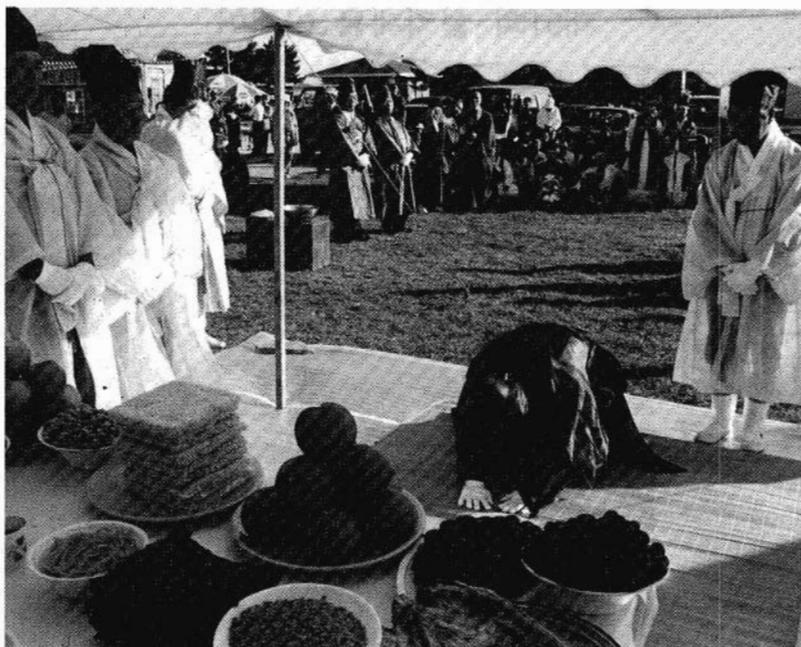
‘시작하여 반을 넘었다’는 평가로 자위해 본다.

그리하여 외람되나마 여러분들의 이해를 믿고 여기에 전반적인 나름대로의 평가를 개략하면서 보고에 대신할까 한다.

우선 예년과 달리 대폭적인 축제형태의 변화에 나름대로 적응해 나가면서 활성화된 특성축제를 꾸렸다는 점에서 향토문화발전의 청신호로 평가한다.

주민화합 및 참여도를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거리퍼레이드와 퀴즈게임 등은 시민 모두의 축제에 이바지했으며, 통일염원제전에서 ‘실향민의 밤’이나 해양문화제전에서 ‘잃어버린소리(어요)를 찾아’는 축제의 활성화와 특성을 잘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전국의 시·군에서 연례적으로 개최되는 향토축제에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전국적인 축제로서의 자리매김하는 계기



를 마련하였다고 본다.

그것은 설악문화제위원회와 속초시 당국, 그리고 시민들이 솔선수범하여 자발적인 참여와 행사주도로 민간주도의 향토축제의 터를 확고히 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물론 개선할 점도 아직 무궁한 것이다. 보다 세련된 전국축제, 나아가 국제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대규모의 행사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국제산악마라톤, 카누대회 같은 것을 이 기간에 함께 여는 방안이다.

또한 향토상품을 개발하여 특산품 및 먹거리 장터의 확대와 이를 위해 '특산품개발추진위원회' 구성이 바람직 하겠다. 지역언론기관에서 뱃소리경진대회개최나 이북사투리경연대회(시연아닌)를 맡아서 정착시키고, 통일염원제전의 경우는 이북출신의 후원업체 참여가 바람직하겠다.

이 밖에 행사의 진행 등을 위한 아가씨들

의 '도우미'활용이 필요하다는 평이다.

조직의 개선이 요망된다.

현재의 한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설악문화제위원회를 상설화하여 문화원내에 전담자를 두고 연간 홍보와 각종 기획책임을 맡을 수 있도록 함이다.

이상과 같이 기술하면서 설악문화제연구단은 우리 설악의 축제를 세계의 으뜸 축제를 위해 계속 분투할 것을 다짐하면서 전시민의 열화와 같은 동참과 성원을 바린다.



'96 속초 문화원 사업

속초 문화원 사업보고

속초문화원은 96년도 사업으로 문화학교개강, 대보름잔치, 청소년풍물패겨루기, 시민바둑대회, 별신굿, 전통국악무용, 주부백일장, 사물놀이, 교양강좌, 설악문화제연구단활성 등 실로 바쁜 한 해였다.

본원은 이밖에도 초·중고생을 위한 「속초의 어제와 오늘」의 책자만들기(제작중)와 제일의 숙원이던 속초사료관이 예산이 거의 확보되어 명년에 짓게 된일이다.

96년도에 펼친 중요 사업들을 사업별로 다음과 같이 살펴본다.

◇ 향토문화학교

정초에 제4기생 1백 60여명이 입학하였다.

▲ 서예교실(강사·지응준)

초급반 30명, 고급반 30명이 1주일 2회씩이고 1회 2시간의 강의를 받았으며 연말 서예전시회를 가졌다.

▲ 꽃꽂이 교실(강사·임재순)

수강생 20여명의 주부들이 주 1회씩 1회 2시간의 강의를 받았다. 주부들은 자격증 취득에 10명이 응시해 전원 합격의 영광을 안

았다.

▲ 장구교실(강사·전성호)

수강생 50여명이 주 2회, 1회 2시간씩 강의를 받았으며, 이들은 5월 어버이날 속초노인회잔치에 위로공연을 하였으며 제31회 설악문화제의 사물놀이 공연에 참가하여 시민들의 우뢰와 같은 박수를 받았다.

명년에는 고등반을 더 늘려 「속초주부풍물패」를 만들 계획으로 있다.

▲ 노래교실(강사·최봉하)

수강생 40여명이 주 2회 1회 2시간씩 강의와 열창이다.

이들 주부들은 주부합창단과 장구교실에 합류하여 노인회위문과 시민위안공연에 참여하는 봉사활동에 앞장 서고있다.

▲ 주부 합창단(강사·최봉하)

수강생 30여명이 주 1회 1회 2시간씩 노래부르기를 하고있다.

70세의 할머니까지 참여해 노인회 위문과 시민위안잔치등 속초문화원의 각종행사에 참여하여 시민문화정서생활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연말에 문화원 송년회의 밤에서 시민들을 위한 하는데 한 몫을 하였다.

— 속초 문화원의 가장 오래된 민속 행사
열여섯 번째 연날리기 대회
 — 사라져가는 대보름 민속놀이의 재현 —



16회를 맞이하는 전통 민속놀이인 ‘연날리기’는 속초 문화원이 연례 행사의 하나로 대보름을 맞아 펼치는 오랜 전통을 지니고 있다. 올해도 속초 문화원 부설 민속 보존회가 주관하여 지난 3월 3일(일) 동명항 부두에서 속초시와 속초시 교육청, 변호사 조동룡 사무소·프로스펙스 속초 대리점 협찬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옷놀이’와 ‘널뛰기’를 농협 시지부가 펼쳐 더욱 이채로웠다.

안타깝게도 전통 민속놀이가 감추게 되는 현실에서 문화원은 우리의 근본 뿌리를 일깨워 주고 전래되던 전통 민속놀이를 재현시켜 조상의 슬기와 얼을 청소년들에게 전수시킨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문화 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키워 나라와 겨레 사랑의 정신을 확립하여 세계 속의 모범 국가상을 세워 나아가면서 자랑스러운 속초 시민상을 정립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사실상 소멸되다시피 한 대보름 민속놀이를 재현시키기 위해 문화원은 방패연과 가오리연을 제작하여 무상으로 분양하여 대회 출전 의욕을 유발시키고 속초시의 도움으로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펴고 있다. 초중고교에 전통 민속 동아리를 구성하여 권장하는 한편으로 청소년들이 자율적으로 이 운동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문화원이 적극 지원하고 있다.

대보름 민속놀이 경연대회 시상내역

- | | |
|-------------|----------|
| 가오리연(학 생 부) | - 1등 이태준 |
| 가오리연(일 반 부) | - 1등 서용철 |
| | 2등 이만우 |
| 방 패 연 | - 1등 정길수 |
| | 2등 이주석 |
| | 3등 오순석 |
| 제기차기(들고차기) | - 1등 장두성 |
| | 2등 최성욱 |
| | 3등 원종윤 |
| (농고차기) | - 1등 김길남 |
| | 2등 탁호준 |
| | 3등 장두성 |



대표
지태수

청소년 풍물 겨루기 한마당

6월 29일, 학생체육관

영북 민속
문화 연구회 주관

국악(國樂)의 대중화추세로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고양된 바 영북 지역에서 우리 문화의 전통을 계승하려는 풍물패 갯마당에서는 이러한 범 국민적 관심의 맥을 잇고 타 지역에 비해 자생적인 문화 활동이 다소 부진한 우리 지역에 우리 가락의 정착과 보다 폭넓은 민속 문화의 보급을 위해 청소년 풍물 겨루기 한마당을 펼쳤다. 노래방 문화가 더 가까운 우리 청소년들에게 민속 문화의 예술성과 보편성을 알리는 인식을 삼고자함이다.

경연보다는 발표에 치중하면서 '94년 '국악의 해'를 거치면서 국민적인 관심으로 파고

든 우리 사물놀이가 기존의 대학 동아리만이 아닌 교육의 일선 초중고교로 확산된 점과 이 단체는 영북 지역 초중고교의 특활 시간에 사물놀이 강사로 파견되어 현재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단체로 속초시와 속초문화원 주최로 영북 민속 문화 연구회 갯마당이 지난 6월 29일 속초시 학생 체육관에서 펼친 한마당 놀이었다.

사물놀이를 비롯하여 노래 공연·판굿을 펼친 한마당은 영랑 초등학교를 비롯한 속초 여중·양양 청성패가 판굿을, 속초 초등학교를 비롯한 설악 남중·고성 남중이 사물놀이 분마당을 펼쳤다.

제31회 설악 문화제 연계



속초 시민 바둑 대회

'96년 9월 15일

제31회 '설악 문화제' 경축 제2회 속초 시민 바둑 대회가 지난 9월 15일(일) 속초 문화원 부설 '문화 사랑방'에서 설악 문화제 위원회 주최 속초시와 속초시 교육청 후원으로 속초 문화원이 주관한 바둑 대회는 일반·학생·어린이·유치원부로 나누어 개최하였다.

건전한 새바람과 서로 돕고 사랑하는 새

풍조를 불어 넣기 위해서 그 실천 방법으로 바둑을 활용하여 취미 생활의 혁신을 꾀하고자 함에 있다. 특히 유년층과 청소년층을 적극 유치하여 바둑 선풍을 조성하여 의식 구조의 건전화와 합리성과 순리성을 주입함에 치중한다.

궁극적으로 따뜻한 이웃 사랑과 정감이 넘치는 청소년으로 키워 가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 만천동 나룻배 싸움놀이 제14회 강원도 민속 예술 경연 대회

- 철원군 종합 운동장 '96. 9. 19~20 -

속초문화원은 올해의 출품작으로 「만천동 나룻배 싸움놀이」를 선보였다.

주동진씨(갯마당)의 지도와 최용문씨(속초문화원장)의 고증으로 총 70명의 출연자가 경연하였으나 고증과 연습하는데 시간이 짧은 탓으로 좋은 성적을 내지는 못했으나, 우리 전래의 어촌 생활에서 가뭄과 흉어를 용제(龍祭)를 지내어 극복하는 삶의 부활에 상당한 뜻을 두었다는 심사평이었다.

내년을 기약하면서 작품의 유래와 내용, 구성 및 놀이과장을 소개한다.

1. 작품 유래

속초의 양대 호수인 청초호와 영랑호에는, 각각 솥용과 암용이 살았다는 전설이 있다. 청초호와 영랑호 사이에는 땅 속으로 용이 다닐 수 있는 통로가 있어 솥용과 암용은 내통하면서 살았다. 청초호변에 살던 어부의 실수로 청초호 일대의 송림이 불타면서 화염과 연기로 솥용이 죽었다. 암용이 크게 노해서 속초지방에 가뭄이 들게 만들었다. 더하여 흉어가 겹치게 되고, 만천동과 청대리 사이의 소야천(청초천)을 왕래하던 나룻배도 자주 사고가 났다. 용을 달래야 이런 흉사가

없어질 것이라고 믿은 마을 사람들이 용제(龍祭)를 지내게 되었다. 용제 후에 두 마을 사람들이 나룻배 싸움을 하면서 힘을 겨루고, 풍년과 풍어를 기원하기 시작하면서, 놀이로 정착하였다.

2. 작품 내용

음력 정월보름이 지나 날씨가 풀리면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용제를 올릴 제일(祭日)을 택한다. 제주와 제관을 뽑고 마을에서 건장한 청년들을 뽑아 배에 태우고 용제를 올린다. 풍년과 풍어, 그리고 마을의 안녕을 비는 제사를 올린 다음 나룻배를 타고 상대 마을로 찾아가서 전체 주민들에게 음복을 권하며 인사를 올린다.

제사와 상대 마을을 방문, 인사가 끝나면 나룻배를 몰고 자기 마을로 돌아온다. 마을로 돌아온 나룻배에 신주(神主)와 메를 싣고 다시 호수로 나가 음식을 뿌리며 나룻배의 무사고를 기원한다.

이런 의식이 끝나면 양쪽 마을에서는 자기 마을이 우세하다고 시위를 벌인다. 마을에서 만든 음식과 술로 흥을 돋운다. 마을의 부자 집에서는 술과 음식을 내온다. 흥을 돋우면



5과장으로
펼친
만천동
나룻배
싸움놀이

서 마을끼리 힘을 겨루는 놀이가 시작된다. 양편 나룻배로 호수 한가운데로 나가 나룻배끼리 부딪쳐 밀고 나간다. 노를 젓든가 선정된 도구로 나룻배를 밀어붙여 각기 상대 마을로 밀고 나간다. 상대 힘에 밀려 나룻배가 자기 마을에 닿게 되면 지고, 밀고 간 편이 승리하게 된다. 승리한 마을에 풍년과 풍어가 약속되기 때문에 환호하고, 패한 마을은 한숨을 짓게 된다.

나룻배 싸움놀이가 끝나면 두 마을이 흥을 돋우는 놀이마당을 벌여, 서로 내년에 다시 힘을 겨루어 꼭 이길 것을 결의한다. 나룻배 싸움에 승리한 마을에서는 청년들에게 새경을 올려주고 도선료를 면제해주며 푸짐한 대우를 하게 된다.

나룻배싸움은 혼례 때 나룻배에서 만나도 행해지고, 특별히 물건을 운반할 때도 행해진다. 혼례 나룻배에서 싸워 이긴 신부는 첫아들을 낳는다는 민간신앙이 전해진다.

3. 구성 및 놀이과장

제1과장 : 용제

두 마을의 제관과 마을청년들이

숫용과 암용을 위무하는 용제를 지낸다.

제2과장 : 음복

상대 마을을 찾아가 음복을 권하며 인사를 나눈다. 이후 각기 자기 마을로 되돌아온다.

제3과장 : 뱃놀이

장정을 뽑아 배에 태우고, 이들이 나룻터를 왕래하며 노래와 춤으로 나룻배의 무사고를 비는 의식을 행한다. 나룻터 행사가 끝나면 마을로 되돌아와, 힘 겨룰 준비를 한다.

제4과장 : 뱃싸움

징이 울리면서 마을 사람들의 환성이 울린다. 장정들은 나룻배를 서로 밀어 붙이며 일진일퇴를 거듭한다.

제5과장 : 놀이마당

승패가 결정되면, 이긴 쪽은 환호하고 패한 쪽은 한숨 짓는다. 이어 흥을 돋우는 놀이마당을 벌인다.

동해안 별신굿



우리 문화의 뿌리 전통 민속

제77회 전국 체전의 일부 종목의 경기를 개최함과 제31회 설악 문화제의 성공적인 기원을 담아 이 '별신굿'을 지난 10월 4일부터 7일까지 속초 문화원 주관으로 중요 무형 문화재 제13호 '강릉 단오제' 조교 빈순애 씨가 담당하여 수복탑 놀이마당에서 굿판을 펼쳤다.

'별신굿'은 원래 보름동안 벌이지만 그 절차를 대폭 축소하여 나흘로 줄였다. '별신굿'은 원래가 '별신제'라고 하지만 처음으로 시작된 곳은 충남 은산에서 괴질이 돌아 어느 노인의 꿈에 장군을 현몽하여 원혼을 제사해 주면 질병을 퇴치해 주겠다고 하여 시작된 것이 큰 효험을 얻었다는 데에서 시작된 '별

신굿'은 충남을 비롯한 동해안 일부 지방에 전래되어 3년에 한 차례씩 올리고 있다.

우리 전통 민속의 하나인 '별신굿'을 통해서 조상 때부터 치루어 오던 무병 장수와 무사고의 염원을 성취해 온 점을 감안하여 이번 전국 체전과 31회 설악 문화 축제의 무사고나 멋진 한마당 축전이 되도록 하는 기원이 담겼다.

현대적 종교관을 탈피하여 조상들의 유일한 신앙인 무속은 우리 문화의 뿌리인 전통 민속이므로 이를 승계하는 차원에서 불 때 비록 무속이기는 하지만 그 내용은 교육적 원리가 함축되어 있다. 이 굿판은 부녀들이 주관하며 무녀 5명·악사 6명·기타 보조원 13명이 벌이는 민속이다.



사물놀이 공연

제77회 전국 체전과 제31회 설악 문화제 연계 10월 5일, 수북 놀이마당에서

제31회 설악 문화제와 연계하여 지난 10월 5일, '수북담 놀이마당'에서 펼친 '사물놀이' 공연은 풍물패 '갯마당'이 속초 시민들에게 신명나는 한판 풍물(風物) 판을 선사했다.

이번 '사물놀이' 공연은 강원도가 주최하고 속초시와 속초 문화원이 주관한 행사로 신라 때 대중 불교 시대를 여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사물놀이'는 압제와 억압에 시달린 백성들의 한을 달래 주고 양반 계급에 대한 저항 의식을 '놀이'로 승화시킨 민중의 음악으로 애용되고, 그 후에 애국 애족을 위한 음악으로 발전되어 조선 왕조 초기 북방 육진을 개척하는 데 사기를 높이는 구실을 하였고,

임진 왜란 때에는 왜구를 물리치는 힘을 북돋워주기도 하였던 '사물놀이'는 서민 계층과 떨어질 수 없는 음악 세계를 형성하여 그 여세와 맥을 이어서 깨끗한 새 시대를 열어 가는 새 강원 건설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물놀이'는 이제 전문적인 연주자보다 우리 이웃들과 각 직장 동아리 회원들이 출연하므로써 연주자와 관객의 거리감이 없이 친근함을 가지고 다정다감한 분위기에서 관객과 호흡을 같이하는 공연으로 대중 문화 시대를 열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 시와 산문

주부 백일장, 주부 50여명 겨뤘

- 시/장원 정찬순, 산문/장원 임기옥 -



강원도·속초시·설악 문화제위원회가 주최하고 속초 교육청·지방 방송사와 지방 언론사 후원으로 96년 10월 6일 속초 문화원이 주관한 주부 백일장은 설악 문화제와 연계하여 연례 행사로 펼쳐는 문학 행사의 하나이다.

특히 문학의 해를 맞이하여 사회 참여도에서 이제까지 소외시 되어 왔던 주부들을 문학 세계로 유도하여 자기의 표현은 물론 일상 생활 가운데서 놓치기 쉬운 생각들을 글로 나타냄으로써 문학 세계를 이해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주부상을 확립함에 그 목적이 있으며, 도내에서 분산 개최된 제77회 전국 체전과 제31회 설악문화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축제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면서, 온 시민들을 문학의 영역으로 이끌어 독서의 생활화와 글쓰기의 풍토를 점진적으로 확대하

여 나이감과 문학의 해를 맞아 속초 시민들의 문학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게 함에 있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주부 백일장을 개최하고 있다.

시와 산문으로 나누어 실시한 결과 50여명의 주부들이 가을빛이 나리는 문화 회관 광장에서 겨루어 시에서는 '바다'로 장원에 정찬순·차상 최영희, 장려상 '단풍' 유영순 외 4명과 김미수의 2명의 입선작을 뽑았으며, 산문에서는 '오징어' 임기옥의 장원, '바다' 최성애 차상·'사물놀이' 한명옥 차하·'바다' 김명희 장려상의 3명, 입선 '시내버스' 이해리의 2명을 뽑아 10월 12일 시상했다.



성화 민속 무용단 국악 · 전통 무용단 초청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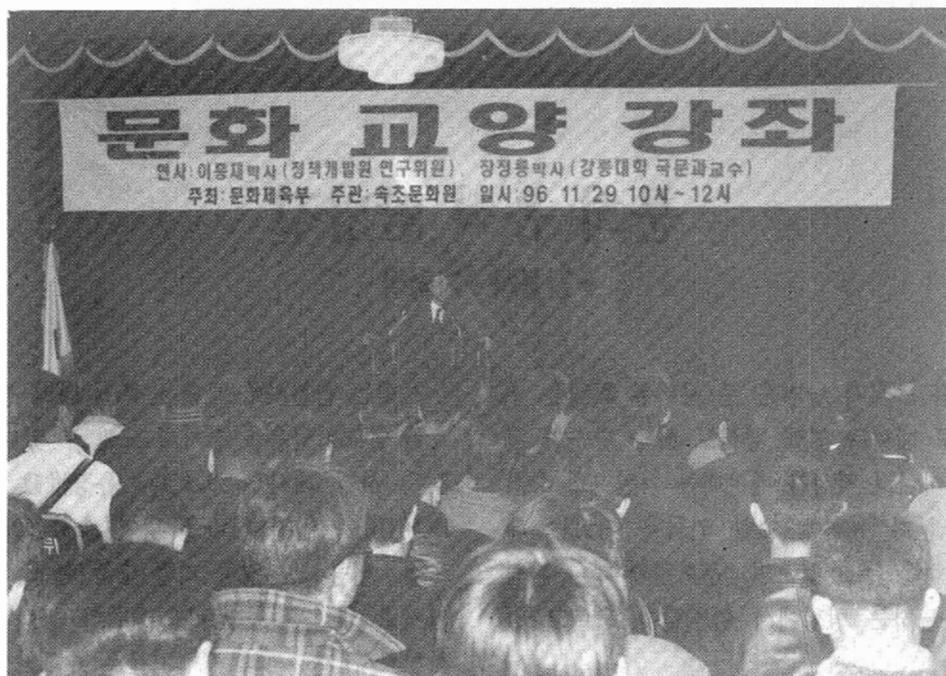
인간 문화재 박동진 예능 보유자 황용주 · 이은주



낭만과 슬기가 깃들어 있는 우리 조상들은 경축 행사·축제일 등에는 노래와 춤으로 흥을 돋워 북과 팽가리 등의 타악기로 그 열기를 고조시켰다.

이런 연유와 함께 도내에서 개최되는 제77

회 전국 체전에서 부분 종목의 경기가 속초에서도 개최됨과 아울러 제31회 설악 문화제의 열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강원도가 주최하고 속초시와 속초 문화원이 주관하여 성화 민속 예술단(단장 안화순) 30여 명과 특별출연으로 인간 문화재 박동진·예능 보유자 이은주·예능 보유자 황용주·이수자 김완수·전국 민속 경연(천안) 대상 수상자 노학순 등 국내 정상급 국안인들을 초청하여 지난 10월 6일 국악 공연은 동명항 설악제 행사장에서 펼쳤으며, 무용단 공연은 10월 8일 밤 속초시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시민들에게 각각 민속 예술의 극치를 선보이였다.



문화 교양 강좌 문화원의 역할과 기능

이흥재 · 장정룡 박사의 강연

11월 29일

문화 체육부는 전국 우수 문화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문화 강좌를 통해서 지방 문화원의 기능과 역할을 뚜렷하게 밝히면서 운영의 활성화를 모색하여 지역민들에게 고급 문화 전수의 기회를 확대함에 있다.

이 강좌를 통해서 지방 문화원의 역할 분담과 진로를 명시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문화 운동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향토 문화를 탄력있게 계발하여 세계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는 데 있다.

지난 11월 29일 오전 10시부터 문화 체육부 주최, 속초 문화원 주관으로 속초시 문화

회관 소강당에서 속초 문화원 임원 및 회원과 관내 기관장·사회 단체장 속초 고교생 등 3백여명이 정책 개발원 연구 위원 이흥재 박사의 '지방 문화원의 역할'의 연제와 강릉대학교 국어 국문학과 교수 장정룡 박사의 '문화원의 기능과 지역 문화론'의 연제 강연을 2시간 동안 경청하였다.

속초 문화원은 앞으로 계속하여 이런 기회를 마련하여 시민들이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더불어 문화원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자극하여 고급 문화 향수로 시민 정서와 내 고장의 문화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조성하는 데 앞장설 것이다.

문화 유적 탐방길

- 건봉사 · 가락국 -

문화 유적지 탐방은 본 문화원 회원을 주축으로 해마다 연례 행사로 하는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역사를 배운다는 차원으로 승화시켜 문화 유적에 대한 안목을 기르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문화원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방향에서 탐방길에 오르고 있다.

올해에는 가깝게는 고성군 거진읍에 위치한 고찰 건봉사(古刹乾鳳寺)를 찾았다. 5월 18일, 45인승 버스 3대로 문화원 회원 및 임원과 문화 학교 수강생 등 131명이 함께 하였다.

옛날, 건봉사는 영동 지방의 사찰들을 말사(末寺)로 거느리는 대찰(大刹)이었다. 설악산 백담사와 신흥사, 금강산 유점사와 장안사도 건봉사의 말사이었을 정도의 가람이었다. 6.25전쟁으로 가람이 모두 소실되었을 뿐 아니라 전쟁 후에도 군사 작전 구역으로 묶이어 출입할 수 없는 곳이기도 했다.

그로부터 40여 년이 지나서야 겨우 민간인이 출입할 수 있었으며, 근래 가람을 중창하여 그 면목을 오늘에 유치할 수 있게 되었다. 6.25전쟁 전만 하더라도 우리 나라 4대 사찰의 하나로 설악산 바로 북쪽이며, 향로봉 동쪽 기슭에 빼어난 수도터가 바로 건봉사이다.

우리는 건봉사에서 더욱 우리 나라 불교가 호국 불교이었음을 강하게 느낄 수 있다. 그것은 사명 대사(四溟大師·유정惟政 1544~1610)가 임진 왜란을 맞아 승병(僧兵)을 모집, 건봉사는 영동 지방 승군(僧軍)의 집합처로 왜적을 무찌르는 혁혁한 공이 있는 사찰로서 건봉사의 수행자들은 수행으로 머물지 않고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몸을 던져 나라를 구했으며, 사명당(四溟堂)은 승병장(僧兵將)으로서 뿐만 아니라 1604년에는 국서를 가지고 일본에 건너가 '도쿠가와 이에야스·덕천 가강德川家康'를 만나 강화를 맺고 우리 나라 포로 3,500여 명을 데리고 오는 등 맹활약을 보인 사명당의 거친 숨결이 잦아든 곳으로 역사의 교훈을 배울 수 있는 명찰(名刹)이다.

멀리 탐방길은 가락국(駕洛國)의 땅, 김해(金海)를 지난 10월 29일~31일, 2박 3일 일정으로 40여 명의 문화원 회원과 임원들로 구성된 탐방단이 수로왕릉(首露王陵)과 허황후의 능·회현리 패총 등을 살펴며 역사의 뒤편길을 더듬었다.

10월 30일, 김해 문화원과 연락이 닿아 이병태 문화 원장이 직접 버스에 올라 가락국의 역사를 들려주어 탐방길은 더욱 유익하였다.

속초문화원 문화 사랑방

다섯 개 교실



지응준
설악 서예 학원
원장이 지도하는
서예 교실



임재순
'윤선꽃꽂이회'
속초·양양 지부장이
지도하는
꽃꽂이 교실

사랑방의 열기



최봉하
강사가 지도하는
노래교실 (위) 와
어머니 합창단



전성호
(풍물패 갯마당)
가 지도하는
장구 교실

'96년도 속초예총 주요사업 소개

- 60여 사업 집행의 활성화로 생동하는 예총 -

■ 총 괄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약칭: 예총) 속초 지부에서는 1989년 4월 7일 중앙인준 이래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속초지부,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속초지부, 사단법인 한국연극협회 속초지부, 사단법인 한국연예협회 속초지부, 사단법인 한국음악협회 속초지부, 속초사진가협회등 6개협회 지부로 구성되어, 속초시는 물론 영북지역 최대의 순수 예술문화 창출 단체로 예술인 권익 옹호와 각종 예술활동 및 교류 사업으로 지역 문예발전과 민족 예술문화 창달에 기여해 오고있다.

1996년 한해 동안 속초예총 사업은 아래와 같다.

▶ 속초예총 시무식

속초예총 시무식이 1월 3일 산장집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시무식에서는 병자년 한해 동안 회원단체의 안녕 발전과 지역예술문화 진흥을 위해 속초예총의 사회 기여도에 대해 다시 한번 결의하는 자리였으며 회장단 및 지부장단들이 참석했다.

▶ 96-1차 간사회의

96-1차 간사회의가 1월 10일 오후 2시 예총사무실에서 개최되었다.

◆ 주요안건

- 제7차 정기총회 부의안건
- 임원선출 건
- 기타 안건

▶ 속초예총 제7차 정기총회

속초예총 제7차 정기총회가 1월 26일 오후 2시에 속초 문화원 문화사랑방에서 개최되었다.

지난해 결산(안) 승인 및 올해 예산(안) 승인 등의 현안은 물론 가장 중요한 안건은 지난 정총에서 속초예총 제4대 회장으로 취임한 사상철 회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 제5대 예총회장 선출 건이다.

김광희 수석 부회장이 의장으로 회의를 진행한 가운데 예총의 위기의식 타계와 지속적인 발전에는 유 경험이 있는 현 예총 고문인 김영복 고문을 제5대 예총회장에 추대합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참석 대의원 증론, 합의에 의해 추대되었다.

김영복 5대 예총 회장은 46년생으로 3대 예총회장을 3여년간 역임한 바 있으며, 재임

당시의 공적을 인정받아 94년 한국예총 회장상(예술문화 공로상: 미술) 등을 수상한 바 있으며, 속초 미술협회 2대, 4대지부장 역임과 30여년간 교육계 몸담으면서 후진 예술인 양성과 지역 문예부흥에 힘써 왔으며, 강원도 미술대전 운영위원, 강원도 미술대전 초대작가 등으로 활동 중이며, 임기는 1999년 1월까지이다.

부회장 김광희, 장규호, 감사 최낙민, 박영미는 유임 결의하였다.



▶ 자매시 감사패 받음

속초시 자매시인 미국 그레샴시 10주년 자매결연 축하 및 정중에서 예총 부회장인 장규호 연극협회 지부장이 지난해 성공적인 미국 공연에 따른 감사의 뜻으로 자매시 위원장으로부터 1월 26일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

▶ 제6회 학생예술상 수여

김영복 예총회장은 지난 2월 7일과 13일 양일에 걸쳐 지난 한해 예술문화 부문에 뛰어난 기량으로 지역을 빛낸 지역 중·고교 졸업생들을 선발해 졸업식장에서 학교별로 학생 예술상을 시상,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였다.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 속초중학교 - 임성진

- 설악중학교 - 왕상권
- 속초여자중학교 - 김이영
- 설악여자중학교 - 신유미
- 속초고등학교 - 엄상직
- 속초여자고등학교 - 김지희
- 속초상업고등학교 - 김주영

▶ 시장, 의회의장 면담

속초시장 및 시의회 의장 면담이 속초 시청에서 지난 2월 8일 예총회장을 비롯 단일 협회장등이 참가한 가운데 면담이 이루어졌다. 예총 회장 취임 인사차 이뤄진 이번 면담에서 예총의 지속적인 지원방안, 지역 문예 현안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 강원도 문예진흥기금 최종심의

속초예총의 가장 비중있는 주 수입원인 강원도 문예진흥기금 최종심의로 속초예총 고문인 김광수 화백이 2월 9일 도청 회의실에 참가하였다.

도 문예 최종심의 위원은 12명으로 속초지역 대표로 김광수 화백이 위촉되어 강원 문예진흥기금 원년부터 심의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회의결과 96년 속초예총 총 기금 수원은 1,920만원으로 확정되었다.

▶ 제2회 속초사진 협회전

최이권 속초사진가 협회장 주관으로 속초 사진예술 진흥과 회원화합 및 창작의욕 고취의 일환으로 3월 20일부터 24일(5일간) 까지 제2회 속초사진 협회전이 속초신협 3층 전시관에서 개최되었다.

출품자는 최구현, 최이권, 최홍영, 최선호, 원춘택, 이태현, 김호정, 정동기, 배종필, 김영재, 황병진, 최낙민 등이며 30여점

문인 · 미술 · 음악 · 연극 · 연예 · 사진 등
6개 협회가 지부로 구성된
속초 예총은 예술 문화 창출 단체이다.

이 출품되었다.

▶ 봄맞이 가곡의 밤

봄맞이 가곡의 밤이 도레미 예술기획(대표: 원영백) 주관으로 3월 30일 오후 3시, 7시 30분 2회에 걸쳐 속초시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최되었다.

테너 이상조, 소프라노 윤순옥, 소프라노 이진우, 바리톤 이용찬 등이 주요 출연자로 보리밭, 동심초, 청산에 살리라 등 귀에 익은 우리 가곡과 D. Capua의 오! 나의 태양, Puccini의 나의 아버지등 외국 가곡을 불러 감동적인 무대를 선보였으며, 관람객은 연 1,000여명이었다.

▶ 케스틴 아이젠바흐트 내한공연

도레미 예술기획(대표: 원영백) 주관으로 기타리스트 케이틴 이지넨바흐트 내한공연이 4월 15일 오후 7시 30분 속초시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최되었다.

케스틴은 70년 독일생으로 9세부터 기타를 시작했으며, 90년 파리 국제 콩쿨대상등 화려한 수상 실적과 유럽, 미국, 일본 등 다수의 순회 연주회를 가졌으며, 한국과 독일에서 마스터 클래스를 강의한 바도 있다.

이날 연주회에 총 600여명의 관람객이 입장하였으며, 정통 클래식 기타의 진수를 선보여, 지역 음악인 및 기타 애호가들에게 많은 갈채를 받았다.



▶ 제13회 강원연극제 참가

제13회 강원연극제가 춘천 시민회관에서 4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개최되었다. 극단 제4벽, 극단 굴렁쇠, 극단 치악무대 노플 등 도내 3개 극단이 참가, 속초에서는 극단 굴렁쇠 명의로 지역작가인 최재로 작 “그대여 또다시 바다로 가거든” 작품으로 출전하였다.

91년 전국연극제 최우수 대통령 수상의 영예의 재현을 위해 3개월간의 맹연습과 수십 차례의 작품분석 회의등 다대한 의욕과 결의로 본 연극제에 참석하였다.

극단 굴렁쇠 공연은 16일 후 4시, 7시 2회에 걸쳐 공연을 하였으며 주요 출연자는 연출에 장규호, 배우 김귀선, 김준수, 김남석, 최철혁, 박영미, 최보미, 정경숙, 최문복, 송재희등 속초의 대표적인 연극인이 대거 참가하였으며, 박영근, 남상진, 백용기, 윤종국, 김명원, 윤혜경 등 지역 최고의 전문인들이 스태프진으로 구성되었다.

본연극제에서 수상 실적으로는 강원 도지사상인 최우수상, 장규호 지부장이 연출상, 현금석 역을 맡은 최문복이 연기상, 무대 기술상으론 김명원, 남상진등 익히 예견된 바지만 13회 강원연극제 대부분의 상을 휩쓴

패거를 이루었다.

이로써 광주 광역시에서 개최되는 제14회 전국연극제 강원도 대표의 출전권한 획득으로 속초연극의 우수성을 91년도 진주시에서의 영광을 또한차례 발휘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작품은 물론 효과음악 작곡등 전 분야 일백퍼센트가 속초예술인 자력으로 이뤄졌다는 게 가장 커다란 수확이며, 의미가 부여된 대회였다.

▶ 96-2차 간사회의

96-2차 간사회의가 4월 25일 오후 6시 예총사무실에서 개최되었다.

◆ 주요안건

- 제38회 강원도 문화상 추천 건
- 제7회 속초종합 예술제 개최에 따른 토의 건
- 협회별 지부인준서 사무실 개첨권
- 기타 안건

■ 제7회 속초종합예술제

한국예총 속초지부(회장 : 김영복)에서는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9일까지 속초 시내 일원에서 제7회 속초종합 예술제를 개최하였다.

속초예총 6개협회(문인, 미술, 연극, 연예, 음악, 사진)가 연계 영북지역 문예창달 및 지역민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속초예총 인준이래 지속적으로 개최된 본 예술제에 청소년과 시민의 높은 참여도에 힘입어 지역 최고의 순수 예술축제로 성대히 개최되었다.

청소년 및 성인대상의 사업 확충은 물론 자매시 아동미술 교류전등은 국제화와 발맞춘 증점 사업중의 하나였으며 총11개 단일사

업이 다채롭게 전개되었다.

행사별 내역은 아래와 같다.



▶ 제2회 주부 백일장

속초문인 협회지부(지부장 : 윤홍렬) 주관으로 5월 16일 오후 2시 속초시 공설운동장에서 제2회 주부 백일장이 개최되었다.

제7회 학생 백일장과 연계하여 개최된 본 대회에 평소 글쓰기를 연마해 온 지역 가정 주부와 학생 백일장에 참가한 자모들이 대거 참여 시 부문과 산문 부문으로 나뉘어 자녀와 어머니가 함께 문예창작을 한 뜻깊은 한마당 축제였다. 수상자는 부문별 구분없이 총 22명으로 선정되었다.



▶ 제7회 학생 백일장

속초 문인협회 주관으로 제7회 학생 백일장이 5월 16일 오후 2시 속초시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되었다.

지역 청소년들에게 글솜씨 발표의장 마련과 문학에 대한 사랑을 유도하여 청소년 심성고취 도모 및 지역 문화 저변확대를 꾀하여 문학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마련한 본 대회에 1,500여명의 초, 중, 고교생이 참가시, 산문, 동시 부문으로 선물, 건널목, 소식, 나의하루, 여행 등의 제목으로 열띤 글짓기 솜씨를 뽐내었다.

▶ 제7회 학생미술 실기대회

속초 미술협회(지부장 : 김광희) 주관으로 제7회 학생미술 실기대회가 5월 16일 오후 2시 속초시 공설운동장에서 문협 백일장과 함께 개최되었다.

지역 청소년들에게 미술창작 발표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미술에 대한 이해와 문예 창작 활동을 통한 건전한 청소년 가치관 정립에 기여함은 물론 지역 미술인 저변 확대에 목적을 둔 본 대회에 지역 초등, 중등, 고등학생 총 2,000여명이 참가하여 크레파스화, 수채화, 한국화 등 부문별로 구분하여 그리기 실력을 심분 발휘하였으며 (주)신한화구에서 행사비 일부를 후원 성황리에 행사가 진행되었다.



▶ 극단 굴렁쇠 제11회 정기공연

극단 굴렁쇠(대표 : 김귀선) 정기 공연이

연극협회(지부장 : 장규호) 주관으로 5월 18-19일 이틀에 걸쳐서 속초시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최되었다. 작품은 제13회 강원연극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는 “그대여 또다시 바다로 가거든”이며 강원연극 최우수상 수상작을 지역민에게로 선보임으로써 최우수 상상의 기쁨을 지역민과 함께함은 물론 제14회 전국연극제 상위입상을 위한 총체적 점검 또한 공연목적이였다.

출연자와 스태프진은 배우 지은미 보완 외는 지난 강원 연극제 출전때와동일하며 총 4회 공연으로 2,100여명의 관람객이 입장하였다.

▶ 제7회 청소년 건전가요제 예심

속초 연예협회(지부장 : 김동만) 주관으로 제7회 청소년 건전가요제 예심이 5월 24일 오후 2시 속초시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지역 중, 고교생 100여팀이 접수하여 열띤 노래 솜씨를 뽐내었다.

이날 예선에서 본선 진출팀 16개팀을 선발하였으며, 총 관객은 700여명이였다.

▶ 계명선 초청 피아노 독주회

도레미 예술기획(대표 : 원영백) 주관으로 계명선 초청 피아노 독주회가 5월 25일 오후 3시, 7시 30분 2회에 걸쳐서 속초시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최되었다.

피아니스트 계명선은 독일 뮌헨 국립음대 마이스트 디플롬과 실내악 코스를 졸업했으며 국내 한국일보콩쿨, 중앙일보콩쿨, 부산 MBC콩쿨, 음악저널 신인 음악상 등 다수의 수상 실적과 유럽 및 국내 다수의 협연 및 수십 차례의 실내악 연주를 통해 “심오하고

극적인 부분과 선명적이고 선율적인 부분의 대비 능력을 갖춘 연주자"란 평을 받고 있으며 이날 공연에서는 쇼팽 연습곡 OP. 25, 프록피에프 소나타 OP. 25 등을 연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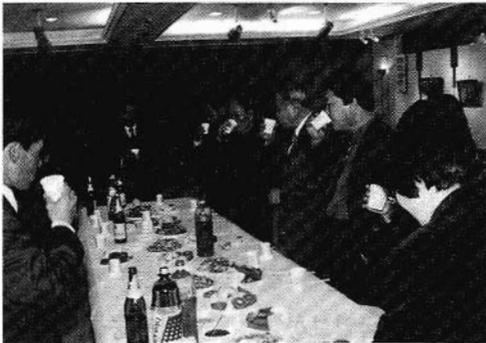
연 2회 공연에 총 1,100여명 관객이 입장하였으며 계명선씨는 현재 추계 예술대 대우교수로 활동중이다.

▶ 제3회 속초사진 협회전

속초 사진가협회(회장 : 최이권) 주관으로 제3회 속초사진가 협회전이 5월 25일-30일까지 6일간 속초시 문화회관 전시실에서 개최되었다.

본 정기 전시회는 천혜의 자연을 사진예술로 승화 우리 지역의 아름다움을 대외적으로 알림은 물론 중앙 사진가 협회의 조속한 인준을 통한 속초 사진역사에 부합하여 정상패도 진입 및 지역 사진작가 결속 및 창작의욕 고취에 목적을 두었다.

출품 작가는 최구현, 최이권, 최홍영, 최선호, 원춘택, 이래현, 김호정, 김영재, 배종필, 최낙민, 황병진, 김영걸, 최남희, 오원구 등이며 총 출품 작품수는 28점이었다.



▶ 제5회 강원도 청소년 연극제

속초 연극협회(지부장 : 장규호) 주관으로 제5회 강원도 청소년 연극제가 5월 27일부터

31일까지 속초시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최되었다.

강원 유일의 고교 청소년 연극제로서 청소년 문예 학습의 장은 물론 직·간접적인 부대 효과가 지대한 사업이다.

또한 5회째를 지속함으로써 정착발전 단계로 나날이 탄력이 붙는 행사로 거듭나고 있다.

1일 1개교 2회공연 (4시, 7시)으로 4시 공연은 학생 단체관람, 7시 공연은 시민 자유관람으로 전회무료 입장이었으며, 심사위원은 유용환(전 한국연극협회 사무국장, 극단 실험극장 운영위원장) 길명일(극단 작업 대표)씨가 맡았으며 공연 일정은 아래와 같다.

시상식은 31일 오후 8시에 관내 기관장 및 참가학생, 학부모, 시민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 27일 : 강릉 문성고등학교(방황하는 별들) 지도교사 - 정의돈
- 28일 : 태백 황지여자상업고등학교(유리의 집) - 최정하
- 29일 : 춘천 기계공고(대왕은 죽기를 거부했다) - 이천식
- 30일 : 춘천 실업고등학교(마술가제) - 조은주
- 31일 : 춘천 성수여상(나의 라임오렌지 나무) - 강한원



▶ 제4회 설악 청소년 음악콩쿨

속초 음악협회(지부장 : 심연흠) 주관으로 제4회 설악청소년 음악콩쿨이 6월 1일 오후 1시에 속초 문화원과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최되었다.

역량있는 미래 지역 음악인 배양 및 청소년 음악 발표의 장을 통한 음악인구 저변 확대와 지역 음악발전을 위해 마련된 본 행사에 성악은 자유곡, 초등 피아노 부문은 모차르트 소나타 중 빠른 한 악장, 중등 피아노는 베토벤 소나타 빠른 한 악장 등의 과제곡으로 예선을 거쳐 자유곡 1곡등으로 본선 경연을 벌였다.

총 75명이 참가하여 18명이 수상자로 결정되었으며 심사위원은 서종호(강원도 교육청 장학사) 이진우(동우대 교수) 이문응, 박수자 등이었다.



▶ 제21회 미술협회 속초지부전

속초 미술협회(지부장 : 감광희) 주관으로 제21회 미술협회 속초지부전이 6월 1일부터 6일까지 속초시 문화회관 전시실에서 개최되었다.

영북지역 최고의 역사와 미술발전을 선도한 정례 미협전 임은 물론 지역 미술인 연중 최고의 발표의 장이기도 한다.

본 전시회에 한국화, 양화, 서예, 공예, 조각 등 5개 장르 24명 36점이 출품되었다.

출품자는 김광수, 김광희, 김영복, 고주리, 김동하, 김종학, 박동국, 박영근, 박중철, 박흥기, 백중숙, 서문일초, 신동진, 옥명준, 윤재복, 이동명, 이선미, 이은숙, 정광섭, 정봉재, 최중국, 최홍영, 황혜삼, 최낙민 등이다.



▶ 중국 요령성 예술인사 내방

중국 요령성 예술인사(단장 : 무 자인 하니-요령성 문연 주석) 7인이 6월 6일 속초예총을 내방, 속초예총 회장 및 사무국장과 국제문예 교류에 대한 다각적인 현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 자매시 아동미술 교류전

속초 미술협회(지부장 : 김광희) 주관으로 자매시 아동미술 교류전 및 학생·주부 백일장 입상작, 7회 학생미술 실기대회 입상작이 6월 7일-11일까지 5일간 속초시 문화회관 전시실에서 개최되었다.

자매시 아동 미술전은 금번이 최초로 우리 지역 청소년 작품과 외국 청소년 작품을 비교할 수 있는 장을 마련 우리 학생작품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자 예총과 미협의 올해 중점 사업 중 하나로 추진되었다.

속초시 자매시인 미국 오레곤주 그레삼시 홀리델리 초등학교 학생작품 22점, 일본 요나고시 초등학교 학생 작품 100점 및 제7회 미술 실기 입상작 300점, 백일장 입상작 300여점 등이 전시되었다.

교환 전시회로 최초 계획된바 150점씩 미국, 일본에 전시회 종료 후 작품을 송부 외국에서도 우리지역 청소년 미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7일 호 2시에 속초문화원 사랑방에서 지난 5월 16일에 개최한 백일장, 미술 실기대회 입상자 시상식도 함께 하였다.



▶ 제7회 청소년 건전가요제 본심

속초 연예협회(지부장 : 김동만) 주관으로 지난 5월 24일 개최된 제7회 청소년 건전가요제 예심 선발 학생들로 건전가요제 본심을 개최하였다.

지역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대중가요 보급과 청소년 축제의 장으로 활기찬 청소년상을 마련할 목적으로 해를 거듭할 수록 지역 청소년 연중 최고의 인기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을 확인한 행사였다.

총 800여명의 입장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뜨거운 응원과 함성 속에, 대상을 포함 총 8개 팀이 수상자로 결정되었다.



■ 제7회 속초종합예술제 사업별 수상자 명단

▶ 제7회 학생백일장 수상자 명단

- ◇ 대상 : 속초시장상
- ◇ 장원 : 속초예총 회장상
- ◇ 차상 : 속초문인협회 지부장상
- ◇ 차하(이하) : 속초문인협회지부장상
- ◇ 수상사 전원 : 도서상품권

• 초등학교 저학년부 동시

- 장원 : 이국화(영랑2-1)
- 차상 : 이소라(속초3-5), 배대화(영랑2-3)
- 차하 : 이은선(온정3-1), 이보나(속초3-4)
- 장려 : 이원용(교동3-3), 진미진(회룡3-1), 김은주(회룡2-1), 김진홍(교동3), 최용환(설악2-1), 정소라(영랑2-1), 주지훈(영랑2-1), 김이슬아(상평3-1), 전유진(강현3-1), 김수지(교동2-7), 이주원(교동2-9), 고혜미(교동2-6), 전다솜(영랑2-4), 이은진(온정3-1), 김선미(강현2-1), 배지예(광정2-1), 장세정(청호3-1), 김다예(중앙2-2), 윤지현(속초3-5), 전슬기(중앙2-4)

• 초등학교 저학년부 산문

- 장원 : 신은영(영랑3-2)

차상 : 이호은(영랑3-3), 이지혜(교동3-3)
 차하 : 심강희(중앙3-1), 배철현(중앙3-4),
 장하린(속초3-7)
 장려 : 김나리(강현3-1), 최 현(중앙2-2),
 김지현(영랑2-4), 황선영(청호3-1),
 최경삼(교동2-9), 이우리9(교동3-6),
 이태규(교동2-4)

• 초등학교 고학년부 동시

장원 : 조현욱(속초5-1)
 차상 : 박수희(설악5-1), 허영선(대포6-1)
 차하 : 이보라(교동6-3), 김은정(대포6-2),
 박상진(교동4-5)
 장려 : 임영철(속초5-3), 박정남(속초5-4),
 이운기(속초5-7), 김보람(속초4),
 정태호(속초4-6), 김하나(속초5-7),
 김성현(속초5-6), 서동필(속초5-3),
 이인수(속초5-3), 김대우(속초5-7),
 주미란(속초5-2) 최수현(교동6-5),
 조운호(교동4-7), 양경은(교동5-8),
 김대훈(교동4-5), 이승현(교동6-1),
 김유리(교동5-5권), 정채린(교동6-2),
 어인영(중앙6-5), 방세웅(중앙6-3),
 홍시은(중앙5-4), 안수미(중앙5-2),
 신송이(영랑4-3), 장영인(영랑6-2),
 박지연(광정6-1), 이현재(온정6-1),
 정하늬(강현5-1), 김지연(회룡4-1),
 추지은(회룡5-1), 박용일(상평5-1),
 김은실(천진6-1)

• 초등학교 고학년부 산문

장원 : 김태우(대포6-1)
 차상 : 양지연(청호6-1), 김준연(영랑4-2)
 차하 : 황다혜(교동4-8), 심여해(중앙6-4),
 이수미(속초5-2)

장려 : 임유아(영랑5-1), 서한석(교동6-2),
 신은숙(영랑6-4), 안효철(영랑4),
 주성희(영랑4-1), 김은희(속초5-2),
 정윤주(청호6-2), 김나영(영랑6-1),
 백설아(설악5-1), 김정대(속초4-3),
 강정화(중앙6-5), 이 슬(교동4-8),
 이인애(설악5-1), 김미경(중앙6-3),
 김수미(대포6-2), 최보름(회룡6-1),
 조상진(교동5-8), 신강훈(교동5-3),
 김하라(중앙6-2), 박지홍(중앙6-2),
 송유미(중앙6-5), 박선영(천진6-1),
 서은혜(영랑5-5), 이미지(영랑5-5),
 이라현(청호6-1), 홍숙진(온정6),
 김수진(교동6-7), 김하림(교동6-2),
 이향하(교동6-2), 김아름(교동6-5),
 이 진(온정5-1)

• 중등, 고등학교 시

대상 : 최승진(속초여고1-1) -속초시장상
 차상 : 안병욱(속초중3-6)
 장려 : 장경희(속초여고3-2)

• 중등, 고등학교 산문

장원 : 채주영(설악여중2-2)
 차상 : 최훈석(속초여고1-1)
 차하 : 온명근(속초중3)

▶ 제2회 주부(자모)백일장 수상자 명단

◇ 장원 : 속초예총회장상
 ◇ 차상(이하) : 속초문인협회 지부장상
 ◇ 수상자 전원 : 도서상품권

• 시

장원 : 김미자(교동충용A 5-104호)
 차상 : 정찬순(교동주공1차 11동 104호)
 차하 : 김소연(교동설악현대A104동704호)

장려 : 문순자(교동삼환A 103동 405호),
최성덕(교동설악현대A 101동 1108호),
신경애(교동초등2-4반 김지은
자모)

• 산문

장원 : 김수현(속초초등3-5 김준태 자모)
차상 : 전미숙(교동대양빌라 나동 102호)
차하 : 신은석(영랑동양우A A-1304호)
장려 : 유영자(교동초등2-4 자모), 최순영
(교동 690-1번지), 이미숙(교동초등6-3
김수진 자모), 오은희(속초초등1-6 정재
성 자모), 전경숙(속초초등3-5 김민정 자
모), 이 숙(속초초등1-4 박단비 자모),
박인숙(교동초등2-1 김정연 자모), 곽옥
자(교동 주공2차A 217-504), 김경애(속
초초등3-2 안홍경 자모), 강명화(교동초
등2 김정엘 자모), 한남숙(교동 로얄나하
나2차 910), 정순하(속초초등3 원소희
자모), 김미경(속초초등4-6 김혜리 자모)

▶ 제7회 학생미술 실기대회 수상자 명단

◇ 대상 : 속초시장상

◇ 금상 : 속초예총 회장상

◇ 은상(이하) : 속초미술협회 지부장상

◇ 수상자 전원 : 미술용품

• 초등학교 1,2학년부

금상 : 이수영(영랑1-1), 김정래(교동1-6),
유민혜(교동2-7), 김태훈(속초1-4),
이요한(교동1-7)

은상 : 박영웅(교동2-3), 박한솔(교동1-5),
엄인수(교동1), 박민환(교동2-6), 김
진현(교동1-6), 성지윤(교동1-1), 이
길웅(교동2-6), 이영석(교동3), 장

철한(교동2-6), 노혜림(속초1-3)

동상 : 민 영(교초1-3), 김우태(중앙2-3),
노슬기(교동2-8), 김태은(교동2-3),
권태준(교동1-2), 신민한(교동1-7),
이운주(교동2-7), 문성욱(강현1-1),
유소연(교동2-9), 임혜지(영랑1-2),
정희연(교동2-6), 최민석(교동2-8),
김보라(천진2), 송성근(교동2-6),
이설지(속초2-6), 김진주(대포2-1),
김기훈(교동2-6), 신승진(영랑1-4),
박지연(교동2-6), 김지윤(교동1-1),
권용주(속초1-2), 정유철(교동1-2),
이경재(영랑1-1), 이수현(교동2-1),
장현지(영랑1-1), 유지영(교동1-8),
한정아(교동2-9), 원예정(속초1-2),
윤정선(교동1-7), 신주희(교동1-6)

입선 : 김경일(교동1-6), 김병진(교동1-8),
유지혜(교동2-3), 한민수(교동2),
김정엘(교동2-6), 최수연(영랑1-3),
김아름(영랑2-3), 박수연(교동2-3),
김영현(영랑1-3), 윤정식(교동2-3),
이재선(교동2-3), 홍승지(교동2-3),
함도균(속초1-2), 김병준(속초1-2),
강유경(교동1-5), 최지애(교동1-2),
윤다연(천진2-1), 정혜민(중앙1-2),
박혜인(천진2-1), 전수산(속초1-2),
이윤정(속초1-6), 박홍일(중앙1-1),
정선윤(교동2-9), 황재운(교동2-8),
서덕환(교동1-1), 이준영(영랑2-4),
정다영(청호1-1), 태진이(속초2-3),
주은경(영랑2-2), 오지선(속초2-1),
이용희(속초2-3), 이우근(속초2-3),
류하경(속초1-1), 김보영(속초2-3),

이지연(속초1-1), 김태영(교동1-4),
 권지은(영랑1-1), 김진완(교동1-5),
 최태정(영랑1-1), 김윤정(속초1-3),
 이나연(교동1-7), 이성기(교동1-8),
 이보름(교동2-3), 박희진(교동2-9),
 송원근(교동1-7), 김환식(설악2-1),
 장 미(영랑1-1), 김준영(영랑1-2),
 이재관(영랑1-3), 맹지은(교동2-3),
 함선균(교동1-7), 허보나(속초1-3),
 김정윤(교동1-7), 김정욱(교동1-2),
 박 란(교동1-5), 권예나(교동1-6),
 배성일(교동1-3), 장원영(중앙1-1),
 함석원(교동2-7), 남궁아름(교동2-8),
 김보배(광정2-1), 정미여(교동2-1),
 이에원(교동2-4), 황정호(중앙23),
 박사랑(강형1-1), 김재희(교동2-5),
 신용진(교동2-6), 정용훈(교동2-3),
 이경철(교동1-3), 권승엽(교동2-4),
 권보경(광정2-1), 이현주(상평1-1),
 홍명화(상평2-1), 송재림(청호2-1)

• 초등학교 3, 4학년부

급상 : 김수한(송포4-1), 함현식(영랑3-3),
 이지훈(영랑3-3)
 은상 : 윤태준(교동4-5), 김홍배(영랑3-3),
 손승근(속초4-1), 마민호(온정4-1),
 김소리(교동3-8)
 동상 : 송혜경(영랑4-1), 이진주(영랑3-2),
 양보름(영랑4-2), 김은유(영랑4),
 이상운(영랑3-3), 박소현(교동3-4),
 정단비(교동3-3), 김규호(교동3-8),
 용상은(속포4-1), 안은진(영랑3-1),
 정석주(교동4-8), 송민영(교동3-1),
 김영권(속초4-1), 전덕집(속초3-7),

김윤정(영랑4-1), 전하영(교동3-3),
 황재은(영랑3-2), 김성미(속초4-2),
 이경희(영랑4-1), 윤미현(임호4-1)
 입선 : 주용혁(영랑3-2), 김하나(속초3-4),
 이두현(영랑3-2), 송혜숙(영랑3),
 최덕형(영랑3-3), 정다희(영랑3-4),
 봉기태(영랑3-3), 김민지(영랑3-4),
 오민희(영랑3-4), 임은수(영랑3-2),
 이세라(영랑3-1), 김수림(영랑3-4),
 박대훈(영랑3-2), 박혜미(영랑3-1),
 이신영(대포4-1), 백은선(교동3-1),
 김은총(교동3-8), 고아라(교동3-8),
 추은미(교동3-1), 안혜영(영랑3-2),
 정진윤(영랑3-3), 조선화(교동3-3),
 김진영(교동3-2), 전우현(교동3-7),
 이희정(교동3-7), 임재식(교동3-8),
 하유림(속초4-2), 임지훈(속초3-1),
 이연주(교동3-2), 임희선(교동3-3),
 주미애(교동3-1), 김준태(속초3-5)
 김지혜(교동4-2), 김재희(중앙4-4),
 장효주(대포4-2), 정세원(교동4-7),
 김태정(온정3-1), 추성호(중앙4-4),
 이은주(온정4여), 박근우(중앙4-4),
 김태향(중앙4-4), 강주경(중앙3-1),
 김주영(교동4-4), 김민주(속초4-6),
 송윤희(교동3-5), 지성은(속초4-2),
 박 술(교동3-8), 강신욱(교동3-8),
 정지혜(교동3-4), 이미희(영랑4-4),
 서지성(영랑3-2), 이근영(영랑3-2),
 김상훈(영랑3-2), 김미은(영랑3-3),
 김혜림(대포4-2), 허진희(설악4-1),
 박담비(교동4-7), 정의정(영랑4-4),
 박은지(교동4-8), 김은혜(영랑4-1)

• 초등학교 5, 6학년부

- 금상 : 함인애 (교동6-1), 박소영 (송포5-7)
 은상 : 손보영 (교동6-1), 조성욱 (영랑5-1),
 김덕중 (교동5-1), 김지연 (대포6-1),
 박주희 (교동6-1)
 동상 : 안혜림 (영랑5-5), 옥비혜 (교동6-2),
 안은비 (영랑5-4), 신은경 (중앙6),
 이유리 (영랑5-1), 조보현 (속초5-2),
 차송희 (속초5-6), 이석원 (영랑5-1),
 이화선 (교동6-1), 김은주 (대포6-2),
 심나현 (교동5-2), 김보민 (교동6-1),
 김수진 (중앙6-3), 윤성희 (중앙6-5),
 김전경 (강현5-1), 조성희 (교동5-2),
 백정혜 (교동5-6), 이진호 (교동6-7),
 이가희 (영랑6-1), 오윤미 (설악5-1)
 입선 : 이지은 (영랑6-3), 옥다혜 (교동6-5),
 변진희 (속초5-4), 김수연 (중앙5),
 최정미 (교동6-5), 이 민 (영랑5-1),
 박태영 (중앙5-4), 한동수 (영랑5-1),
 권지혜 (영랑5-1), 송영윤 (은정6-1),
 유소연 (속초5-2), 함효정 (중앙6-3),
 차주연 (교동6-5), 김성은 (교동5-7),
 오진아 (영랑5-2), 장윤지 (광정4),
 최순영 (중앙6-3), 윤영은 (영랑6-3),
 신현정 (교동6-3), 지현주 (속초6-2),
 장은영 (중앙6-2), 유보혜 (대포6-2),
 이명화 (속초5-5), 김드라미 (속초5-5),
 전용문 (중앙6-5), 김새롬 (교동6-5),
 김은진 (회룡6-1), 김문영 (영랑6-4),
 배지숙 (광정5-1), 강경희 (중앙6-5),
 노주리 (교동6-6), 박화량 (강현4-1),
 정정희 (송포5-1), 최근화 (상평6-1),
 이보나 (교동6-7), 박윤희 (교동5-3),

- 고이영 (교동6-2), 서주희 (영랑5-4),
 이지현 (속초5-5), 이혜진 (영랑5-1)

• 중등부

- 대상 : 김방철 (설악중2-8) - 속초시장상
 금상 : 박민희 (설악여중3-3)
 은상 : 조혜란 (설악여중3-3), 이남순 (양양
 여중3-1), 김설희 (양양여중2-2)
 동상 : 이진이 (설악여중1-3), 박정훈 (설악
 중2-8), 이민경 (양양여중1-1), 김건
 우 (설악중2-8)
 입선 : 이명철 (속초중1-7), 박가람 (양양여
 중1-1), 이인애 (양양여중2-2), 전아
 랑 (설악여중1-4), 김기환 (속초중2-
 3), 김범구 (속초중1-4), 고대권 (속초
 중2-1)

▶ 제5회 강원도 청소년 연극제

- ◇ 대상 : 춘천성수여상 (강원도지사상
 50만원)
 ◇ 지도교사상 : 성수여상, 강한원 (강원도
 교육감상 20만원)
 ◇ 우수상 : 황지여상 (속초 시장상 30만원)
 ◇ 장려상 : 강릉문성고 (속초예총 회장상
 20만원)
 ◇ 무대미술상 : 춘천성수여상 (속초연극협
 회 지부장상 10만원)
 ◇ 연기상 : 성수여상, 변복례 (이하, 한국
 연극협회 이사장상 10만원)
 황지여상 : 황윤미, 강릉문
 성 : 전경애, 춘천실업 : 신교
 동

▶ 제4회 설악 청소년 음악콩쿨

- 대상 : 속초시장상 (10만원 상당 음반교환

권)

금상 : 속초예총회장상(8만원 상당)

은상, 동상, 장려상 : 음악협회 지부장상(6만, 5만, 3만원상당)

• 피아노 초등부

대상 : 최혜지(설악초등6년)

금상 : 이선미(교동초등5년)

은상 : 김정민(교동초등6년),
이진(온정초등5년)

동상 : 최민지(중앙초등6년), 김새롬(교동초등6년), 이어량(속초초등6년)

장려 : 유수아(교동초등6년), 이에나(교동초등5년), 김초롱(속초초등6년)

• 피아노 중등부

금상 : 송현주(속여중2년)

은상 : 정혜신(설여중2년)

동상 : 신수정(속여중2년), 김성희(양여중3년)

• 성 악

금상 : 남궁세은(간성초등5년)

은상 : 강성희(영랑초등6년)

동상 : 조유선(교동초등3년), 김아름(속초초등6년)

▶ 제7회 청소년 건전가요제

대상 : 남효승-속여고-속초시장상(장학금 20만원)

금상 : 이상민, 이수희-양고, 양여고-속초예총회장상(장학금 15만원)

은상 : 최철웅-고성고-(이하) 연예협회지부장상(장학금 10만원)

동상 : 김용제, 서영석-속고(장학금 7만원)

장려상 : 김은주-속초상고(장학금 5만원)

가창상 : 김유경-양양여고(장학금 5만원)

인기상 : 김종하의 3인-동광농고(장학금 5만원)

노력상 : 이지은-설여중(장학금 크레식키타)

▶ 제14회 전국연극제 출전

6월 13일부터 6월 28일까지 전남 광주 광역시 문화예술 회관에서 제14회 전국 연극제가 성대히 개최되었다.

전국 14개 시·도 참가 극단이 각기 치열한 지역 예선전을 치른 최우수 수상 실적의 정예의 극단들로, 강원도 대표인 속초극단 굴렁쇠·공연은 6월 22일 대공연장에서 공연을 하였다.

이 대회에 속초극단 굴렁쇠는 전국 2위, 문체부 장관상을 수상, 강원연극사의 또다른 대미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91년 속초에서 전국연극제 제패 이후 강원도 대표로 출전한(강릉, 원주, 춘천등) 어떠한 극단도 수상 실적이 전무한 까닭에 이번 연극제에 거는 기대 또한 다대했으며, 수상 이후 속초가 명실공히 강원연극을 이끄는 주역임이 재삼 입증은 물론, 속초인의 창조적인 예술 혼을 대외에 선양하는데 기여한 바 크다.

또한 금번 연극제 두드러진 특징은 전체 14개팀중 10개팀이 초연작을 가지고 출전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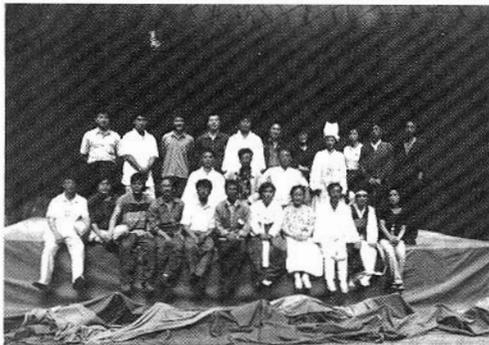
이는 향후 전국연극제 초연 작품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승부수를 띄울 수 없다는 점이다. 두번째 특징은 대공연장을 피하고 소공연장을 공연 장소로 사용, 대공연장에서의

돌발 위험부담 요소를 사전에 배제, 부수 극적 효과의 어부지리를 참가 극단들이 노렸다는 점이다.

굴렁쇠 역시 초연작이며, 충남, 인천과 더불어 과감히 대공연장을 사용 예술 완성도에 최초부터 초점이 맞춰 추진되었으며, 속초지역 특성을 살린 바다에서의 삶의 애환을 승화하려 노력하였다.

또한 치밀한 구성, 무대에서 폭풍 장면에서의 배의 흔들림과 침몰, 극적 반전, 속초예총 음협회원 김명원씨가 작곡한 주제곡 등은 실로 속초만이 할 수 있는 압권이란 평을 받기에 충분했다.

전국연극제 제14회 전체 출품작 중에서도 예술완성도와 지역성을 살린 보기드문 수작이란 평이며, 금번 대회 최우수 수상작을 능가한 작품이었다는 후문이어서 아쉬움이 남는 대회였지만, 속초예총 각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 연극제에 대거 참여, 우수한 인적 자원과 막대한 지원금의 후원을 받고 출전한 전국 수백 극단의 대표들을 제패했다는 것은 실로 강원 연극을 빛낸 자랑스러움이라 할 수 있겠다.



▶ 소프라노 김우순초청 독창회

소프라노 김우순 초청 독창회가 속초시 문

화회관 대극장에서 6월 22일 오후 7시 30분에 개최되어 지역 음악 애호가들의 지대한 관심 속에 성료되었다.

총 입장객은 600여명으로 가고파, 그리운 금강산 등 우리 가곡과 푸치니의 무제타의 왈츠 등은 물론 임수철 속초예총 간사 작곡의 “바다 변주곡” 등을 불렀다.

김우순은 상명 음악대학원 출신이며, 미국 휴스턴 공연 및 부산 관현악단 협연 등 수차례 국내 공연 기록이 있다.



▶ 96-3차 간사회의

96-3차 간사회의가 7월 12일 오후 6시 예총사무실에서 개최되었다.

◆ 주요안건

- 제7회 속초종합 예술제 평가회
- 설악문화제 위원 추천건
- 제8회 속초시 문화상 추천건
- 기타 안건

▶ 설악문화제 위원 추천

제31회 설악문화제 조직 개편에 따라 속초예총에서는 22명의 위원을 7월 16일 당 위원회 추천하였다.

7개 추진 분과에 빠짐없이 들어가서 가장 취약한 설악문화제의 소프트웨어에서의 사업 추진 책임자들으로써 뿐만 아니라 향후 설악

문화제를 예총 주도로 세력화, 설악문화제를 예술문화 축제로 승화하는데 활약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귀선, 박영근, 원영백, 김영복, 김준만, 김광희, 장규호, 김동만, 심연흙, 박종성, 이선철, 김명원, 오세권, 옥명준, 정봉재, 김인환, 김광수, 최이권, 최낙민, 오원구, 황병진, 윤홍렬. (무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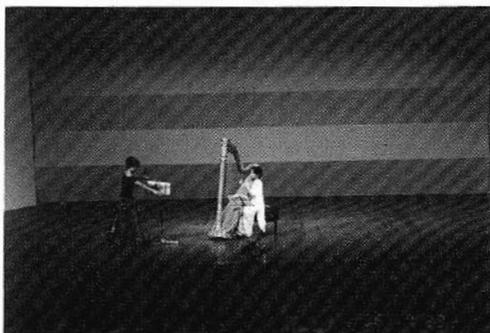
▶ **박라나 앵글 하프 독주회**

박라나 앵글 하프 독주회가 도레미 예술기획(대표: 원영백) 주관으로 7월 20일 오후 3시, 7시 30분에 연 관람객 1,100명이 입장한 가운데 속초시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최되었다.

박라나는 지난해 속초 공연을 한바 있으며, 국내정상의 하피스트로 줄리아드 음악박사 학위출신이며, 수차례의 세계적인 하프콩쿨 대상등 화려한 수상 실적과 뉴욕을 중심으로 한 수십 차례의 외국공연 및 국내 공연으로 활발하고 깊이있는 음악적 활동을 통한 연주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현재 서울대학교, 중앙대학교 등에 출강하고 있으며, 이번 공연에서는 한네의이별, 아라베스크 등을 연주하였다.

특별 출연은 속초음협 소속의 강은희씨가 출연하였다.



▶ **연극 협회 하계 공연**

속초 연극 협회에서는 7월 25일부터 8월 15일까지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설악한화, 대명콘도 공연장에서 품바 공연을 가졌다.

주요 출연자는 장규호, 김귀선, 김준수 등이다.

▶ **삼척예총 현판식 참석**

7월 30일 강원예총이 주최한 삼척 예총 현판식 및 문학 토론회에 속초예총에서 회장(김영복), 박종성 사무국장, 최이권 사진협회장, 오원구 회원 등이 참가하여 강원 예술인과 자리를 함께 하였다.

▶ **96-4차 간사회의**

96-4차 간사회의가 9월 12일 오후 6시 예총사무실에서 개최되었다.

◆ **주요안건**

- 제31회 설악문화제 문예행사 추진 건
- 단합대회 건
- 기타 안건

▶ **박동국 수채화 개인전**

박동국 수채화 개인전이 9월 19일-25일까지 고성 문화원 전시관에서 개최되었다. 지난 8월 춘천 미술관에서 성공적인 개인전에 힘입어 개최된 이번 개인전은 동양적 여백을 미학으로 승화한 작가 특유의 수채 기법으로, 작가는 강원미대 미술교육과를 졸업하고, 교원 미전 3회, 강원연극 및 강원 청소년 연극제 미술무대 미술상 수상 경력과, 현재는 교원미전 추천작가, 속초미협, 삭주전, 백령동인전 등에서 활동 중이며, 동광농공고 미술 교사로 재직 중이다.

■ 제31회 설악 문화제

제31회 설악문화제가 속초시 일원에서 10월 4일-6일까지 개최되었다.

속초예총 추천 22명 위원이 각 추진분과에서 맡은바 역할을 발휘함은 물론, 김영복 속초예총 회장이 설악문화제 예술추진 위원장을 맡아서 속초예총, 속초문화원, 민예총 사업의 총 15개 예술행사를 전개하였다.

특히 금번 문화제는 77차 전국체전 경축 문예행사와 연계하여 추진되었으며, 속초예총 사업은 아래와 같다.

▶ 가을 콘서트

도레미 예술기획 주관으로 10월 5일 오후 7시 속초시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강원대학교 백령 오페라단 초청 가을 콘서트가 개최되었다.

오페라 라보엠 하이라이트를 1부로, 2부에서는 주옥같은 우리가곡을 불러 600여 관람객의 많은 갈채의 소프라노 황화숙, 박영식, 이연화 등과 테너 이상조, 바리톤 이숙형, 피아노 김지희 등이 출연하였으며 전회 무료 공연이었다.

▶ 연극협회 정기공연

속초 연극협회(지부장 : 장규호)에서는 10월 6일-7일 오후 4시, 7시 속초시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속초 연극협회 정기공연을 가졌다.

공연명은 "서툰 사람들"로 장진 작, 장규호 연출로 가진 자와 못가진 자의 사회적 구성 체계를 코믹하게 표현한 희극으로 최문복, 김귀선, 박영미의 배역진과 박영근, 백용기, 남상진, 김만영 등이 스텝으로 참가하

였다.

설악문화제 등의 후원에 힘입어 전회 시민을 위해 무료공연이었다. 총 관람객은 1,000명이었다.



▶ 속초시민 노래자랑

속초 연예협회(지부장 : 김동만) 주관으로 10월 6일 오전 11시 동명항 설악문화제 특설 무대에서 속초시민 위안 노래자랑이 개최되어 속초시민의 즐거운 한마당 축제 속에서 진행되었다.

지난 9월 23일 속초시 문화회관에서 예심을 거친 12명이 수천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열띤 노래 솜씨를 벌려 6명의 입상자가 선정되었으며, 수상 내역은 아래와 같다.

- 대상 : 최미자(영랑동)-속초 시장상 부상 30만원
- 금상 : 김기철(동명동)-속초예총 회장상 부상 20만원
- 은상 : 송향숙(거진읍)-이하 속초연예협회 지부장상 부상 15만원
- 동상 : 황형철(청호동)-부상 10만원
- 장려상 : 김덕용-10만원

▶ 강원 미술협회 초대전

속초 미술협회(지부장 : 김광희) 주관으로 10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속초시 문화회관 전시실에서 강원 미술협회 초대전이 개최되었다.

강원 도내 중견작가 작품이 한자리에 모이기는 91년 세계 잼버리대회 이후 처음으로 춘천, 원주, 강릉, 홍천, 속초 등에서 거주하는 작가들이 출품, 한국화, 양화, 서예, 공예, 디자인, 조각 등 다양하고 수준 높은 작품을 시민에서 선보여 호평을 받았다.

▶ 문학의해 기념 거리 시·화·전

속초 문인협회(지부장 : 윤홍렬)에서는 10월 6일부터 9일까지 속초시 수복탑 광장에서 속초문인 거리 시·화·전을 개최하였다.

문학의 해를 시민과 함께하여 문학인구 저변확대를 꾀할 목적인 본거리 시·화·전은 문학과 미술의 만남을 통한 문학을 시각적으로 즐길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시민에게 높은 호평을 받았다.

지역 작가 작품 40여점이 전시되었다.



▶ 한국예총 예술인회관 기공식 참석

속초예총회장은 10월 8일 한국예총 예술인회관 기공식에 참석하였다.

서울 목동에 총 사업비 474억원을 투자,

현대식 총 25층 규모로 연면적 1만1천여평에 국제회의장, 공연장, 전시실 및 다양한 부속 시설 등을 갖춘 명실공히 21세기 한국 예술인의 요람임은 물론이다.

김영삼 대통령은 축사에서 “영원히 예술적으로 남을 수 있는 걸작으로 건축”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다.

▶ 제4회 속초사진 협회전

속초 사진협회(회장 : 최이권) 주관으로 10월 11일-15일까지 속초시 문화회관 전시실에서 제4회 속초사진 협회전을 개최하였다.

우리 지역의 아름다움을 사진예술로 승화 자연사랑과 관광홍보 극대화 추구 등을 목적을 둔 본 전시회에 주요 출품자는 아래와 같다.

최구현, 최이권, 최홍영, 최선호, 원춘택, 최낙민, 황병진, 이래현, 김호정, 최남희, 김영걸, 오원구, 문호 등이며 25점이 출품되었다.



▶ 속초예술인 가을 나들이

제31회 설악문화제 예술행사의 성공적 개최와 지역 문예창달에 헌신한 속초예총 회원의 그간의 노고를 상호 격려코자 10월 27일 속초예술인 가을 나들이가 노학동 도원가든에서 개최되었다.

속초예총 6개협회 60여회원 및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장기자랑 등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 도지사 감사패 받음

제77차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문화예술 행사 개최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11월 5일 강원 도지사로부터 속초예총이 감사패를 받았다.

▶ 제3회 설악아동 연극제

속초 연극협회(지부장: 장규호) 주관으로 제3회 설악 아동 연극제가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속초시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최되었다.

전국 유일의 초등학교 연극제로서 연극 예술창작을 직접 경험하여, 연극에 대한 이해도 도모 및 지역아동 전인교육의 일환에 목적을 둔 본 행사에, 특히 올해부터는 수상우열을 배제, 대회참가자 전원에게 기념품 수여등 초등학교 문예축제로 운영 체계를 대 전환하여 사업을 실시하였다.

1일 1개교 2회공연(4시, 7시)으로 4시공연으로 학생단체관람, 7시공연은 시민 자유관람으로 공연일정 및 시상내역을 아래와 같으며 시상식은 13일 오후 8시에 참가학생, 학부모, 시민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 11일 : 청호초등학교(우리들의 꿈동산) 지도교사 - 전하도
- 12일 : 교동초등학교(가로등) - 박은경
- 13일 : 영랑초등학교(봄소녀의 모험) - 이미숙

◆ 연기상 시상내역

- 교동초등학교 : 정한나 - 최우수연기상 (속초예총 회장상)

- 청호초등학교 : 주광호, 이자옥 - 연기상 (속초연극협회 지부장상)
- 교동초등학교 : 이보라 - 연기상(“)
- 영랑초등학교 : 남호섭, 김태복 - 연기상(“)



▶ YMCA초청 연극공연

속초 연극협회는 설악문화제때 공연한 바 있는 "서툰사람들"을 YMCA초청으로 11월 16일, 17일 고성 문화회관, KBS속초방송국 공개홀에서 각기 1일씩 공연하였다.

▶ 국제교류협력포럼 참가

장규호 연극협회 지부장은 속초예총 부회장 자격으로 홍천 대명 콘도에서 개최된 환동해권 4개 자치단체 국제교류협력포럼에 11월 21일 참석하였다.

▶ 고주리 개인전

고주리 개인전이 12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속초시 문화회관 전시실에서 개최되었다. 속초 미술협회에서 활동중인 작가는 지역 여류작가중 최초의 개인전을 개최한 작가이며, 김광수, 박영근, 박동국 이후 개인전 개최 작가로 기록된다.

총 출품작은 32점으로 강원도에서는 좀체 감상하기 힘든 섬유예술작품으로 한지의 부

드러움을 조형적으로 표현, 작가만의 독창적인 세계를 개척했다는 평을 받고있다.

이화여대 미술교육 대학원 출신으로 77년 흐름전을 호시로 수십 차례 각종 협회전에 출품하였으며, 한국 미술협회, 강원 디자인 협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며, 설악 여자중학교 미술교사로 재직중이다.

▶ 제6회 속초 음악협회 정기 연주회

속초 음악협회(지부장: 심연홍) 주관으로 제6회 속초 음악협회 정기 연주회가 12월 8일 속초시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최되었다.

지역 음악인 연중 최고의 무대이며, 지역 음악인 협회단위 유일의 발표의장인 본 연주회에 일년여간 연습해 온 회원들이 한해를 마감하는 송년 음악회 성격도 함께 지녔다.

소프라노 홍은영, 피아노 정영철, 양은영, 고영주, 송현주, 시조창 김진석, 플룻 전삼옥, 소프라노 이인순, 안혜정 등이 출연, 음악을 사랑하는 지역민들에게 많은 갈채속에 공연이 이어졌으며, 전회무료 공연이었다.

▶ 강원예총 평가회

강원예총 평가회가 12월 14일 춘천 세종호텔에서 강원 예술인이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거행되었다.

병자년 한해 동안 강원 예술의 현주소와 자평을 겸한 본 회에 속초에서는 연예협회 부지부장인 이선철씨가 공로 예술인으로 배동욱 강원 예총회장으로부터 공로패를 수여 받았다. 김영복 회장, 박중성 사무국장등이 참석하였다.

▶ 갈피 26집 발간 및 문학 축제

속초 문인협회, 설악 문우회(회장: 윤홍렬) 주관으로 갈피 26집 발간 및 문학 축제

가 12월 21일 속초문화원 문화 사랑방에서 지역문학인 및 예술문화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되었다.

갈피지는 20여 년간 꾸준히 발간해 온 우리지역 대표적인 문학지로 많은 문학인들의 창작 발표의 장이기도 하다.

▶ 제12회 속초시 서예교육연구회 회원전

속초예총이 후원하는 제12회 속초시 서예교육 연구회 회원전이 서예교육 연구회(회장: 이행섭) 주최로 12월 21일부터 25일까지 속초시 문화회관 전시실에서 개최되었다.

▶ 송년 연극공연

속초 연극협회 극단 굴렁쇠(대표: 김귀선)에서는 96년 송년 연극공연을 12월 28-29 양일간(오후 4, 7시 총4회 공연)에 걸쳐서 속초시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최되었다.

작품명은 "허탕-네팔로 가는 사람들"로 장진 작, 장규호 연출로 주요 출연자는 김귀선, 최문복, 송재희와 스텝은 박영근, 남상진, 윤종국, 백용기, 김만영등이 참가하였다.

세상은 간혀진 감옥으로 비유, 작가의 시각으로 냉철한 정신세계가 돋보이는 작품이었으며, 관람객은 총 2,000여명이었다.

▶ 96 향토미술작가 초대전

속초 미술협회(지부장: 김광희) 주관으로 96 향토미술 작가 초대전이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속초시 문화회관 전시실에서 개최되었다.

속초 미협 송년 미술협회전을 겸한 본 전시회에 미협회원 28명이 작품을 출품하였다.



한국 민족 예술인 총연합회

사단법인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속초지부 정기총회 개최

민족예술인총연합회(이하 민예총) 속초지부가 1996년 1월 24일 영랑정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창립 1주년이기도 한 이날 이상국 강원도 지회장과 엄상빈 지부장을 비롯한 각 장르위원장과 위원등 30여명이 참석하여 지난 한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설계하는 자리가 되었다. 성원보고 및 지부장님의 개회선언, 지회장님의 축사, 1995년 주요 업무 경과보고(사무국장 박희식 : 현 고성고 교사) 1995년 결산 감사 보고(김영준 : 현 속초고 교사)에 이어 1996년 주요 사업계획 검토, 1996년 예산 심의 등으로 이루어진 이날의 총회는 진지한 논의와 건설적 토의, 그리고 서로 힘을 주는 격려의 말로 시종 화기애애하고 뜨거운 열기로 가득찬 자리가 되었다. 또한 지난해의 미진한 부분을 보강하여 속초 지역의 문화, 예술 발전에 기여하기로 결의하였다.

속초 민예총 '96 종합 예술제

민예총 속초 지부 종합 예술제가 4월 26일부터 5월 6일까지 10일간 문화회관 대강당, 문화회관 전시실, 문화사랑방에서 열렸다. 민족극 위원회의 '게사니'공연, 사진 위원회의 여섯사람의 사진이야기' 개최, 문학 위원회의 '독도는 우리땅 테마시 낭송회'등으로 이루어진 이번 종합예술제는 지난 해에 비하여 한층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어 관람객들과 관계자 모두에게 좋은 평을 듣기도 하였다.

제31회 설악문화제 제77회 전국체육대회 기념 '민예총 종합 예술제'

제31회 설악문화제 및 제77회 전국체전 기념 속초 민예총 종합 예술제가 10월 2일부터 10일까지 문화회관 대강당 문화회관 전시실, 문화원 문화 사랑방에서 열렸다. 이번 예술제는 민족극위원회의 '칠수와 만수', 문학위

원회의 '시낭송회', 사진위원회의 '회원순회전' 등이 많은 관객의 호응속에 열렸다. 이번 민예총 종합예술제는 속초에서 거행된 전국 체전을 기념하고 설악문화제가 범 시민의 축제가 되게 하기위한 속초 민예총의 정기 종합예술제이다.

'게사니' 공연

속초 민예총 종합예술제의 일환으로 공연된 '게사니'가 5월 5일부터 6일까지 오후 4시 30분과 오후 7시 30분에 속초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임상호 연출로 이루어진 '게사니'공연은 우리 민족의 끈질긴 삶과, 역사가 누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해답을 주는 작품이었다. 대규모의 인원과 무대 셋트로 이루어진 이번 공연으로 민족극 위원회에 소속된 극단 「과·람·불」의 위상을 속초 시민들에게 확실히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으며 지난 '아리랑'공연을 뒤이은 대작으로 손꼽히는 작품이었다.

민예총 연극 위원회는 극단 「과·람·불」 단원으로 이루어졌으며, 「과·람·불」은 89년 '칠수와 만수'공연을 시작으로 91년에는 '한씨연대기'로 전국 연극제 대통령상을 받았으며 이번 '게사니' 공연은 12번째의 공연이다.

연극 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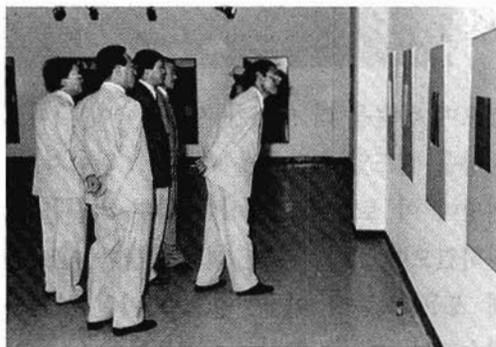
'칠수와 만수' 공연

연극 위원회의 '칠수와 만수' 공연이 10월 2일, 3일 속초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총 4회로 이루어진 이번 공연은 많은 관객의 성원에 힘입어 성황리에 끝났다. 70년대를 배경으로 자본의 논리에 빠져 '한탕'을 꿈꾸며 살아가는 '칠수'와 순박하고 깨끗해 차라리 촌스럽기까지 한 '만수'를 주인공으로 등장시켜 시대의 아픔과 노동자의 고달픈 삶을 통해 오늘을 되돌아보게 하는 작품이다. 연극위원회의 이번 공연이 극단 「과·람·불」의 창단공연이기도 하며 대표적 작품이기도 하다.

사진 위원회

'여섯사람의 사진이야기'전



사진위원회의 「여섯사람의 사진이야기」전이 4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속초문화회관 전시실에서 열렸다. 사진위원회 회원이 6명으로 늘어나 「여섯사람의 사진이야기」라고 타이틀을 정한 이번 전시회에서 5일동안 많은 사람이 관람했으며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는 26일 3시부터 문화원 문화사랑방에서 '작가와 대화' 프로그램을 설정하여 사진에 관심이 있는 관객과 공개 토론의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 대화의 시간에서 각기 다른 작품의 세계를 가진 여섯사람의 사진 작가들이 자신의 작품세계를 설명하고 의견을 조율하



였으며 한걸음 더 나아가 사진예술이 나아갈 방향을 심도있는 토론을 하였다. 관람자 20여명이 이 토론에 참여하여 열띤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작가와의 대화'시간이 끝났을 때 모든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이런 자리가 계속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었다.

제77회 전국체육대회 제31회 설악문화제 기념 '회원순회전' 개최

제77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31회 설악문화제 기념으로 속초 민예총 사진위원회에서 속초, 강원, 동해의 민사협(민족사진작가협회) 회원들의 순회전을 열었다. 10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한달간 계속된 이번 전시회는 속초를 시작으로 강릉과 동해에서 순회 전시 개최하였다. 이번 순회 전시회 행사는 지역 작가들의 작품뿐만 아니라 인근 영동지역의

중견 작가들의 작품까지 볼 수 있는 기회로 관객들의 궁금함과 시야를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이외에 '한국사진협회 학술지'에 사진위원회 위원인 박영철(동우전문대학 사진학과 교수), 김홍수(동우전문대학 사진학과 교수) 회원이 참가하여 속초 민예총 사진위원회의 위상을 높였다. 또한 김홍수 회원이 「QA PHOTOGRAPHY」 사진 번역사를 발간하기도 하였다.

독도는 우리땅

테마시 낭송회

민예총 문학 위원회에서 종합예술제의 일환으로 '독도는 우리땅 테마시 낭송회'가 속초문화원 문화사랑방에서 4월 23일 열렸다. 일본의 독도망언이 전국을 들끓게한 시점에 맞춰 개최한 이번 시 낭송회는 독도를 주제

시인은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에
단단이 발을 딛고 나서야 이상을 노래하고
장미빛 환상을 독자에게 심어주어야 한다.
현실을 도외시한 이상은 현실도피로 나타나며
나약한 인간을 만들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로 엄연한 사실을 억지로 우기는 현실을 개탄하고 이에 대처하는 현 정부의 우유부단한 행위를 고쳐 당당히 대처할 것을 촉구하며, 현실을 언어로 승화시켜 예술적 가치를 갖게 한 발표하였다. 회원 전체가 참가하고 많은 독자들이 관객으로 참여하여 문화사랑방이 후끈 달아오르게 한 이번 시낭송회는 시인이 현실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항하는가에 대한 하나의 신호탄이기도 하다. 시인은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에 단단이 발을 딛고 나서야 이상을 노래하고 장미빛 환상을 독자에게 심어주어야 한다. 현실을 도외시한 이상은 현실도피로 나타나며 나약한 인간을 만들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면에서 이번 낭송회는 시의 적절한 발표회였으며 관객 또한 열성적으로 호응하는 시낭송회였다.

제1회 '통일문학제'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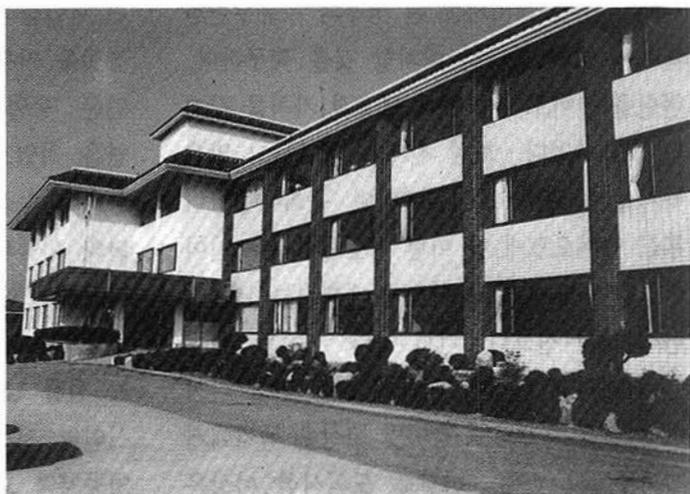
속초 민예총 문학위원회가 주관하는 제1회 '통일문학제'가 광복절인 8월 15일 청호동 백사장에서 열렸다. 해방 51주년이 되는 올해, 분단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청호동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고은 시인, 염무웅 민족문학작가회의 이사장을 비롯하여 민영, 김사익, 고흥열, 이정자 등 민족문학작가회의

회원들이 다수 참가하였으며 속초에 거주하는 시인들이 통일을 염원하는 시를 낭송하여 통일을 기원하였다. 이날 행사에서 고은 시인은 '통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문학강연을 하였으며, 염무웅 교수도 문학강연을 통하여 속초가 고향이라는 사실을 밝히며 분단의 아픔과 통일을 염원하는 강연을 하였다. 민예총 문학위원회 회원인 김영준(속초고등학교 교사) 시인은 '새섬에서 새가 없다'는 시를 낭송하였으며 지역문인으로 박용열 시인의 시낭송이 있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영동지역 교사 풍물패인 '울림채'의 길놀이가 아남 프라자에서부터 시내를 통과하여 깃배를 타고 행사장에 들어가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으며, 무형문화재인 강릉단오제 담당인 빈순애씨의 '통일기원굿'은 많은 실향민과 속초 시민들에게 고향땅을 밟아보는 꿈을 이룰 수 있기를 기원하였다. 이날 행사는 속초 시장님을 비롯한 시청 관계자 다수 참가하여 행사를 한층 빛냈으며 시장님의 초청으로 참가자와 함께하는 만찬회가 열리기도 했다.

— 정보화 사회를 여는 속초 도서관



李 永 燦
(속초 도서관 관장)



속초도서관 전경

무릇 공공 도서관은 한 나라의 문화를 가름하는 척도이다. 공공 도서관은 그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열린 문화'의 장(場) 및 평생 교육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므로써 지역 발전의 산실로써 자리하기 때문이다.

속초 도서관(관장 李永燦)도 이러한 목적을 지니고 1987년 12월 4일 건물 면적 3,851㎡(1,165평 분관 1,514㎡ < 458평 > 포함), 열람 좌석 1,064석(분관 462석)의 규모로 탄생되었다.

속초 도서관은 관장을 정점으로 하여 예산·결산·물품·문서·재산·시설 등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서무과와 도서관 자료의 수집·선정·분류·정리 전산 업무를 맡고 있는 사서과, 그리고 이용자에게 직접적인 봉사를 담당하는 곳으

로써 열람·대출·장서 관리·독서 생활화·문화 행사 등을 담당하는 열람과와, 이동 도서관·순회 문고·학교 문고를 운영하고 있는 교동 분관으로 조직되어 속초 지역 뿐 아니라 인근 고성·양양 지역까지 봉사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시설을 보면,

종합 자료실 : 주제별로 배열된 자료를 이용자가 직접 찾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완전 개자제로 운영되고 있는 곳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문화 도서, 생활에 필요한 교양 서적, 학습을 위한 전공 도서가 비치되어 있다. 또한 향토 자료, 족보, 청소년 권장 도서, 신착 자료, 참고 서적, 간행물들은 별도의 코너로 설치되어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도서관 자료는 실비로 복사할 수 있으며, 도서 대출 회원에 가입하면, 1주일 간 2권의 책을 집으로 가져가 이용할 수 있는 관외 대출 봉사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교동 분관에는 문학서적과 교양 도서를 소장하고 있으며, 본관과 같이 자유로운 열람 및 관외 대출·복사 서비스로 제공받을 수 있다.

모자 열람실 : 본·분관에 설치되어 있는 모자 열람실은 유아부터 13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도서·간행물을 비치하여 봉사하고 있다. 어린이 도서 대출 회원으로 가입하면, 1주일에 2권씩 도서관 책을 집으로 빌려 이용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하여 1주일 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체계적인 독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어린이·주부 독서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밖에 어린이들의 독서 생활을 돕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전자 정보 자료실 : 정보화시대에 다양한 정보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다 수준높은 정보를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시설로써, 조선왕조 500년사를 비롯 다양한 주제의 CD-ROM TITLE 및 비디오·카세트 TAPY이 비치되어 1997년 1월부터 봉사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자 정보실은 도서관 내의 전체 네트워크 형성으로 도서관 자료의 검색도 가능하다. 향후에는 외부망 연결로 PC통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동시에 CD-NET, VOD시스템도 갖추어 디지털 도서관으로써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이다.

문화 교실(회의실) : 지역 주민의 문화 교육과 독서회 및 직원들의 협의 장소로 사용되는 장소로서 이곳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문화 활동이 연중 실시되고 있다. 도서관 사업으로는



도서관 자료의 확충 및 이용의 극대화

도서관 자료의 확충은 지역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일인 동시에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하다. 개관 당시 15,000여 권에 불과하던 자료가 현재는 83,335권으로 증가되어 열람 봉사에 응하고 있

으며, 각 자료실 및 이동 도서관, 순회 문고, 해변 문고, 작은 도서관 등을 통해 이용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있다.



독서 생활화운동 전개

독서를 통하여 올바른 인격을 형성하고 창의력을 키워 나라를 이끌 인재를 육성하고자 전개되는 독서 생활화운동으로 권장 도서 목록 배포, 문학 강연회 개최, 우수 독서가 및 가족 표창, 독후 감상문 및 글짓기 모집, 강원도내 작가 도서 전시회, 어린이·주부 독서회, 학교 독서회 지원, 도서관 현장 학습, 독서 교실 운영, 도서관 문집(청독) 발간 등의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열린 문화 공간의 제공 및 평생 교육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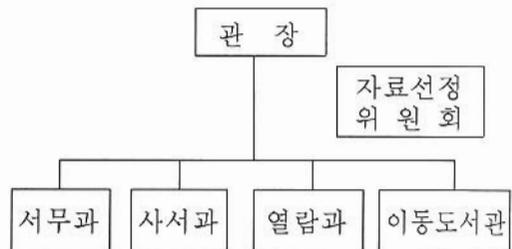
지역 주민들에게 여가 선용과 질높은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주민 정서를 함양시키고, 지역 문화 발전의 산실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 학교(어학·교양·취미·예술 강좌 등) 운영과 각종 전시회 개최 및 장소 제공, 교양 강좌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기타 사업

이 밖에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공공 도서관을 만들고자 멀티미디어 시스템 구축 등 도서관 도서관 전산화작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이 도서관을 편안하게 찾아올 수 있도록 각종 시설 정비 및 도서관 홍보 활동도 활발히 실시하고 있다.

우리들 즉 속초 도서관에서 바라는 속초 도서관은 누구나 편안하게 찾을 수 있고,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도서관을 통하여 정신 건강을 기를 수 있게 하는 장소이다. 어린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 주는 아빠, 알 굵은 돋보기 너머로 책장을 넘기는 할머니, 컴퓨터를 통해 정보를 찾는 학생, 진지한 모습으로 강의를 듣는 어머니, 연극 연습을 하고 있는 어린이, 전시회를 관람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모습을 늘상 볼 수 있는 장소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바로 속초 도서관인들이 추구하는 공공 도서관이다. 이러한 도서관이 될 때, 우리 속초는 빼어난 자연과 함께 세계 제일의 문화 도시로서 사랑받는 지역이 될 것이라 확신하며, 부단한 노력을 계속해 나아갈 것이다.

- 본관 : 210-040 강원도 속초시 금호동 488-2 ☎ (0392) 635-9022
- 분관 : 210-060 강원도 속초시 교동 636-69 ☎ (0392) 635-9027



여성의 교양 함양과 능력 개발을 돕는 속초시 여성 회관



申 成 玉
(속초시 여성회관 관장)



속초시 여성 회관 전경

여성의 교양 함양과 능력 개발, 사회 적응력을 길러주기 위하여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속초시 여성 회관(束草市女性會館 관장 申成玉)은 1993년 5월에 개관하여 지금까지 약 7,00여 명에 달하는 여성들에게 교육을 실시하였다.

속초시 여성 회관에서 실시하는 중요한 업무는 양재·자동차 정비 등 여성 기술 교육과 서예·꽃꽂이 등 취미 교육은 물론이며, 한글 학교도 운영하며, 사회 저명 인사, 유명 교수를 초청하여 교양 강좌도 실시하며, 법률을 알지 못하여 남성보다 불이익을 당한다거나 또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군 법무사를 모시고 여성 법률 상담도 펼치고 있고, 고교생 장학금 지원과 수강생 자녀수탁 보호·수강생 도서 대여와 취업을 원하는 여성을 상담하여 취업을 알선하

며, 수능 시험이 끝난 관내 고등 학교 3학년
생들을 대상으로 사회 적응 능력 개발 차원
의 졸업 전 예절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속초시 여성 회관은 앞으로도 여성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속초 지역 여성의 복지 향상을 위하
여 적극적인 활동을 펼 계획이다.



I. 일반현황

1. 위치 : 강원도 속초시 교동 708-1번지

2. 연혁

- 1992. 6. 1 여성회관 착공
- 1993. 2. 27 여성회관 직제승인
(내무부)
- 1993. 3. 20 속초시 여성회관 설치및
운영조례 공포
(속초시 조례 제1438호)
- 1993. 3. 20 여성회관 개관 및 인력배
치

3. 주요업무

① 교육사업

- 일반교육 : 3기 2,130명(기당 4개월)
- 취미교육(16과목) : 1,250명
서예, 꽃꽂이, 일어, 영어, 수지침,
볼링, 한국무용, 메이크업, 사진, 요

가, 동양화, 한글, 할머니 서예, 노래
교실

- 취미교육(12과목) : 880명

홈패션, 양재, 자동차 정비, 미용, 피
부관리, 생활요리, 제과제빵, 요리자
격증, 컴퓨터, 한지공예, 출장요리,
꽃꽂이 자격증

- 한글학교운영 : 3회 60명
- 교양강좌 : 연 2회(상·하반기)

② 인보·복지사업

- 취업알선 : 연중(창구운영, 수시접수
상담)
- 생활법률 무료상담(월1회) : 군 법무
관과 개별상담
- 장학금 지원 : 알뜰시장 운영 수익금
활용

4. 직원현황

계	별정 5급	6 급		7급	8급	기능 직	일용 직
		행정	별정				
9명	1	1	1	-	2	2	2

II. 시설현황

1. 건물

- 규모 : 연 320평(지하1층, 지상3층)
- 지하1층 : 보일러실, 요리실
- 지상1층 : 관장실, 사무실, 탁아실,
강당
- 지상2층 : 강의실 6실

2. 주요기자재

- 프로젝트 1
- TV 1
- VTR 1
- 피아노 1
- 오디오 세트 1
- 미싱 21개
- 컴퓨터 2대
- FAX 1대

전통 민속의 활성화

속초 농악대 창단



속초 농악대는 95년말에 속초문화원이 만든 것이다.

우리 문화원은 농악대 창단을 계획하고도 5년여의 시간을 끌었다.

속초는 항구도시인 때문에 몇 안 되는 농촌의 쇠락은 고장의 농악 자체를 찾기란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다.

마침 3년 전부터 설악문화제에서 각 동대항 농악대경연을 시작하면서 그 가닥이 잡히기 시작하였다.

이 고장에는 도리원(梨里院, 현 노학동) 농악이 으뜸이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노학동을 찾아서 맥을 찾기 시작한 것이 오늘의 속초농악대 창단의 기원이 된 것이다.

속초 농악대에는 노학동 마을 주민 10명(상쇠)을 주축으로 풍물패 갯마당 6명과 속초상고의 특활반 학생 20명으로 구성하였다.

속초농악대는 우선 제77회 전국체전과 제

31회 설악문화제의 출전을 위해 8월부터 본격적인 연습에 들어갔다. 마을회관과 동사무소 마당을 빌려 가락 맞추기와 연습은 정말 힘들었다.

그러나 농촌마을 주민들의 내 고장의 노래 가락 찾기란 공지와 갯마당, 그리고 특활반 학생들의 배움의 정열은 밤을 새는 피나는 연습에 동참한 것이다.

이들은 체전과 문화제에 제등행렬과 농악 시연에 참가하여 참된 고장의 농악을 선보여 속초시민들의 토착의식을 심어 주는데에 큰 몫을 하였다.

속초문화원은 농한기를 이용, 수시로 연습을 하면서, 또한 다른 사장된 가락찾기와 만들기에 온 힘을 쏟아 불 작정이다.

더하여 갯마당과 특활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후진을 양성, 속초농악각을 영원히 이어가는데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

풍물패 갯마당

속초문화원 지원 풍물패 갯마당은 올해도 민속놀이문화의 창작과 보급을 위해 혼신의 한해를 보냈다.

창단 5년째를 맞은 '갯마당'은 수복지구. 실항민의 집성지에 지역토착문화 발굴, 복원·계승하는데 크게 이바지 하고있어 시민들의 사랑이 크다.

갯마당은 보다 체계적인 활성화를 위해 영북 민속문화연구회(회장·지태수)를 만들어 '영북민속문화연구회갯마당'이라고 이름하고 지역민속발전에 온 힘을 쏟고있다.

최택수, 주동진, 박치영, 최종현, 지선이, 전성호, 김동연 등 20대들이 주축이 되어 연습장(속초시 제공)에서 일년 내내 속식을 하면서 연구와 놀이를 다하고 있다. 갯마당은 지난 10월 25일 전국문화원연합회 강원도지회(지회장·김정명, 춘천문화원장) 주최 제1회 도내문화원사물놀이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영광을 안았다.

이밖에 금년에 한 사업들을 간추려 본다. 정초에 속초 눈꽃 축제 환영 공연을 시작으로 대보름민속놀이공연(속초문화원주최).

속초지신밝기, 어버이날 노인회잔치공연(장구교실합동), 제1회 청소년풍물겨루기한마당 개최, 설악국제마라톤대회전야제행사, 청소년풍물패자매기전수(속초상고), 제31회 설악문화제 제등행렬놀이공연, 속초농악대 시연, 속초·양양·고성·인제 등 4개지지역순회공연을 가졌다.

갯마당은 이 밖에도 현재 관내의 초·중·고 5개학교의 특활부 사물놀이와 양양청세패, 속초지역청소년풍물패와 속초문화원의 장구교실을 지도하고 있다.

이들은 명년에는 ① 경연보다 발표에 치중 ② 전통국악의 생활화 ③ 초·중·고교의 풍물(사물놀이) 동아리 지원 확대를 추진방향으로 설정, 계획을 짜느라 여념이 없다.

우리 문화원은 원의 일원으로 힘닿는 한 지원을 다하여 속초의 민속놀이문화발전에 주역이 되게 함을 각오하는 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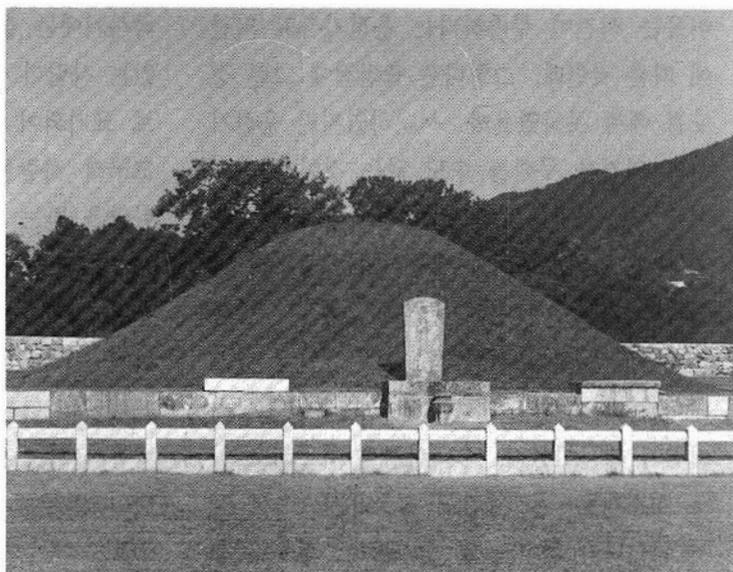
李 仁 鐵
(속초 문화원 부원장)

문화유적지 탐방

- 가락국의 유적을 찾아서



尹 弘 烈



필자는 속초문화원이 일년에 두 차례씩 시행하는 문화유적탐방 행사에 참여했었다. 96년도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봄 가을 두 차례에 걸쳐 시행되었는데, 필자는 그 두 차례의 문화유적 탐방 여행에 모두 참여했었다.

지난 6월에 참여했던 행사에서는 건봉사(乾鳳寺)에서 석가여래의 진신사리를 친견했던 감동이 컸었는데, 지난 10월말에 참여했던 유적탐방에서도 여러가지로 느낀 바가 있어서 여기에 그 감흥을 피력하고자 한다.

그런데, 어떤 현상에 대한 견해이든 간에 그것을 본 사람마다의 해석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 개인차라는 것, 그리고 장님 코끼리 만져보기로도 비유될 수 있는 것처럼, 이번 탐방 여행에서 같은 지역의 동일한 유적을 보았다 할지라도 각 개인이 지닌 인식의 각도에 따라서는 필자와 견해를 달리할 수도 있을 것임을 짐작한다. 이렇게 적은 이유는 이 글의 내용이 지닌 성격상, 사항(事項) 자체는 객관적인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사실에 얽힌 견해 또는 평석은 어디까지나 필자 개인의 견해임을 밝히는 것이 도리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면 다음에 예정했던 일정과 노순(路順)을 우선 소개하기로 하겠다.

이번 탐방여행은 2박3일간이었다. 10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였는데, 첫째날인 29일은 미시령을 경유하여→인제→홍천→여주→독립기념관→수덕사→직지사…… 여기서 숙박.

둘째날인 30일은 직지사→김수로왕릉→현대자동차공장→경주…… 여기서 숙박.

셋째날인 31일은 경주→도산서원→부석사→속초로 향하여 귀로…… 이렇게 예정되었던 것이. 일정은 변동이 없었는데, 노순에는 변동이 생겼다.

첫째날, 독립기념관에 들렀다가 다음 탐방지인 예산의 수덕사행이 취소됐다. 표면상의

이유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운전기사의 의견에 따른 것인데, 그렇다면 출발전에 그런 정도를 예측 못하였을까. 서운하였지만 운전기사의 의견을 무찌를 수도 없는 것이 차 타고 여행하는 사람들의 약점인 동시에 너그러움일 수도 있다. 우리 동행들끼리는 불평도 있었지만 기사에게 항의는 하지 않았다. 동행 40여명의 안전과 사활이? 그의 손안에 있으니 설불리 기사의 심정을 건드리기가 조심스러웠기 때문이었다. 수덕사행은 취소되고 일로 직지사로…… 중간에 금강휴게소에서 잠시 쉬었다가 직지사 앞 주차장인, 경북 금릉군 대항면 운수리에 도착한 것이 16시 조금 넘어서였다. 남자들은 운수여관에 여성들은 대구장여관에 여장을 풀고 대구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였다. 그 이튿날 새벽 06시가 조금 못되어 기상을 했고, 나는 동숙한 徐一甲 씨와 함께 직지사로 향하였다. 워낙이 이른 새벽의 행동이기 때문에 단체로가 아니고 끼리끼리 삼삼오오 그야말로 자유방임형태로 직지사엘 간 것이다. 그럼 여기서 우선 사찰의 연혁을 밝히는 것이 순서적일 것 같다. 위치는 앞에 적은 주차장 주소와 같다.

한국불교 25교구 본사(本寺) 중의 하나다.

신라 19대 눌지왕(訥祗王) 2년 (418년-AD)에 고구려의 승려 흑호자(黑胡子 또는 묵호자(墨胡子))가 세웠다고도 하고, 그 임금 52년(468년)에 아도화상(阿道和尚, 我道, 阿頭)이 지었다고도 한다. 50년간의 차이가 있다.

여기서 한가지 밝혀야 할 문제가 있다. 묵호자와 아도화상이 각기 다른 사람이 아니고 동일인물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삼

국사기에는 눌지왕 때의 묵호자로 표기되어 있는 사람이 삼국유사에는 미추왕 때의 아도로 표기되어 있으니 말이다. 두 사람이 다 고구려 사람들 인데 신라에 포교하러 와서 탄압을 받는 과정 그리고 국왕의 용서를 받는 동기 등이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같다. 그렇지만 1천 4~5백년 전의 인물에 관한 인적사항을 여기서 그 어느 한 쪽을 옳다 그르다를 단언하기는 어렵다. 다만 삼국유사에는 아도라는 이름으로 13대 미추왕대의 인물로 기록되어 있고, 삼국사기에는 묵호자라는 이름으로 19대 눌지왕 대의 인물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만을 밝혀두는 정도로 그쳐야 할 것 같다. 그렇지만 이 글을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느 한쪽에 초점을 맞추어야겠기에 내 나름의 판단으로 아도(阿道) 화상을 내세우기로 한다. 거듭 밝히겠는데 필자는 어느쪽의 기록을 지지한다든가 하는 그런 입장은 아닌체로, 오로지 이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의 편의상 아도화상을 내세운다는 것뿐이다. 그러노라니 아도화상의 가족관계와 성장과정을 조금 밝히는 것이 온당할 것 같다.

어머니는 고도령(高道寧)이라고 전하는데, 중국 위(魏)나라의 아굴마(阿掘摩)라는 사람이 고구려에 사신으로 왔을 때 고도령과 관계를 맺어 낳은 아들이 아도라고 한다. 아도는 5세때 출가하였고, 16세 때 위나라에 가서 아버지를 만났다. 이때 아버지의 주선으로 현창화상(玄彰和尚)에게서 공부를 하였고 16세 때에 귀국하였다. 신라 13대 미추왕(味鄒王) 2년(263년)에 어머니의 지시에 따라 포교하러 신라에 갔으나 신라인들이 불

교를 싫어하고 배척하기 때문에 일단은 일선현(一善縣 지금의 善山)에서, 모례 또는 모록이라는 사람의 집에 숨어 살았었는데, 공주의 증병을 고쳐 준 공로로 임금의 신임을 받게 되었고 또한 사찰건립의 허락을 받았다. 그래서 신라 최초의 사찰인 흥륜사(興輪寺)가 경주에(지금의 慶州市 沙正里) 세워지게 된 것이고 이어 삼천기(三川岐)라는 곳에 영흥사(永興寺)를 세웠다. 그리고 아도 화상은 그 영흥사에 머무르고 있었다. 그런데 미추왕은 아도가 주선하여 몇 군데에 절을 짓는 것을 묵인하여 준 정도이지, 신라 전국에 불교를 포교하도록 허락해준 것은 아니었다. 그런 상태에서 미추왕이 사망했다. 신라 국민들은 아도가 세상을 어지럽게하고 백성을 속임수로 어리석게(惑世誣民)하는 요망한 짓을 하는 인물이라 하여 미워하고 위해를 가하려고 하였다. 아도는 지난날 한때 숨어있던 곳, 선산의 모례(또는 모루)에게 의지하여 토굴을 파고 그 곳에 숨어 다시는 세상에 나타나지 않았다 한다.

그렇다면, 아도가 처음으로 신라에 갔다는 연대와 직지사를 창건하였다는 연대하고는 거의 2백년간의 틈이 벌어진다. 이 문제는 앞에서 밝힌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의 기록 차이를 참조하시기 바란다.

하여간 그 뒤에, 신라에서 불교가 정식으로 포교하게 된 것은, 그 유명한 이차돈(異次頓)의 순교로부터다. 속성명은 박염촉(朴厭觸)인 그는, 아도가 뿌린 불교의 씨앗이 제법 충실하게 뻗어 나가려하자 이를 강력히 반대하는 문무백관들의 앞에 나서서 순교를 자청하였고, 마침내 그의 자청이 용납되어

처형되자 그 자신이 예언한 대로 잘라진 목덜미에서 젖빛 피가 뻗혀 올랐다. 이런 이적으로 국왕과 조아의 국민들이 감동되어 불교 신앙행위가 정식으로 허락되었다. 신라 23대 왕인 법흥왕 14년 서기로는 527년이고 이차돈의 나이 스물넷이었다.

그러면 다시 직지사 이야기로 되돌아가겠다. 고려태조 19년(936년-AD)에 능여대사(能如大師)가 절을 개축할 때 자를 쓰지 않고 직접 손으로 측량하여 지었기 때문에 직지사(直指寺)라고 일컫게 되었다고 한다. 과연 그럴까.

지금은 우리들이 중을 대우하여 부를 때 스님이라고 한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 보이는 남자 승려를 대우하여 부를 때 '대사'라고 일컫는다. 그렇지만 불교가 국교이던 고려왕조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승려의 품계로서 국사(國師)가 가장 높고, 그 아래 지위가, 임금의 스승인 왕사(王師)인데 이 두 지위는 국왕의 임명직이다. 자신이 노력하여 승진하는 지위는 승과(僧科)를 거쳐야 했다. 이 시험에 합격하면 받는 것이 초급 법계(初級法階)인 선(大選)이고 그후 수행 정도에 따라 대덕(大德), 대사(大師), 중대사(重大師), 삼중대사(三重大師)까지 차례로 승진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법계제도는 고려 4대왕인 광종(光宗)때부터이다. 여능대사가 직지사를 개축한 것이 왕건태조 19년이라고 하니 아직 고려에 승과가 생기기 전이다. 그리고 여기서 필자가 인용하는 문헌은 조선시대에 나온 사찰자료다. 그렇기 때문에 여능대사라는 대사 호칭이 대선 대덕이라는 법계를 거친 대사는 아닌 것

이 분명하다. 그러나 직지사 정도의 대찰을 개축하는 데에 깊이 관여하였던 승려라면 상당한 수행과 덕행을 쌓았던 사람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런 논리로 볼 때, 그런 인물이 큰 사찰을 개축하는 데 자를 안 쓰고 손으로 재어 측량을 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능여대사는 기인이었던가 아니면 지나치게 경솔한 사람이랄 수 밖에 없다.

직지사라는 명칭의 유래는 직지심경(直指心經)이라는 불경 이름에서 따온 것이라고 보아야 옳지 않을까. 원래 이름은 직지심체요절(直指心體要節)이라는 불경의 이름을 줄여서 직지심경이라고 한다. 불교에서 수행을 하는 보편적인 요령은 우선 불경공부를 부지런히 하고 또 불교적인 계율을 엄격하게 지키며 고행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 수행의 과정이 그런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이러한 수행과정을 전연 도외시하는 불도 수행의 요령이 있다. 경문을 비롯한 일체의 교리를 생각치 않고 모든 계율을 준수하지 않으며 곧바로 자신의 마음을 가다듬어 성불의 경지에 도달코자 하는 것을 수행목표로 삼는 경문이 직지심경이다. 직지사의 명칭이 《손으로 재어서...》가 사찰의 이름이 되었다는 말은 너무나 단순한 연기설(緣起說)이라고 본다면 직지심경의 이름과의 연결이 개연성이 있지 않을까 한다.

임진왜란 때의 유명한 승군장 유정 사명당이 입산하여 중이 된 절로서도 그 위상에 걸맞게 사찰 규모가 웅대하다. 가람 수도 많고 사찰의 경내 또한 무척 광대하다. 이 절의 비로전(毘盧殿)에는 비로자나불(毘盧遮

那佛) 천 분이 봉안되어 있었다. 3천불을 봉안한 사찰도 있기는 하다.

명부전(冥府殿)에는, 고 박정희 대통령 부부의 대형 영정이 안치되어 있는 것이 이채로웠다. 우리나라에는 어느 산엘 가든지 소나무가 많다. 그런데 높이가 3-4십미터는 넘음직한 소나무를 필자는 이 직지사 경내에서 처음 봤다. 그다지 굵지는 얇으면서도, 그야말로 호리호리 하면서도 뿔뿔하게 쭉쭉 솟아오른 소나무들이 숲을 이룬 모습은 분명 아무데서나 볼 수 있는 광경은 아니었다.

우리 일행은 서둘러 숙소로 돌아갔다. 10시에 만나 안내를 받는 것으로 金海市문화원 측과 약속이 되어있다는 조반을 먹기가 바쁘게 우리들은 김수로왕릉(金首露王陵)을 향해 출발했다. 경산시 관내인 평사휴게소에서 잠시 쉬었다가 김해시로 향했는데 약속되었다는 10시에 맞추어 도착할 수 있었다.

필자는 김해시에 오는 것이 처음은 아니다. 약 15년쯤 전에도 와 본 적이 있었는데 이제보는 김해시는 금석지감(今昔之感)을 금하기 어려웠다. 지난날에는 그렇듯 광활하게 보였던 금해 평야가 이제는 온통 현대형 도시로 변모해버린 듯 하다. 인구가 27만 명이라니 그 변한 모습에 수궁이 갔다. 하기가 김해시가 지닌 역사적인 배경을 감안한다면 야 오늘의 발전도가 놀라운 것은 아닐 수도 있다. 근 2천년 전에 이미 한 국가의 수도였었고 여섯 가약국들로 이루어진 연방국가의 중심지였으니 말이다.

필자는 여기서 성역으로 다듬어진 김수로왕릉의 규모나 형태를 말한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생각하기로 하고

김수로왕에 얽힌 설화와 전설에 관한 부분도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그리고 뒤에 인도 아유타국(阿踰陀國)의 공주 허황옥(許黃玉)을 맞아 왕비로 삼았다는 설화도 생략하기로 하겠다. 다만 일부 일본인들의 왜곡된 역사인식으로 말미암아 가끔 우리들의 비웃음거리인 《임나 일본부》(任那日本府)설에 관하여 필자 나름의 단견이나마 피력해 볼까한다. 그런데 임나(任那)에 관한 설명을 하기 위하여는 시간적 공간적으로 연결되는 그 주변 상황을 먼저 소개하는 것이 순서적이겠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는 가락국들을 소개해야겠고 가락국들을 소개하기 위하여서는 그 가락국들을 창건한 구간(九干)들의 명칭도 소개하기로 하겠다.

1. 가락국(駕洛國, 加洛國)

고대에 낙동강하류에서 일어난 나라들로 기록에 따라 명칭이 조금씩 다르다. 우선 가라(加羅: 伽羅: 迦羅)라고도 하고, 가야(加耶: 伽耶)라고도 적은 데가 있으며, 어떤 기록에는 여섯 가락국들의 이름을 개별적으로 표기하지 아니하고 그냥 六伽耶라고 뭉뚱그려 표기한 데도 있다. 그리고 건국의 설화는 김수로왕의 것만이 있고, 다른 다섯 가락국의 건국설화는 없다. 그러면 이야기 전개의 편의상 우선 아홉추장(九干) 그리고 그 나라들이 차지하고 있던 지역을 소개하기로 하겠다.

가. 구간(九干)

이들은 모두 전설에 속하는 원시 촌락국가의 추장들인데 후에 가락국의 수로왕에 의하여 통합되었다.

아도간(我刀干), 여도간(汝刀干), 피도간(彼刀干), 오도간(五刀干), 유수간(留水干), 유천간(留天干), 신천간(神天干), 오천간(五天干), 신귀간(神鬼干)……이 아홉 명의 추장들이 아홉마을의 무리들을 이끌고 구지봉(龜旨峰)에 올라 구지가를 부르며 수로왕을 맞이하여 가락국을 세웠다는 것이다.

나. 《六가야: 금관가야(金官伽耶-지금의 金海市 일대 및 그 주변에 있었다. 전설에 의하면 중국의 後漢 光武帝의 18년(AD 42년)에 김수로왕이 세웠다는 나라. 한 때 6가야를 영도하는 정도로 국세가 강성했던 적도 있었지만, 주변국가들과의 끊임없는 투쟁을 했었고, 특히 백제와의 되풀이 되는 투쟁으로 말미암아 국력이 많이 소모되어 결국은 신라의 23대 법흥왕 19년(532-AD) 신라에 병합이 되는 신세가 되었다.

아라가야(阿羅伽耶-지금의 咸安일대 및 그 주변)

고령가야(古寧伽耶-지금의 경상북도 상주군 함창면에 있었던 6가야중의 한 나라)

성산가야(星山伽耶-지금의 星州?)

대가야(大伽耶-지금의 高靈지방에 있었던 6가야중의 하나. 남방의 금관 가야에 대치하여 6가야를 영도하였던 국가였다.)

소가야(小伽耶-지금의 固城)…… 등을 말한다.

이상에서 볼 때, 여섯가야 중에서 금관가야의 세력이 가장 강성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으로 강력했던 나라는 대가야였던 것이다. 건국 초창기부터 한동안은 금관가야가 여섯가야의 맹주(盟主)로서 영

도력을 행사하였던 것이고 후반기 이후로는 여섯가야의 영도권이 다가야로 넘어간 것이다.

인간세계이든 자연계이든 간에 세월이 흐르면 그 조직사회에 반드시 변화가 온다. 영고성쇠의 과정을 수없이 되풀이하면서, 그러나 서서히 쇠퇴 또는 멸망의 길로 기울어져 간다. 6가야도 마찬가지로 찬란한 문화의 꽃을 피우기도 했었고 주변국가들에게 위협적인 존재로 군림하였던 국가들이 6세기를 전후하여서는 모두 망했다. 그 당시의 강대국가였던 신라에 합병을 당하고 말았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렇듯 강력한 국가였던 신라도 사라진지 오래다.

이 글을 쓰면서 지극히 아쉽게 생각되는 것은 우리 일행이 김수로왕릉엘 들렀을 때, 가락문화재가 소장돼 있는 박물관을 견학할 수 없었던 점이다. 이미 보도를 통하여 어렵פות이 짐작만 하고 있던 가락문화유산의 일부분이나마라도 그 실체를 보았다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가시어지지 않는다. 황금 장신구들을 비롯하여 송마기구 각종무기들 그리고 여러가지 생활용품등 하여 경탄스러운 것들이 많을 것으로 예측하고 갔었는데…… 평범한 인간의 소박한 기대는 이렇게 어긋나는 경우가 많은 것인가……. 우륵(于勒)이라는 대음악가가 가락사람이며 그가 창제하였다는 가야금은 1천5백년의 세월이 흘러 오건만도 우리 고유 악기로서의 존재치가 당당하지 않은가. 동시에 우리들의 자부심 또한 뿌듯하지 아니한가. 위대한 조상의 덕으로 말이다.

김해를 떠나서 울산으로 향했다. 13초 사이에 자동차 한대씩이 나온다는 현대자동차

공장에 들러 대부분의 작업과정이 자동가동, 일종의 로봇을 통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호뭇하였다. 우리의 공업 수준이 완전히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현장을 보는 감회도 호뭇하였다.

울산을 출발하고서는 경주로 갔다. 해가 많이 기울어졌다라기 보다도 일몰직전에 경주시 황남동에 있는 대능원엘 들렀다. 천마총에만 화다닥 들러 나와서 대능원 앞에 있는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숙소에 들었다.

10월 31일, 이번 여행길 3일째 되는 날이다. 말하자면 집에 가는 날이다. 오늘의 일정이 바빠서 것이라는 견해는 어제도 있었다. 부슬비가 축축거리는 새벽에 우리 차를 몰아 석굴암에 들렀고 불국사에도 들렀다. 그리고 대능원앞에 있는 그 식당에 가서 조반을 먹기가 바쁘게 안동을 향하여 달리는 데, 도산서원엘 들렀다가 부석사엘 가기로 되었던 예정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차량운행 시간으로 보아 도저히 부석사에는 들르지 못한다는 것이다. 참 우스운 일이다. 부석사엘 가면 불교 문화재가 많다고 들었고 기대를 했었는데, 수덕사 행이나 마찬가지로 거품이었다.

안동댐 건설로 물속에 잠길뻔 하였던 도산서원의 모든 시설이, 정부와 안동시민들 그리고 문화재를 사랑하는 국민들의 성의로, 원형 그대로 옮겨져 있다. 그리하여 우리들의 옛 성현의 행적을 볼 수 있었음이 무척 기뻐고, 동시에 도산서원 보존에 많은 수고를 하였던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린다.



국립공원 설악산(12)

- 의춘암(宜春巖)을 찾아서 -

————— 朴 益 勳

본지 편집 위원

우리 친산회 일생(親山會一行)이 구룡 계곡(九龍溪谷)을 자주 찾게 된 동기는 의춘암(宜春巖)을 찾기 위해서였다.

구룡 계곡이란 양양 서면에서 흥천가는 계곡을 말한다. (가칭)

이 계곡은 아흔아홉 굽이를 돌아야 넘어간다는 구룡령(九龍嶺)에서 발원(發源)하여 오색(五色)에서 내려오는 소내(松川)와 합류(合流)하여 남대천(南大川)으로 들어간다. 바로 이 곳에 의춘암이란 큰 글자가 새겨져 있다 해서 무려 다섯 차례나 찾게 되었던 것이다.

1993년 이른봄 단신(單身)으로 찾아오나 초행길이라 길을 잘못들어 산은 험하고 수목이 우거져 고생만 하다가 되돌아 오고 말았다.

그 다음부터는 그 부근에 사시는 분들을 비롯하여 향토에 관심이 많은 분들에게 물어 의춘암을 찾기는 했으나 의춘암이란 각자(刻字)는 발견 못했다.

1994년 4월 20일 수요일이었다. 양양읍에서 갈천 약수(葛川藥水)터로 가는 버스를 탔는데 마침 곡우(穀雨)날이어서 약수 찾아가는 손님이 많은데다가 여자분들이 노래까지 불러 차 안은 시끄러워졌다. 어떤 중년 신사 한 분이 보다 못해 “좀 조용히 합시다.”라는 말 한 마디로 차 안은 가까스로 조용해졌다.

우리 일행 중 잘 아는 신사 한 분을 만났는데 옷차림새와 풍채(風彩)가 근사한데다가 견문(見聞)도 많은 분 같이 여겨져 혹시나 허고 의춘암 있는 곳을 물어 보았으나 향토에 대해서는 무식(無識) 중에 상무식이었다. 80이 되도록 살아온 자기 고장에 대해 그렇게도 무관심하다니……. 실망도 컸다.

일행은 소내리(松川里)에서 내려 인근 부락 노인을 찾기로 했다.

넷물(松川)을 따라 서쪽으로 500m쯤 들어가니 정원(庭園)이 유달리 아름다운 가옥 하나가 나타났다. 일행은 “야아”하고 찾아 들

이 계곡은 아흔아홉 굽이를
돌아야 넘어 간다는
구룡령(九龍嶺)에서 발원(發源)하여
오색(五色)에서 내려오는
소내(松川)와 합류(合流)하여
남대천(南大川)으로 들어간다.
바로 이 곳에 의춘암이란
큰 글자가 새겨져 있다
해서 무려 다섯 차례나
찾게 되었던 것이다.

어가니 70이 넘어 보이는 탁상호(卓商浩)란
노인 부부가 반가이 맞이하면서 차까지 끓여
내와 잊지 못할 정감(情感)을 느끼게 한다.

탁씨(卓氏)는 광산 탁씨(光山卓氏)로 이
마을에 정착(定着)한 지 11대 330여 년이나
되고 서면(西面) 제일 갑부(甲富)로서 집부
위 환경을 얼마나 잘 가꾸어 놓았는 지 사슴
을 비롯한 각종들, 산당화(山棠花)를 비롯
한 각색화초(各色花草), 주목을 비롯한 여
러 희귀목(稀貴木)들, 당귀를 비롯한 여러
약초와 산채(山菜)들을 심어 두워 마치 동·
식물원을 찾아온 기분이다.

그 집을 짓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서울 어떤 큰 회사 사장이 와 보고 “자기는
남부러울 것 없이 살건만 이 아름답고 청아
(清雅)한 정취(情趣),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 한이 된다.”고 탄식 하더라는 것이다.

탁 노인(卓老人)이 어린 시절 양양 보통
학교(양양 초등 학교)를 다녔는데 ‘의춘암’
이라 쓴 그 절벽 앞을 지나다녔다는 것이다.
너무도 기쁜 나머지 그 분을 모시고 의춘암



을 찾아갔다.

석벽(石壁)은 예대로 남아 있으나 각자
(刻字)는 보이지 않는다. 오랜 세월 동안
풍화 작용(風化作用)으로 그 바위가 절벽에
서 떨어지고 말았다는 것이다. 애석한 마음
어찌 금할 수 있었겠는가!

峴山誌(全) 宜春巖條에

在府西十五里 盤石極佳 鳴岩 李公海朝
命以宜春巖 號三字大刻 鳴岩筆

알기 쉽게 풀이해 본다면,

“의춘암은 양양부 서쪽 15리 지점에 있는
극히 아름다운 반석이다. 명암(李海朝의
號) 이해조 공이 의춘암이라 이름 짓고 큰
글씨 3자를 새겼는데 글씨는 명암이 썼다.”
는 내용이다.

이해조(李海朝)는 1709년 (숙종 35) 기축
이월(己丑二月)에 양양부사(襄陽府使)로
부임했다가 1710년 (숙종 36) 3월에 응교
(應教…正四品)란 내직(內職)으로 들어가



대제학(大提學·正二品)까지 지냈고 조부(祖父), 부친 삼대(父親三代)가 다 대제학을 지낸 명문 출신이기도 하다.

또한 의리의 사나이어서 1689년 (숙종 15) 장희빈(張禧賓)의 무고(誣告)로 인현왕후 민씨(仁顯王后 閔氏)가 폐위(廢位)되자 벼슬을 그만 두었다가 1694년 (숙종 20) 민황후가 복위(復位)된 후 다시 벼슬길에 나아갔고, 시문(詩文)에도 능하여 사가 독서(賜暇讀書)까지 받았다. 삼연 김창흡(三淵 金昌翁)은 천재라고까지 극찬(極讚)한 분이기도 하다.

1976년 발간된 양양 향토지(鄉土誌)에, "서면 소재지(西面所在地)에서 약3km 흥천행 도로 남천변(南川邊)에 있는 110여 평되는 반석이 포진(布陳)되고 반석 중앙(中央)에 석정(石井) 세 개가 있어 물이 사시충만 할 뿐 아니라 목욕하면 피부, 안질(皮

膚, 眼疾)에 신호(神効)를 얻으며 반석 뒤에 석벽(石壁)이 길며 여기에 의춘암(宜春巖)이라고 크게 조각되어 있고, 반석 아래에는 깊고 맑은 물이 연소(淵沼)를 형성하여 고기떼가 많으므로 낚시꾼이 끊이지 않는다."로 기록되어 있다.

이 골짜기는 물이 맑고 주위 경관이 아름다워 도처가仙境(仙境)이지만 특히 이 곳이 뛰어나 옛날에는 많은 상춘객(賞春客)들이 찾아들어 의춘암이란 이름까지 생긴 것이다. 의춘(宜春)이란 봄을 즐긴다는 뜻이다.

이 골짜기에 댐이 생긴다 하나 혹시나 이 골짜기 아름다운 명소들이 없어질까 걱정된다.

개발이 백 년 앞을 바라보고 살자는 사람들이라면 자연을 보존하자는 사람은 천 년 앞을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외치고 싶다.

속초 향토 사료관 건립

'9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속초 시민들의 오랜 숙원이던 향토 사료관이 명년 내에 개관을 목표로하여 작업 중에 있다.

속초시와 문화원은 올 정초부터 사료관 건립을 계획, 국비와 도비·시비를 합쳐 약 2억5천여 만원의 예산으로 문화 회관 내 90평 공간에 유물 등을 전시할 계획이다.

6.25로 실항민을 대폭 수용하고 있는 속초에 향토 사료관이 건립되면서 시민들의 내교장의 전통 문화(유적) 교육과 의식 함양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계획하고 있는 주제명만을 간추려 소개한다. ① 도입구(출입구) ② 속초 연혁 판넬 ③ 관광·유적 분포도 ④ 영상 ⑤ 속초 동식물 판넬 ⑥ 어망·어류 분포도 ⑦ 어구 전시대 ⑧ 일제 시대 ⑨ 민속 유물 전시대(놀이연출) ⑩ 고대~조선 시대까지의 판넬 및 유물 ⑪ 선사 시대 유물 ⑫ 통사 개관 판넬 ⑬ 속초 지형도 ⑭ 6.25동란과 속초의 수복 ⑮ 창고 ⑯ 야외 전시장 등을 갖춘다.

한 장의 사진을 찾습니다

본 문화원에서는 문화 은행에 보관할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사진을 소장하고 계시는 분은 문화원 사무국으로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 문헌 자료 : 향토사, 지명, 인물
- 사진 자료 : 속초의 옛 풍물, 인물, 옛 구조물 등을 찍은 사진
- 음향 자료 : 강연, 연설, 기타



속초문화원 전화 : 0392) 32-1231.
전송 : 0392) 32-1241

— 사진은 '인면 대좌(人面臺座)

양산 통도사에서

촬영/편집자 1996 · 10 · 31

尹義求 태영 수산 대표 올해 농어민 대상

- '속초 문화' 편집위원 -

윤의구 본 문화원 '속초 문화'지 편집 위원 이 강원도와 강원일보사가 공동 주최한 '96년도 농어민 대상을 수상했다.

제16회 농어민 대상(지역 특화상·11월 8일, 춘천 문화 예술 회관에서 시상식)을 받은 윤의구 편집 위원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한해성의 2패(貝)인 가리비 양식을 시도

하여, 지난 '88년 고성 앞 바다에서 가리비알을 채취하는 데 성공하여 우리 나라 가리비 양식 산업의 기틀을 다진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윤의구 편집 위원은 현재 속초시 장사동에서 태영수산 대표로 있으면서, 가리비 양식 연구소 소장으로서 있다.



▶ 최각규 도시자로부터 제16회 농어민대상을 수상하는 윤의구 소장

한복(韓服) 입는 예절(禮節)



李 鍾 旭
(성균관 전학)

한복은 우리 나라의 전통 의복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입는 예절을 잘 모르고 명절에나 입는 옷으로 생각하고 있다. 요사이에는 양복과 양장을 통상복으로 입고 명절에만 한복을 입는 풍조가 있어 한복이 예복(禮服)이 된 느낌이며 명절 중에서도 설날에 가장 많이 한복을 입을 뿐만 아니라, 남자들은 특히 설날이나 의식 행사(儀式行事)에서만 한복을 입는 경향이 있어서 우리 선조들의 의복인 전통 한복을 예(禮)에 맞게 올바르게 입는 법을 열거하기로 한다.

1. 두루마기

두루마기는 한복 차림에서 제일 큰 걸옷이다. 남자는 밖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남자의 한복 정장은 두루마기를 입어야 하는 것이고, 여자는 주로 집안에서 생활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여자에게는 두루마기가 방한복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남자는 바깥나들이에 반드시 두루마기를 갖추어 입어야 정장이 되며 엄격히 말하면 집안이나 실내에서도 예의를 지켜야 하는 경우(손님맞이)는 반드시 두루마기를 입어야 하는 것이다. 어느 유명 인사가 세배를 받으면서 마고자만 입고 세배를 받는 것은 큰 결례요, 예절에 무지라 할 수 있다.

또 세배하는 이도 목도리를 하고 세배하는 것도 같은 결례이기 때문에 양측의 입장은 예를 모르는 무지라 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마고자만 입은 차림으로 외출 방문 또는 의식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을 많이 보게 되어 우리 나라의 한복 예절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된다.

남녀 모두 오바나 코트에 머플러를 두르고 있을 때는
오바나 코트를 벗을 때 함께 풀어야 한다.
그러나 양복 저고리나 양장 옷의 깃속에 두른
머플러를 풀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설사 옷저고리 깃속에 두른 머플러도
방한 장비이므로 실내나 의식 행사장에서는
반드시 풀어야 한다.

그러나 여자에게는 두루마기가 방한복이기 때문에 설사 집 밖에서 한복을 입었더라도 실내에 들어갈 때에는 현관에서 두루마기를 벗고 들어가는 것이 예절이다. 그런데 의식 행사장에 여자가 두루마기를 입고 참석하거나 웃어른에게 두루마기를 입고 절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기까지 하다.

2. 목도리 · 머플러

목도리나 머플러는 다 같이 목에 두르는 방한 장비이다. 그런데 요사이의 남녀 모두 목도리나 머플러를 악세사리 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안타깝다. 그 때문인가 남자가 마고자에 머플러를 두르는 것을 정장으로 인식해 실내나 의식 행사에 그런 차림으로 태연 자약한 경우를 볼 수 있다. 여자들은 치마 저고리에 머플러를 두르고 정장인 체 하는 일은 없지만 두루마기에는 반드시 목도리를 해야하는 것을 아는 것 같도 또 그런 차림으로 예사롭게 의식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남녀 모두 목도리나 머플러는 방한 장비이므로 실내나 의식 행사장에서는 풀어야 한

다. 간단히 말해서 실내나 의식 행사에서는 방한용 장갑(의식용 장갑 제외)을 벗어야 하듯이 목도리나 머플러도 풀어야 한다.

3. 양복 · 양장의 오바와 코트

양복이나 양장을 입은 남녀의 오바와 코트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도 한다. 오바나 코트는 남녀 모두 방한복이다. 그러니까 추운 실외에서 오바나 코트를 입었더라도 실내나 의식 행사장에 들어갈 때에는 반드시 벗어야 한다.

4. 양복 · 양장의 머플러

남녀 모두 오바나 코트에 머플러를 두르고 있을 때는 오바나 코트를 벗을 때 함께 풀어야 한다. 그러나 양복 저고리나 양장 옷의 깃속에 두른 머플러를 풀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설사 옷저고리 깃속에 두른 머플러도 방한 장비이므로 실내나 의식 행사장에서는 반드시 풀어야 한다.

이와 같이 한복의 예절을 모르고 결례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우리 고유 전통 한복 예절을 잘 지켜 나아가야 하겠다.

— 1969년 10월 2일 개교
교동 초등학교(校洞初等學校)

- 27회 졸업으로 5,315명의 졸업생 배출 -



韓 貞 教
(교동초등학교 교장)



우리
교장
초등
학교
순례

교동 초등학교는 1969년 10월 2일 속초 초등학교 학생들의 분산책으로 이를 수용하기 위하여 설립된 학교로서 속초시 교동 779-16번지에 위치하며, '96년 현재 27회 졸업으로 5,316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96년 3월 1일자로 제9대 한정교(韓貞教) 학교장의 부임으로 학교 경영 방침을 “바라는 인간상”에 두고 주체 의식이 투철하고 미래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슬기로운 어린이 육성으로 알찬 학교·즐거운 학교·신뢰 받는 학교로 학생 중심으로 경영되는 학급 운영과 교사들의 학교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학교의 쇄신을 꾀하고 있다.

노력 중심으로 교육 과정에 대한 수업 체제를 개선하는 방향에 두고 도덕성 함양 6운동 실천을 생활 지도로 삼으면서 잠재력을 발굴하는 특별 활동을 펴고 있다.

교동 초등 학교의 특색 교육으로는 생활 일기 쓰기를 통한 글짓기 지도로 저학년 단 문형 일기와 고학년 문장 일기를 들 수 있다. 앞으로 고학년으로 오를 수록 더욱이 중 고등 학교의 진학을 전제로 논술에 대비하는 자세로 글쓰기에 중점, 특색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효행 생활과 과학 독후감, 동화·기행문 등의 글짓기도 병행하는 미래 지향적이며, 진취적인 주체의 바라는 인간상 교육으로 학교 경영 방침을 정하고 있다.

전통 문화 계승 발전의 차원에서 어린이 사물놀이를 지도하여 우리 것에 대한 훌륭함과 아름다움을 어릴 때부터 익혀 나아가는데 주력하고 있다.

문예 활동으로는 속초 교육청 주최 학교 신문·학교 문집 전시회에서 금상 3·은상 3·동상·4명 등이 입상을 차지하는 실적과 함께 KBS강릉 방송국 주최 글짓기 보람상을 받았으며, 해양 환경 문제를 주제로 하는 글짓기 대회에서 은상 2·동상 3·장려 1명 등이 수상하였으며, 속초 예총 글짓기에서도 금상 12·은상 16·동상 8명 등 문예 부문에 뛰어난 활동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과학 활동으로는 교육청 주최(과학 상자

조립) 경진 대회에서 금상 3·은상 2·동상 2명 등, 도교육청 주최(과학 상자 조립) 경진 대회에서 은상 1·동상 1·장려 1명 등과 도교육청 주최 과학 전람회 우수 1명이 입상하였으며 속초 교육청 주최, 과학 탐구 실험 경진 대회에서 은상을 3명이 입상하였다.

체육 활동으로는 전국 스키 대회, 초등 학교부에서 1위와 13위 입상 23명 등이며, 학교간 육상 경기 대회 1위 5위 입상 16명 등이다. 강릉 단오제에서 펼친 태권도 대회 초등부에서 대회 종합 1위를 차지하였으며, 양양 현산 문화제 카누 대회에서 4위로 입상하기도 하고, 속초 교육청 주최 수영 대회에서는 1위 6, 2위 4, 3위 1명 등이다. 기타 대회 입상 67명 등이다.

기타 활동으로는 교육청 주최, 어린이 기자 기사 쓰기 대회 입상 1위, 교육청 주최, 수학 경시 대회 금상 1위 4명 등과 전국 지구 사랑 글짓기 대회에서 2명이 입상하였고, 국제 아동 미술 대회 최고상 1명, 금상 2명 이상 47명과 강원 일보사·조선 소년 일보·한국 일보 등 언론사 주최 미술 대회에서 227명이 입상하는 등 기타 대회에서 입상 139명 등 예체능에서 두드러지는 활동을 보이고 있는 교동 초등 학교이다.

학급 편성

1996. 8. 30일 현재

학 년	1	2	3	4	5	6	계	유치원	
학급수	8	9	8	8	8	7	48	1	
학 생 수	남	170	210	173	167	175	160	1,055	20
	여	173	167	174	180	168	140	1,002	20
	계	343	377	347	347	343	300	2,057	40
평 균	42.9	41.9	43.4	43.4	42.9	42.8	42.85	40	

—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배움의 전당 대포 초등 학교(大浦初等學校)



김 현 기
(대포초등학교 교장)



“해 돋는 마을”에 위치한 대포 초등학교는 대포동 350번지에 위치한 학교로 1919년 4월 1일 개교하여 77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학교로 많은 인재를 배출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250명의 학생들이 “바르게 생각하고 실천하는 어린이”란 교훈 아래 18명의 교직원과 열심히 공부하고 건강하게 미래를 개척해 나아가고 있다.

1년 내내 관광객이 붐비는 횃집의 명소에 위치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지만 교통 질서 의식이 다른 학교보다 뛰어나 '96년도에 한 건의 사고도 없이 무사히 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94년 10월 4일 부임하신 김현기 교장 선생님의 남다른 교육 열정으로 각 교실마다 선풍기 2대씩 T.V·V.T.R 이동 칠판·실물 화상기·O.H.P 녹음기 등 다양한 기기 교재를 준비하여 2000년대 주역이 될 꿈나무들의 시청각 교육에 앞서 가고 있으며 열린 학교, 열린 교실 운영으로

창의력·사고력 개발에도 앞장 서고 있다.

교목인 향나무처럼 늘 푸른 마음을 가지고 교화인 개나리처럼 예쁜 마음으로 오늘도 18명의 교직원과 함께 미래를 향하여 도전하고 있다.

또한 대포 초등학교 농악부는 속초에서 인정하는 명물로 '94년에는 일본 미야기현 의회 초청으로 칠석제에 참가한 바 있고 그

외 전국 농악 대회 및 설악 문화제 눈꽃 축제에 다수 참가하여 신연한 바 있으며, 아동이 희망하는 특별 활동을 운영하여 특기 및 재능을 키워 주는데 앞장 서고 있으며, 학부모와 교직원이 혼연 일체가 되어 아름답고 깨끗한 오고 싶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하는 밝은 미래가 숨어있는 정통있는 학교로 발전시켜 나아가고 있다.

I. 일반 현황

1. 위치 : 강원도 속초시 대포동 350번지

☎ (0392) 635-3840

2. 연혁

- 1919. 4. 1 대포공립국민학교로 인가 및 개교
- 1939. 4. 1 대포국민학교로 개칭
- 1994. 10. 4 제30대 김현기 교장 부임
- 1996. 2. 14 제70회 졸업식 거행(총 3477명)
- 1996. 3. 1 대포초등학교로 개칭



— 1940년 4월 1일 주봉 간이 학교로 개교 설악 초등 학교(雪嶽初等學校)

— 전 교생의 관광 요원화의 특활 —



車 重 喆
(설악초등학교 교장)



장엄한 태백 준령 뺨어내리고 설악산 경치마다 관광의 터전 슬기와 꿈을 키워 전진하는 곳 배움의 전당 찾아 모인 어린이, 봄바람 가을비에 굳세게 자라 영원히 빛난다. 우리 설악교.

1940년 4월 1일 주봉 간이 학교로 설립인가를 받아, 54년 주봉 국민 학교로 승격한 후 외설악 국민 학교로 65년 교명을 변경 그후 74년 설악 국민 학교로 개칭하여 79년 외설악 국민 학교와 통합한 것이 설악 초등 학교의 간략한 발자취다.

설악 초등 학교는 도덕적이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건강한 어린이의 육성을 교육 목표로 깨끗하고 즐거우며 신뢰 품토가 조성되어 협동 체제가 정착된 학교에서 국가관이 확립되고 부단히 연구하여 슬선수범 교육애를 발휘하는 선생님들이



- 나라를 사랑하는 어린이
- 성실하고 알뜰한 어린이
- 밝고 명랑한 어린이
- 질서를 존중하는 어린이
- 극기심이 강한 어린이 만들기에 매진하고 있다.

환경 교육에 최대의 역점을 둔 설악 초등 학교의 대표적 특색 교육을 살펴보면 설악산 지역의 환경을 관찰하고 생명의 근원 및 자원과 아름다운 지구 살리기 등의 내용으로 꾸며 어린이들로 하여금 기재토록 하는 교재인 '푸른 설악'을 비롯 각종 보도 매체를 통해 환경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전교환경 스크랩 북(NIE) 활용과 월 1회 개최하는 환경 보전 작품 전시회, 4, 5, 6학년을 대상으로 자연의 보전 상태를 파악 보전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야영대회의 개최 등을 통해 전교생을 환경 파수꾼화하고 있다.

또한, 관광지로서의 특성을 고려해 속초 지역의 약도를 비롯해 문화재 및 관광지 현황, 명승 고적, 민속놀이, 숙박 시설 등이

수록된 '걸어서 설악까지'란 책자를 배부 활용하고 있으며, 연 4회 관광요원화 발표 대회를 개최, 전교생의 관광 요원화를 꾀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로 지난 95년 녹색 마을 녹색 강원 관광 학교 유공 교육장 표창을 비롯 시 지정 환경 교육 시범 학교 발표, 학교 경영 우수 학교 교육장 표창을 수상했다.

한편, 87년 창단해 꾸준한 성적을 거둔 대표적 체육 육성 종목인 양궁은 '95년 도소년 체전 남초부 3위와 회장기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으며, 지난 17~19일까지 개최된 96 도소년 체전에서는 최근대 어린이가 30m에서 1위 개인종합 우승의 영광을 차지했다.

지난 '93년 부임한 차중철(車重喆)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14명의 교직원들은 슬기와 꿈을 키워 전진하는 배움의 전당 설악 초등 학교에 모인 2백 22명의 어린이들을 바르고 굳세며 슬기운 설악인으로 양성 하기 위해 오늘도 부단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1951년 10월 8일 개교
속초 초등 학교(束草初等學校)
- 45회 졸업으로 16,818명의 졸업생을 배출 -



朴 基 亨
(속초초등학교 교장)



속초 초등 학교는 속초시의 중심에 위치한 중심 학교이자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속초 교육의 모태요, 인재 양성의 요람이다.

1951년 10월 8일 속초 국민 학교로 개교한 이래 반세기에 가까운 나이로 올해 제45회 개교 기념일을 맞이하였다. 1955년 3월, 제1회 졸업을 기점으로 하여 1995년 2월 제45회 졸업에 이르기까지 총 16,818명의 인재를 배출하였으며, 중간에 영랑, 청호, 중앙, 교동 초등 학교를 분할하기도 하였다.

또한 1981년 3월 10일 병설 유치원을 개원하여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현재 제16대 박기형(박기형) 교장 선생님, 방무길 교감 선생님, 윤중학 교무 선생님이 이끄는 속초 초등 학교는 특수반 1개 학급과 유치원 2개 학급을 포함한 총 1,659명의

학생과 47명의 교사와 일반직·기능직 9명 등 총 56명으로 조직되었다.

특히 1993년 4월 6일부터 실시된 급식은 현재 1명의 영양사와 16명의 조리사의 수고와 노력으로 따뜻하고 영양가가 높은 점심 식사를 하고 있다. 4층까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모든 급식 도구 및 음식을 운반할 수 있게 되어 매우 편리하여 우유나 과일 등의 간식도 항상 곁들여 먹을 수 있다.

학급수와 총 학생수를 비교해 볼 때 급당 평균 학생수가 약 41명 정도로 다소 과밀 현상을 나타내지만 모든 교육 여건과 시설 등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21세기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간 육성을 위해 열린 교육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아동 중심 학습 능력 신장과 의사 표현 능력 신장을 꾀하는 활발한 교육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요즘 교육 목표의 방향이 21세기의 첨단 과학 기술 시대, 세계화시대, 정보화시대의 대비를 위한 인재 양성인 것인 만큼 시대적 요청에 즈음해 볼 때, 첨단 정보 통신 기술인 '컴퓨터'를 활용한 컴퓨터 교육의 중요성과 그 의미는 크다고 볼 수 있다.

저희 속초 초등학교는 1995년 3월 1일 "교육부 컴퓨터 시범학교"로 지정 받고 1층 3층의 2개의 컴퓨터실과 컴퓨터 연구실, 초등학교로서는 전국 최초인 멀티미디어실을 4층에 설치하였다. 컴퓨터와 거리감이 있는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컴퓨터와 친숙해 질 수 있도록 하고 스스로 배워야겠다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CAI 프로그램 적용 및 개발을 통한 컴퓨터 활용 능력 신장"이란 목표를 세우고 컴퓨터를 이용한 보조 학습 즉, CAI를 교육 활동에 적용해 왔다. 또한 CAI 프로

그램 교수 학습 활동을 위한 보조 학습 자료를 한국 교육 개발 원에서 제작한 것은 물론이고, 본교 교사로 조직된 프로그램 GREAT 개발팀이 직접 학생들의 학습 능력과 학습 효과를 고려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제작·개발한 것을 아동 학습 활동에 활용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각 학급에서는 VTR과 TV, 녹음기, O. H. P. 등이 갖추어져 있어 활발한 학습 활동을 할 수 있으며, 특히 1996년 3월에는 'SCBS'라는 본교 방송국을 개국하여 각 반 교실에 앉아서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접할 수 있고, 조회도 기후에 상관 없이 할 수 있게 되었다.

아직까지 모든 학급에는 보급되지 않았지만 각 학년 단위로 한 대에서 두 대 정도의 컴퓨터와 프린터가 준비되어, 1주일에 한번 씩 학습을 예고하고 안내하는 '주간 학습 예고안'도 모두 워드 프로세서로 작성되어 모든 학생들에게 배부되고 있으며, 아동들의 학습에 이용할 자료를 연구실이나 각 학년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학습 활동에 임하고 있다.

1996년 10월 11일에는 전국 단위의 '교육부 지정 컴퓨터 교육 시범 보고회'가 300명이 넘는 교육 가족을 모신 가운데 본교에서 성황리에 펼쳐졌다.

이제 저희 속초 초등학교는 관내 뿐만 아니라 전국의 교육 가족들이 주시하는 교육의 요지가 되었으며, 열린 학교로 주목받게 되었다.

학교 환경도 게시물의 종류나 내용면에서 어린이들에게 알맞은 환경, 가정과 같이 밝고 안정된 교실, 위생적인 교실환경으로 조

성하였으며, 교실마다 놀이 학습 코너도 꾸며져 있다. 각 층에는 교사 휴게실도 아늑하게 설치되어 선생님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실외 환경 또한 사철 푸르름과 곧음을 간직한 교목인 '주목'과 밝고 아름다운 어린이의 상징인 '장미'를 비롯한 온갖 꽃과 수목들로 정원과 화단을 이루었고, 각 식물마다 수목패를 달아주어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게 하였다. 각종 운동장의 놀이 기구도 안전하게 배치하고 형형색색 아름다운 옷을 입혔으며, 학교 울타리인 담벼락에는 아름다운 풍경화가 그려져 있어 환하게 학교를 밝혀주고 있다.



'희망에 파도치는 꿈을 안고서 배우고 자라나는 속초 어린이'라는 교가의 노랫말처럼 21세기의 세계를 이끌어 갈 주인공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본교는 교과 활동은 물론이고, 특색 교육으로 교통 안전을 생활화하고 훌륭한 교통 사회인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통 안전 교육'과 자율적인 저축 생활을 습관화하고 근검 절약의 내면화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내가 먼저 아껴 쓰기'교육과 아동들에게 컴퓨터에 관한 관심과 지식을 배양할 목적으로 '컴퓨터 퀴즈 운영'을 하고 있다. 체육 육성 종목에는 남자 축구, 여자 농구, 육상이 있으며, 교내외에서 큰 활약을 하고

있다.

또, 매주 토요일마다 '책가방 없는 날'을 운영함으로써 학년별 또는 학급별로 인성 교육은 물론 현장 학습, 조사 학습, 만들기, 꾸미기, 그리기, 서예, 신문 제작, 운동, 봉사 활동, 자연 보호 활동, 독서 토론회와 견학 등의 다양한 교육적으로 가치가 있는 활동을 하여 학생들의 잠재 능력을 계발시켜 주고 있다.

"교육 개혁은 궁극적으로 단위 학교의 교육 개혁을 통해 열매 맺을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과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

는 의지로 교육이라는 꽃의 알찬 결실을 얻기 위해 오늘도 쉬지 않고 학생, 교사, 학부모는 삼위 일체가 되어 학교 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다.

특히 금년 5월 속초 초등 학교 총 동창회가 결성된 것이 큰 의미로 다가온다. 개교 45년 사이에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추진해 나가는 앞서 가는 학교의 선배들이 사회의 중역에 위치하여 기여하듯이, 우리 속초 건아들도 온 세계의 등줄기 마다 우뚝 선보일 주인공이 되도록 알찬 배움과 성장의 전당을 터전삼아 바르고 크게 클 수 있도록 곳곳이 발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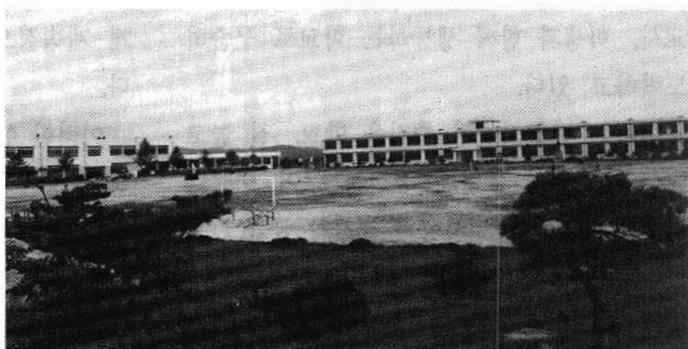
오늘도 교육 개혁의 초석이 되어 아동들의 앞서 가는 교육에 전념하고 계시는 교사들과 웃음꽃 가득하고 활기 넘치는 운동장과 정과 사랑으로 지식을 쌓아가는 교실을 바라보며, 밝고 건전한 미래 사회를 그려본다.

인재 양성의 요람이자 속초 교육의 모태인 속초 초등 학교의 집무실에서.

— 열린 교육으로 생동하는 학교 영랑 초등학교(永郎初等學校)



신 평 승
(영랑초등학교 교장)



영랑 호수와 동해의 푸르고 맑은 정기를 받아 꾸준히 발전 해온 영랑 초등학교는 1942년 4월 대포 초등학교에서 분리 되어 처음 개교하였다.

그 후 해방과 더불어 공산당 치하에 있다가 1951년 1.4 후퇴 때 불에 타서 없어지고 휴전 이후 다시 수복되어 1955년 11월 15일 초대 교장으로 고연재 선생님이 부임하여 동년 12월 1일 개교식이 거행되어 오늘날까지 제41년의 역사를 가지고 속초시 초등 교육의 요람으로 자리를 굳히며 발전하여 왔다.

속초시에서는 오랜 역사를 가진 학교이나 근래와서는 가족 계획 및 주거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학생수가 줄어 1, 2, 3, 4, 6학년이 4학급씩, 5학년이 5학급으로 총 25학급에 교직원수 40여 명에 달한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학교 건물은 1955년 3월 19일 이후 북쪽 건물 1동과 1980년 이후 증축된 서쪽 건물 유치원 건물 등 3동으로 되어 있으며 북쪽 건물은 그동안의 역사를 말해 주듯 낡고 퇴색되어 있지만 1968년 4월 문교부 시청각 지정,

1980년 3월 교육부 지정 예체능 전담 시범 학교 운영, 1981년 9월 자연 관찰 학습원 조성, 1983년 2월 전국 새마을 우수교 표창, 1989년 5월 강원도 지정 과학 교육 시범학교, 1991년 6월 4일 도시형 급식 학교 급식 실시, 1994년 11월 시지정 유치원 공개를 하였고, 1996년 3월에 지정된 강원도 교육청 지정 시범 연구 학교로서 음악과(즐거운 생활) 연구에 전 직원이 힘을 모아 공부하는 교사, 학생과 함께 생동하는 학교로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현재는 민주적이며 즐거운 학교, 질 높고 내실있는 열린 교육에 중점을 두어 수범과 감화로 존경받는 교사상과 슬기와 꿈을 키우는 어린이상 아래 인성 교육, 적성 교육, 열린 교육의 충실로 슬기롭고 행실이 바르며 마음이 열린 어린이 육성에 주력하고 있다.

이렇듯 21세기 미래 사회, 정보화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창의적이고 애항심이 투철한 영랑의 향토 인재 육성을 위해서 열린 교육을 도입하여 1993년부터 창의성 위주의 교육으로 속초 지구에서는 선진을 추구하고 있으며, 교사와 아동 학부모가 삼위 일체가 되어 열린 학교 열린 행정 열린 교실 열린 교육으로 어린이와 교사의 개성과 능력을 최대한으로 계발시켜 좁은 물론 자율성을 중시하여 스스로 개척하고 노력하는 분위기에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창의적인 인간 교육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은 질 높은 개인 연수 및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에 힘쓰고, 학습 지도의 다양화로 즐거운 교실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다.

둘째로는 다양하고 활기찬 상설 특별 활동

반 운영으로 어린이의 흥미, 취미, 소질에 맞는 클럽 활동을 전개하여 각자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계발시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주고 있다.

상설 특활반 활동으로는 영어 회화, 글짓기, 연극, 바이올린·단소·첼로·기타·플룻·그리기·무용·성악·서예·국악반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컴퓨터, 영어 회화반은 신교육 개혁 및 정보화, 국제화시대에 걸맞게 계속적으로 인원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상설반 활동은 방과 후 어린이들이 여러 곳의 학원에 다니며 값비싼 학원비와 시간을 부담하게 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학원 교육을 학교로 흡수하며 다양하고 질 높은 학교 교육에 대한 실태와 더불어 시간과 교육비를 절감하면서도 많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셋째로 교사의 자율 연수로 배우며 뛰는 학교로서 배움의 끈을 놓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리 것의 소중함과 흥겨움을 느끼게 하는 영랑 초등학교 교사들의 국악 연수는 듣는 이로 하여금 어깨를 들썩이게 할만큼 배움이 진지하다.

1996년 8월 휴가 중에도 본교의 정진주 선생님의 지도 아래 땀을 비오듯 흘리며 팽과리와 장고의 흥겨운 리듬 속에 빠지기도 했다.

이렇듯 교사들의 연수기회 확대로 어린이들의 질높고 즐거운 수업, 미래사회와 신교육개혁에 부응하는 교육풍토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수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해서 교사들의 국악, 영어, 컴퓨터 등 연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넷째 매주 토요일 자율활동의 날은 책가방 없는 날로 정하여 교과와 관련되는 학습의 심화(현장학습, 실천위주의 인성교육, 진로 교육, 봉사활동, 소질계발활동 등)에 힘쓰고 있다.

가정의 기능이 복잡해지며 핵가족화 되어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됨에 따라 효, 경, 예 사상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성적 위주의 교육보다는 바른 품성과 인간 형성의 터잡아 주기 지도에도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시상제를 실시하여 (효행상, 봉사상, 선행상, 예능상, 체육상, 노력상, 으뜸상) 월1회 표창을 함으로써 소질 계발의 기회 제공과 민주적이고 균등한 즐거운 학교 생활 조성에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다.

33년의 역사를 가진 영랑 야구부는 1964년 11월에 창단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영랑 초 등 학교 어린이들의 체력과 전통을 키우며 발전하여 왔다.

그동안 강원도 소년 체전 우승을 비롯하여 우승 20여 회 준우승 10여 회를 하며 강원도 어린이 야구부 주역으로 자리를 굳히고 있다.

즐거운 가르침에 신나는 교육 교사가 가르치는 일에 즐거워야 아동도 즐겁고 신나는 교육을 받으며 배움에 대한 희열을 느낄 수 있으므로 교사와 어린이가 함께 스스로 공부하며 탐구하는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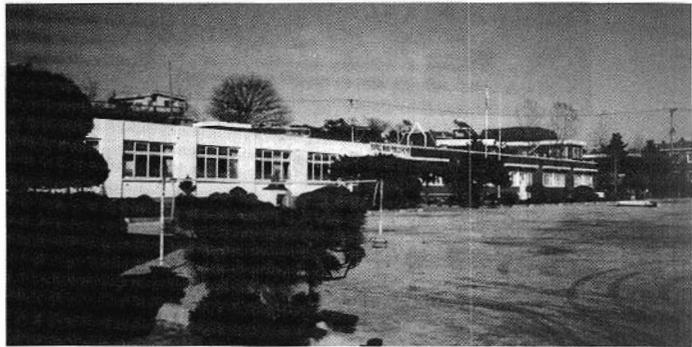
그러나 나라의 백연 대계를 위한 향토 인재 육성에 학교의 교사, 학생, 학부모 행정 기관 등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우리의 자녀를 키우는 데 온 힘을 다해야 우리 고장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가 보장 된다고 생각할 때 급변하는 사회와 교육개혁에 발맞추어 아직도 우리가 같길은 멀게만 느껴진다.

— 1951년 4월 19일 개교
온정 초등학교(溫井初等學校)

- 42회 졸업으로 2,848명의 졸업생 배출 -



최 규 화
(온정초등학교 교장)



세계의 명산 설악산을 뒤에다 두고 앞에는 맑고 맑은 동해의 바다와 청초호로 흐르는 물을 울타리 삼아 세워진 배움의 터 온정 초등학교는 노학동 620번지에 자리 잡은 아담한 학교로 1951년 4월 19일 속초 국민 학교 노리 분교로 개교하여 45년의 전통을 이어온 학교로 많은 인재를 배출하였다.

오늘도 온정의 200여 명의 어린이들은 착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어린이, 스스로 공부하며 탐구하는 어린이, 깨끗하고 건강하게 자라는 어린이가 되고자 18명의 교직원과 함께 열심히 뛰고 공부하며 자랑스런 전통의 학교 만들기에 전력하고 있다.

본교에 근무하는 교직원 일동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학교 즐겁게 공부하는 학교 신뢰받는 학교를 학교상으로 내걸고 미래 이 나라의 주역이 될 2세 교육에 불철 주야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교사들은 꾸준히 노력하고 실력을 기르며 사랑을 베푸는 교사상을 가지고 미래를 향하여 약진하고 있다.

우리 온정 초등학교는 미시령을 오르는 길목의 노학 별관에 자리 잡은 학교로 주위에 온천장과 순두부 마을, 콘도미



니엄등 관광지로 개발되어 가는 고장의 명소에 자리잡고 있으며, 학교 앞으로는 도로가 지나고 있어 항상 교통 사고의 위험이 많지만 계획적인 교통 지도와 교통 질서 의식이 뛰어나 한 건의 교통 사고도 없이 지내고 있다. '96년 3월 1일 제20대 교장으로 부임하신 최규화 교장 선생님은 교직원들의 인화 단결과 아동들을 친 지식 같이 사랑하는 열정으로 교실마다 새로운 교구 구입과 열린 교육 여건 조성에 정성을 다 하고 있으며 특히 남자부 배드민턴을 강원도의 명문 체육부로 부상시켰으며 전국 제패를 목표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다. 올 가을 추계 전국 리그전에서는 기라성 같은 팀들을 물리치고 3위에 입상하였으며 계속 되는 훈련의 결과 11월에는 6명을 선발하는 강원도 개인 리그

전에서 1,2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하여 주위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였다.

교목인 소나무는 늘 푸른 우리의 기상과 드높은 우리의 전통, 곧게 자라는 온정 어린이를 상징하며, 교화인 해당화는 곱고 분홍의 색깔은 온정의 모습을, 향기로운 내음은 우리의 마음을, 향기 드높음은 우리 온정의 자랑을 상징하고 있다.

온정의 200여 어린이들은 이렇게 자기소질 개발과 특기 신장에 노력하고 있으며 학부모와 교직원이 혼연 일체가 되어 깨끗하고 아름다운 학교 즐겁게 공부하는 학교 신뢰받는 학교 만들기에 온갖 정성을 다하고 있다.

이리하여 미래가 있는 학교, 전통이 있는 학교, 무궁한 발전이 있는 학교가 되리라 의심치 않는다.

— 1971년 3월 2일 개교
조양 초등학교(朝陽初等學校)

- 25회 졸업에 2,971명의 졸업생 배출 -



尹 東 萬
(조양초등학교 교장)



본 학교는 속초시 조양동 403-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예의 바르고 건강하며 성실한 어린이가 되자.”는 교훈 아래 700여 명의 어린이들이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되기 위해 열심히 꿈을 키우고 있다.

본 학교는 1970년 3월 1일 12학급으로 설립 인가를 받아 '71년 3월 2일 개교 이래 지금까지 25회 졸업에 2,971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현재는 18학급 30명의 교직원들이 '93년 9월 1일 부임한尹東萬(윤동만) 학교장과 학교 발전을 위해 불철 주야 애쓰고 있다.

본 학교는 매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대적 설립 요구에 부응하여 개교하게 되었다. '68년 사라호 태풍으로 온 나라가 물바다에 잠기고 속초 시가도 물에 잠겨 엄청난 재산과 인명의 피해로 많은 수재민들이 발생하여 시내에서 오갈 곳 없는 수재민들을 현재 조양동 새마을에 복구 주택을 건립하여 탄생한 마을 어린이들과 부월리·온정리·논산리·청대리 주민들의 자녀들로 개교하게 되었다. 하지만 개교 당시의 어려운 여건은 학교 발전의 시금석이 되어 부임해 오는 교사

들과 지역 주민, 학생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짧은 기간에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게 된다. 본 학교는 명실 상부한 속초시 조양동 일대의 교육·문화·체육의 장(場)이 되어 지역 발전을 주도하고 있는 구심점으로 앞으로 그 역할이 한층 기대되고 있다. 본 학교가 이렇게 25세의 청년으로 당당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된 것은 지금까지 학교 발전을 위해 애써 온 역대 학교장들과 교사들의 뜻을 받들어 재임 중인尹東萬(운동만) 학교장이 중심이 되어 교사와 학생들이 혼연 일체가 될 수 있는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을 창출, 운영하였던 결과로 여겨져 본 학교의 내적 성장 요인인 학교 교육 방침을 소개하면,

먼저 소개한 교훈에서는 나라 사랑·효·정직한 마음과 부지런하고 규칙적인 생활과 어려움을 끝까지 참고 이겨내는 어린이를 기르고, 제자를 사랑하며 열심히 가르치는 직무에 충실한, 사랑과 이해로 화합하는 교사들이 깨끗하고 즐거운 생활 속에서 바르게 가르치고 열심히 공부하는 학교를 경영한다는 대의(大義) 아래 마음을 닦는 어린이(도덕인), 스스로 행하는 어린이(자주인), 탐구하는 어린이(창조인), 튼튼한 어린이(건강인)로 키워 나간다는 교육 목표를 이루어내기 위해 세부적인 실천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본 학교는 특히 산업의 발달과 도시화에 따른 핵가족화되고 있는 세대에 점점 소멸되어 가고 있는 가족과 이웃 간의 사랑과 이해를 학교 교육을 통해 확산시키고자 인성 교육에 역점을 두고 즐거운 일과 운영, 반가 명곡부르기, 사랑의 대화 시간 갖기 등을 통

한 즐거운 학교 풍토 조성과 도덕성 함양 6운동으로 지속적인 실천과 효(孝)·경(敬)·애(愛) 교육을 통한 뿌리찾기, 부모님께 편지쓰기, 가훈 제작과 실천 및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 학급 신문 만들기, 사랑의 가교 운동, 남에게 폐 안끼치기 교육과 애향 3운동으로 뿌리찾기, 자랑심기, 주변 가꾸기의 실천으로 따뜻하고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진 어린이 교육에 힘쓰고 있다.

본 학교는 위치상 시내 진입의 관문에 자리하고 있으며, 학교 앞바다가 관광의 명소인 '속초 해수욕장'과 '고속 버스 터미널'이 있어 전교생을 이 교장이 아름다움을 알리고 소개하는 관광 요원화교육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

이 밖에도 민족 자존 교육(국기·국화·국가 바로알기), 통일 준비 교육(북한 바로알기·분단 현장 체험 학습학급회 운영으로 시사 계기 교육), 전통 음악 교육(사물놀이반 운영), 외국어 교육(영어·한자), 컴퓨터 교육, 진로 교육 등을 계획 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학교 교육은 학교의 독자적인 노력으로만은 어려운 점이 뒤따르는 점을 감안하여 학교 운영 위원회와 총동문회, 자모회 등과의 유대와 협조로 학교의 전반적인 운영을 효과적으로 도모하고 있다.

끝으로 학교의 특색을 소개하면, 개인 문집 만들기 및 학년·학급 신문 발행을 통해서 학생들의 역할 활동 조장과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시사 교육과 1학년 1특색 교육을 권장하며, 관광 요원화교육을 위해 교재를 개발하여 활용하고 학년별 경연 대회 개최를 통해 그 실천을 확실히 독려하고 있다.

교육은 나라의 백년 대계(百年大計)라는 대의 명분 아래 이루어지는 아주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며, 교육을 통해서 시대가 요구하는 일꾼도 성인 군자 양산되며, 알래스카에 얼음을 팔 수 있는 수출의 역군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도 시인도 소설가도 정

치인도 키워낼 수 있다고 여겨질 때 특히 초등학교의 교육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라는 소명 아래 모든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이웃과 교장과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을 키워 나아가는 데에 힘쓰고 있다.

I. 일반 현황

가. 위치 : 속초시 조양동 403-1번지

나. 연혁

- 1970. 12. 31. 조양국민학교 설립인가(12학급)
- 1971. 3. 2. 조양국민학교 개교
- 1971. 3. 7. 초대교장 이석기 부임
- 1982. 3. 7. 병설유치원 설립인가 개원
- 1993. 9. 1. 제8대 교장 윤동만 부임
- 1996. 2. 13. 제25회 졸업식 거행(2,971명)
유치원 졸업식(제14회 550명)
- 1996. 3. 1. 조양초등학교로 개칭

다. 학교편제 및 학생현황

구분	학년	1	2	3	4	5	6	계	유치원
	학급수		3	3	3	3	3	3	18
학생수	남	61	53	75	52	49	61	351	11
	여	56	52	48	60	54	64	324	11
	계	117	105	123	112	103	125	685	22

라. 교직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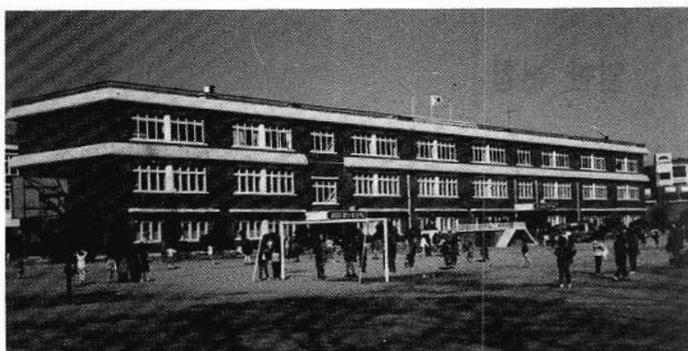
구분	교장	교감	주임교사	교사	양호교사	유치원교사	영양사	서무	기능직	과학조교	계
남	1	1	6	2	·	·	·	·	2		12
여	·	·	·	12	1	1	1	1	1	1	18
계	1	1	6	14	1	1	1	1	3	1	30

— 1963년 4월 1일 개교
중앙 초등 학교(中央初等學校)

- 33회 졸업으로 10,352명 졸업생 배출 -



진 익 균
(중앙초등학교 교장)



본 학교는 속초시 중앙동 509-3 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1963년 4월 1일 개교하여 1996년 2월 15일 제33회 졸업에 이르기까지 총 10,352명의 많은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착하고 슬기롭고 건강한 어린이”라는 교훈으로 897명의 꿈나무들은 저마다의 뛰어난 슬기와 재주를 열심히 갈고 닦으며, 튼튼히 자란다. 이 어린이들은 대내외적인 행사 때마다 그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여 거의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서 높은 칭송을 받아 왔으며, 대를 이어서 “뛰어난 슬기와 재주” 빛나는 중앙의 전통을 자랑하고 있다. 매주 월요일 애국 조희시에는 그동안 있었던 각종 행사에 참여하여 입상된 상장과 상품의 전수식을 가진다. 그때마다 전교생의 우뢰와 같은 박수소리와 함께 기쁨과 격려로 얼굴이 상기되고 희망과 용기, 자신감이 넘쳐 흐른다. '96학년도에는 도 교육청이 주최한 학생과학 탐구 대회에 은상, 속초시 교육청 주최 어린이 합창 경연 대회에서 최우수, 어린이 회의 경연 대회에서 최우수, 대현 이율곡 선생 제전 행사 휘호 분야에서 대상, 수학 경시 분야에서 금상 등 어린이들의 활약이 뛰어

나다.

그 외에도 각종 선행 및 문예·예체능 분야의 표창과 상장의 수상은 대단히 많다. 제 11대 진익균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전 교직원들은 오늘도 교육을 위해 진력하고 있으며, 특히 교사들은 어린이들의 특기 신장을 위한 방과 후 지도와 특활 시간 운영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있어 아동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교사상을 정립하고 있다.

그리고 매주 2회(화·금)씩 이루어지는 교사 자질 향상을 위한 각종 연수 활동은 아주 진지하고 높은 열기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라져 가는 전통 예술에 대한 계승 발전으로 사물놀이에 대한 연수와 세계화에 대응하는 교육의 일환으로써 컴퓨터 연수시엔 전 직원이 참여,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고, 아동들을 위해 혼연 일체가 되어 구슬땀을 흘리며 오늘도 헌신을 거듭하고 있다.

I. 일반 현황

1. 위치 : 217-030 강원도 속초시 중앙동 509-3번지

☎ 교장실 : 32-5831, 교무실 : 33-5192, 서무실 : 33-3347, FAX. 635-6093

2. 연혁

- 1962. 9. 5. 학교설립인가
- 1963. 4. 1. 개교
- 1992. 3. 1. 제11대 진익균 교장 부임
- 1996. 2. 15. 제33회 졸업(총누계 : 10,352명 졸업)
- 1996. 3. 1. 중앙 초등학교로 개명

3. 학급편성 및 아동수

()안은 특수학급 인원

학 년	1	2	3	4	5	6	특수학급	계	병설유치원
학급수	3	4	4	4	4	5	1	25	2
학생수	132	133	153	148(1)	148(3)	183(1)	(5)	897	51

4. 직원 현황

구분	교 무 계							서 무 계				총계	
	교장	교감	주임교사	교사	양호교사	유치원교사	계	주사	기능직	과학조교	영양사		계
남	1	1	6	3			11		3			3	14
여				18	1	2	21	1	1	1	1	4	25
계	1	1	6	21	1	2	32	1	4	1	1	7	39

5. 시설 현황

구 분	건물 및 운동장 부지	기타부지	총 면 적
면적 m ² /평	12,035/3,640	14,701/4,447	26,736/8,087

6. 건물

교사 구분	교실	강당	과학실	가사실	미술실	음악실	체육실	컴퓨터실	특수반	양호실
수 량	27.5	1	2	1	1	1	1	1	0.5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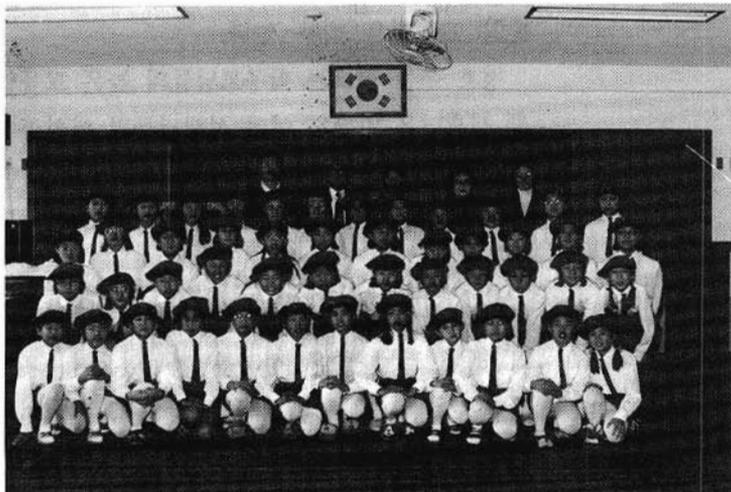
관리실	교장실	교무실	서무실	운영위원회의실	관사및 기타	관사	숙직실	급식소	수세식 화장실	창고	온실	테니스장
수 량	1	1	1	0.5	수 량 3	1	2	6	2	1	1	

7. 교구 현황

기자재명	TV	VTR	컴퓨터	OHP	VTR 카메라	실물 화상기	카세트 녹음기	복사기	인쇄기	실물 환등기	카메라
수 량	20	15	29	1	1	1	25	2	1	1	1

8. 일반 학습자료 및 교구

구분	과학자료	체육기구	음 악	미 술	총 계
종	118	48	30	6	202
점	926	240	120	30	13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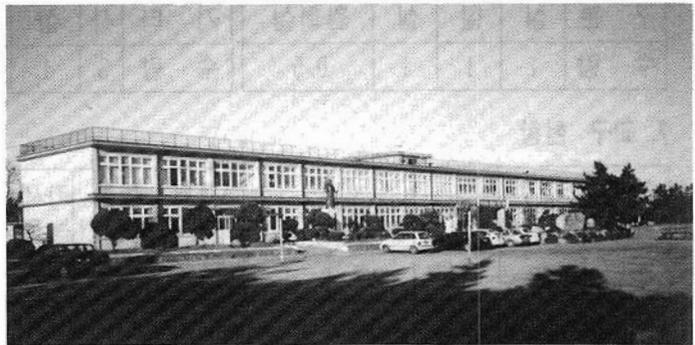
— 1958년 4월 13일 개교

청호 초등 학교(靑湖初等學校)

- “슬기와 꿈이 깃든 어린이”의 교훈 아래 배운다-



金 鎮 範
(청호초등학교 교장)



청호 초등 학교(학교장 金鎮範)는 6.25 직후인 1958년 4월 13일 청호동 백사장에 터를 잡아 개교하게 되었다. 청호동은 원래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었으나 수복 이후 6.25때 피난 나왔던 함경도민들 중에 통일이 되면 빨리 고향에 가려고 잠시 눌러 앉은 사람들이 모여 이룬 마을이다. 이렇듯 고향을 북한에 두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청호동 학부모님들의 교육열은 매우 높다.

청호 초등 학교는 학부모님들의 높은 교육열과 김진범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들의 열성과 청호 어린이들의 노력이 뒷받침되어 “슬기와 꿈이 깃든 어린이”라는 교훈 아래 양보다 질을 높이는 교육을 추구하며,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학교 육성 종목인 롤러 스케이트는 강원도 소년 체전에서 몇 해에 걸쳐 좋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지금도 선수들이 바다에서 불어오는 찬 바람을 맞으며, 열심히 훈련에 임하고 있다. 롤러 스케이트 외에도 생활 체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교 동문이 기증한 노래방 기기 덕분에 청호

어린이들은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하고 있다. 또한 각종 현대식 기교재를 구입하여 활용함으로써 교육의 세계화와 정보화에 힘쓰고 있다.

거친 땅, 억센 바람에도 잘 자라는 해송

(海松) 교목을 닮아 굳센 의지로 어려움을 잘 참으며, 장미 교화의 사랑을 닮아 친구와 다정하고 부모님의 은혜를 알며, 내 고장을 사랑하는 청호 어린이들은 오늘도 '예쁜 표정으로 정답게 말하며' 미래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I. 일반 현황

1. 위치 : 강원도 속초시 청호동 432-38

TEL. (0392) 33-5294, FAX. 31-8745

2. 연혁

- 1958. 4. 13. 개교
- 1971. 3. 6. 조양초등학교 신설 분리
- 1977. 3. 29. 병설 유치원 설립 인가
- 1986. 3. 1. 특수학급 개설
- 1994. 12. 10. 제16대 김진범 교장 부임
- 1996. 2. 16. 제38회 졸업식 거행(졸업생 총 5,664명)
- 1996. 3. 1. 청호초등학교로 개칭

3. 학급 편성

- 학급수 : 10(1) 262명 * 1, 2, 5학년-1학급. ()-특수학급
- 병설유치원 : 2학급 37명

4. 직원 현황

- | | | | |
|-------------|---|------|--------|
| ○ 교 | 원 | 남 9명 | |
| | | 여 4명 | 계 13명 |
| ○ 유 치 원 교 사 | | 여 2명 | |
| ○ 양 호 교 사 | | 여 1명 | |
| ○ 일 반 직 | | 남 1명 | |
| | | 여 1명 | |
| ○ 기 능 직 | | 남 2명 | |
| | | 여 1명 | |
| ○ 급식후원회사무 | | 여 1명 | 총계-22명 |

統一祈願詩

生前欲見統山河
 朝暮祈誠惜日過
 休戰線邊收冷戰
 七千萬族享平和
 指呼可接逢期遠
 書信每傳恨淚多
 安得天威除障壁
 南北同座樂如河

峴山嚴柱天書



생전의 동행은 신화와를 보리라

이 찬란한 세력으로 힘입어 기쁘게 하리라

날이 지나가는 것이 아깝도다

후진천의 생전을 거두리라

생전만 민족의 화해와를 두리니

손가락으로 부를가 차은가 리인대

만날기약은말기만 하도다

소식조차 전할수 없으리

천만은은그대문의이만은다

하늘의 기쁨으로 장엄은은없애고

천안천안을의 수복은이 천자의의의

즐거워 환은이 어찌 하려오



峴山 嚴柱天

- 한국서예작가협회 속초운영위원
- 한국미술교육개발원 서예부 임상
- 한·중 공모전 입선
- 대한민국 서예대상전 입선
- 한국서예작가협회 공모표창 수상
- 창성문구사 대표

통 일

통일! 통일! 통일!
아름답고 찬란한 이 금수강산을
어느 누가 철조망으로 갈라놓았으나
7천만 민족이 갈망하는
통일! 통일! 통일!

동해 동녘바다에 해 떠오르는 아침에
북바치는 설움을 하소 해보자.

이제 다 함께 일어나
외치자, 달리자, 통일의 길로
아- 통일의 날은 그 언제인가?
가깝고도 먼 길
멀고도 가까운 길
꿈속의 통일이나
환상의 통일이나

가로놓인 철조망아 말해다오
민족의 숙원인 통일의 날은 그 언제인가?
철조망은 말한다.
내말하노니 들어라.



崔 鍾 錫

(민족통일 속초시 협의회 의장)

1950년 6. 25가 낳은 동족상쟁으로 여름을 즐기는
평화로운 목동들의 피리소리 대신
동족끼리 총끝을 겨냥해 쏘아대는 총성과
우리 강토를 우리끼리 무너뜨리는 포성이 울렸을 때
바로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들지 않았느냐?
진정한 통일을 원한다면
다함께 뜻을 모아 총칼을 버리고 남북이 화합되는 날
우리의 소원인 통일은
결코 이루고야 말 것이다.

통일! 통일! 통일!

시 주부 백일장

속초문화원

바 다

장원 정 찬 순



어무이!
 마음 속에 당신을 모시고도
 이렇게 아픈 것은
 무심코 걸어 온 새벽 바다 한 모퉁이
 꿈 뉘으러 나가는 어선을 타고
 그곳엔 항상 당신이 계신 까닭이라예.

삼남 이녀 옥돌 다듬 듯 다듬어
 객지로 보내 놓고
 “내는 편타. 걱정 말거래이.”
 하시던 말씀
 서른의 바깥에 선 지금에야 알았고마요.

어무이! 어무이!
 여어 좀 보이소.
 당신의 껍질 속에서 나온 것처럼
 똑같은 길을 따라온 두 아이들을
 관습인양 무릎 위에 누여 놓고
 지난 날 어무이가 부르시던
 제목도 모를 그 자장가를
 제가 대신 부르고 있니다.

해 질 무렵이면 헌 신문지를 깔고 앉아
 모래내음 가득한 바닷 소리를
 주머니 가득 주워 담으며
 생선 바늘 덕지덕지 붙은 당신의 앞치마에
 실-컷
 이 얼굴을 묻고 있음을 아시니까.
 어무이…….



시 주부 백일장

속초문화원

바 다

차상 최 영 희

등근 해안선 끝나는 곳에
방파제 길게 누워
조울고 있다.

삼밭이 방파제
속없이 멀어
머리에 인 함지박이
더욱 무거워.

오늘 따라 왓지
매운 해풍에
오래 잊었던 눈물이 난다.

바다에 뺏긴 그대
돌아올 기약.
손가락 접어 맹세한 날 없건만

하염없이
바라보는 머인 수평선.

모래 위에 오목 패인 발자욱마다.
파도는 그리움만 채워다 놓고
제 홀로 한 컷
설움에 겨워
눈 가리고 저만치
돌아서 간다. —



속초시 중앙동 475-45(4/2).

바 다(바다 무덤)

차하 김 미 자

밤마다 수평선에 모여
집어등을 밝히는 물의 도시가
어둠 속에 환히 떠오른다.

방금 건져올린
수궁의 사신들이
배를 앓고 구는 갑판

달줄이 끊어졌다
화염에 휩싸인 낡은 어선이
심해 깊이 가라 앉았다

바다를 향해
구르는 발등이 터진 두 아이는
언커를 감싼 채
방과제에 주저 않는다.

고된 목숨을 묻은 바다
애달픈 마음을 삼켜버린 바다여
바다로 나간 사람은
끝내 돌아올 줄 모른다.



시 주부 백일장

속초문화원

단 풍

장려 유 영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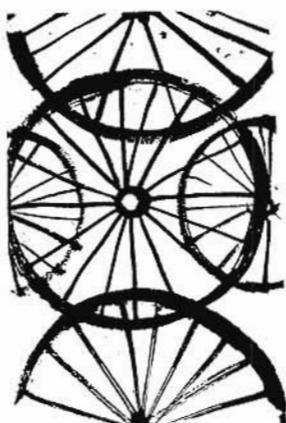
내 어미의
 멍든 가슴 앞이처럼.
 그렇게 물들어 있을 수천의 빛들이

그 높은 곳에서부터
 설설히 내려온다는
 아름다움의 물결.

세월의 무게를 안고
 사계의 결실을 알리는 자태이려니

아!
 우리들의 마음을
 각각의 빛들로 노래케 한다.

내 어미의
 멍든 가슴 앞이처럼
 그렇게 물들어 있을 수천의 빛들이.



속초시 교동 속초 대명 1차 1405호

장원 오징어

“엄마 오늘 새벽 버스편으로 오징어 보냈으니까 이따 아버지보고 시간 맞춰 나가시라고 하세요.”

명절 때 마다 매년 이런 방법으로 멀리 계신 부모님께 오징어 드리는 것이 나의 유일한 선물이었다. 더 정확하게 셈 해보면 올해로 딱 10년째가 되는데...

올 추석부터는 부모님께 드릴 오징어를 따로 준비해야 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대신 5형제 이름으로 개별 포장해서 우체국을 통해 보내 주었다. 그리고는 “엄마 지금 언니 오빠들한테 오징어 보냈어요. 엄마 것은 큰 언니한테 같이 보냈으니까 맛있게 나눠 드세요.” 하려는데 엄마는 벌써 느꼈음인지 떨리는 음성으로 “니네 아버지가 하시던 일을 이제 니가 하는구나 아마다 알고 계시고 좋아하실게다 수고했다. 어서 끊자...” 하시면서 엄마음성은 끊어졌다. 공중 전화 박스에 서서 한참 동안 고개 숙인 채 흐르는 눈물을 훔쳐 냈다. ‘자식이 효도 하고플 때까지 부모님은 기다려 주지 않는다, 라는 지극히 평범한 진리가 왜 진작 내게 큰 교훈이 되지 못했는지 너무도 내 자신이 못나보였으며 어리석어 보였다.

칠십 평생을 우리 6남매 그늘에서 당신 원하시는 것 꺾고 놀리며 살다 가신 우리 아버지 이 세상 어느 부모님인들 아니 그러겠나 마는 나는 유독 우리 부모님만이 더 높이 희생하시고 더 많은 세월을 힘들게 사신 것 같아 그때 그토록 서럽고 크게 울면서 아버지와 마지막 인사를 했었다. 현대 그 때 흘렸던 그 눈물 역시도 이미 때 늦은 깨달음이요 흐느낌일 수밖에 그 이상은 어떤 것도 될 수 없었다. 이곳에 시집 와 처음 맞았던 명절 때만 해도 아버지는 약주도 즐겨 하시고 치아도 건강하신 편이어서 나는 아무 망설임 없이 마른 오징어를 우리 아버지 선물로 찾아냈었다.

임기옥

교동 현대A 105동 401호

받아 보시는 즐거움과 함께 친구들과 나눠 드시면서 자랑하시고 또 두고두고 꺼내어 안주 하시기에 안성맞춤이라시며 너무도 좋아하시는 것 같아 나 스스로도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믿으면서 꽤나 기분 좋아했던 것 같다.

그 뒤로 나는 마치 칭찬 받은 어린아이처럼 계속계속 칭찬 받고 싶어서 10년이 다 되도록 명절마다에는 오징어를 보내 드렸던 것이다. 때로는 산 오징어랑 냉동 오징어도 그리고 또 반쯤 말린 오징어까지~

그럴 때 마다 아버지는 “우리 막내딸이 속초 사는 덕분에 별별 오징어 다 구경하네” 하시며 일부러 더 많이 기분 좋으신 표정을 연출해 주셨다. 작년 10월 몸이 불편하신 아버지는 큰 형부와 함께 10시간을 걸려서 어렵게 우리집을 찾아 주셨다. 막내딸에게 더 젊게 보이고 싶어서 T셔츠와 바지차림을 하셨다는 아버지 말씀에 당신의 부쩍 야윈 모습과 더 많아진 주름진 얼굴을 애써 감추려 했음을 아는 나는 그만 “아버지 많이 안 좋으신가봐요. 죄송해요” 하면서 보이지 말아야 할 눈물을 주체 할 수 없어 들키고 말았다.

“아버지 이거 산 오징어예요.” 하며 한 절음 집어 입안 가득 넣어드렸더니 차마 싫다 못하시고는 한참을 입 속에 넣어 둔 채 머뭇거리시더니 휴지를 찾아 싸서 버리셨던 아버지. 며칠 밤 더 주무시고 가시라는 사위의 바람도 마다하시고 짐을 꾸리시는 아버지께 “이것을 냉동 오징어니까 국 끓여 드시면 좋을 거예요.” 했더니 “됐다 접대 보내준 것도 아직 남았다. 그리고 나 이제 오징어 질겨서

못 씹겠더라. 참 맛있는 건데… 그동안 니 덕분에 어지간히도 먹어봤구나” 하시며 어렵게 사양을 하셨다. 그러니까 그 때 내가 입속에 넣어 드린 산 오징어 맛을 끝으로 우리 아버지와 오징어의 관계는 점점 불편해진 것이다. 그러더니 이번 추석부터는 내가 드리려 하는 오징어도 영영 마다하시고 가신 것이다. 아마 방금 전화를 힘없이 떨구신 우리 엄마께서도 나와 같은 아니 당연히 나보다 더 아프고 애달픈 기억들 때문에 아버지 사진을 꺼내시고 눈을 맞추실 것이다.

물론 내가 보낸 오징어를 며칠 후에 받게 될 5남매들 마음도 그리운 아버지의 모습에 눈시울을 적실 것이다. 해마다 명절 때면 모이던 5남매에게 마른 오징어를 나누어 주셨던 아버지의 손길은 직접 느낄 수 없지만 어디선가 항상 우리들 만을 생각하시며 지켜보고 계실 아버지를 위해 나는 앞으로도 해마다 오징어를 식구들과 나누며 아버지께 대한 그리움으로 대신 할 것이다.

오늘은 유난히 맑고 푸른 가을 날씨 때문인지 여기저기 말린 오징어 줄지어 있는 모습이 많이 보인다. 아버지 음성과 함께 덩그러ん 집에 홀로 계실 엄마 목소리가 왈칵 듣고 싶어진다.

“엄마 막내예요. 오늘 저녁에 오징어 한 마리 꺼내 무우 넣고 국 끓여 드시지~ 나도 저녁엔 오징어 볶아 먹으려 하거든. 엄마 꼭 끓여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전화 자주 할게요.”

차상 바 다

태어나 25년을 푸른바도가 넘실거리고, 갈매기떼가 이리저리 날고, 밤이면 환한 백열등으로 불을 밝히고 식구의 생계를, 이 고장의 한과 넋을 담고있는 바닷가 속초에서 살았다.

이곳을 떠나 10년을 다른 고장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몹시도 애답고 그리워 했었다. 그것은 오로지 바다 때문이었을 것이다.

바다를 남달리 좋아하고 사랑하는데는 커다란 이유가 나에게 있다. 이제 다시 돌아와 내 자신을 끝이 없고 푸른파도 위에 던져 과거를 회상해 본다. 한때 방황하고 혼란스러웠던 학창 시절 내 마음의 갈등이 시작될 때마다 나 홀로 바다 가운데 앉아 슬퍼하고 울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바다는 항상 말없이 나를 향해 시원한 답을 주어 다시 현실로 돌아와 운택한 삶을 영위할 수 있었던 활력소였고, 윤희유였던 것이다.

이제와 다시 생각하면 바다가 나를 위로 하지 못했다면 많은 시련들을 이기지 못하고 좌절과 방황속에서 지내야 했을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여름이면 이름도 행적도 알 수 없는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하던 여름바다.

겨울이면 아무도 찾는 이 없어 쓸쓸하고 적막하기만 했던 겨울바다.

그러나 나는 그 누구의 흔적도 찾을 수 없는 겨울바다를 좋아했었다. 짙냄새와 비린내 속에서도 삶의 행복과 불행을 넘나들던 푸른바다.

우리의 삶 전부를 저 바다에 걸었었다. 고기가 많이 잡혀 만선해 돌아올 때면 온갖 비린내와, 검게 그을린 피부, 삶의 깊이를 더해가는 어부의 주름속에서 삶의 밝은 미래가 보였다.



최 성 애

속초 대명3차A 1502호

집집마다 처마에, 덕장에 주렁주렁 생선들이 널리고 말리는 우리의 어머니들은 식구의 생계 걱정, 자식의 학비 걱정도 모두 잊은 채 자신만만해 하며 신나했었다. 도시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와 그냥 스쳐가며 바다를 즐기지만 할 뿐 바다와 더불어 생계를 유지하는 우리의 삶을 향하여 온갖 비양거림과 비웃음만을 남긴 채 돌아갔다.

난 어렸지만 그럴 때마다 몹시 자존심이 상했다. 지금 생각하면 바다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우리의 삶에 강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었나보다.

그럴 때마다 위안이 되었던 한마디 “당신은 분명 이 바다를 잊지 못해 다시 찾을 것이요.” 고요한 내 자신만의 외침이었다.

이렇게 바다는 나에게 자부심과 긍지만을 주는 것은 아니었다. 친했던 친구의 아버지를 저 바다가 삼켜 버리던 날 우리는 슬픔과 비통에 잠겨야만 했다. 그렇게도 가깝게만 느껴졌던 바다가 웬지 우리를 배신하는 듯한 야릇한 감정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도 잠시 뿐 친구가 다시 학교에 나오던 날 우리는 또다시 바다에 고마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바다는 아버지를 데리고

갔지만 어머니는 우리 곁에 남아 차디찬 판장 한 구석에서 생선의 배를 갈라 자식의 학비를 책임져야 했으니까 우리의 머나먼 미래를 저 바다가 책임지고 있었던 것이다.

집집마다 생선이 걸릴 때면 내가 살던 속초는 활기차고 희망 가득 했지만 생선이 잡히지 않을 때면 우리를 슬프고 우울해 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성인이 되어 이 속초에 다시 돌아와 보니 이 고장을 지켜 주고 있는 수호신은 저 바다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우리 삶의 희노애락을 모두 담고있는 저바다가 요즘들어 온갖 쓰레기와 폐수로 몸살을 앓을 때마다 나는 내 살을 에이는 한 듯한 진한 아픔을 느낀다.

나는 모든이에게 외치고 싶다. 바다를 보고 즐기기 위해서, 또 오래도록 우리 곁에 두기 위해서 바다를 사랑하고 아끼자고 그리하여 그대 이름은 바다를 사랑하는, 사랑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라는 것을 일깨우리라.

그리고 저 바다에게 외치고 싶다. 내 삶도 너로 인하여 힘과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이 사회의 작은 밑알의 역할을 다 하리라고…….

나의 사랑, 푸름바다여 화이팅!

차하 사물놀이

이제 갓 8개월을 넘겼나보다. 우리의 전통 민속에 관한 한 모든 방면에 문외한이었던 내가 문화 회관 풍물 교실에 발을 들여 놓은 것이…….

남편의 승낙을 얻은 것이 첫째 만만치 않았었고, 또 자영업을 하는 이유로 시간을 쪼개는 것도 걸림돌이었으며, 또 한 가지는 이 나이에(?) 하는 자포자기와 자존심이 꽤 많은 시간을 망설이게 했었다. 처음엔 장구를 치는 것이 아니라 두들겨패(이 표현이 맞을까 몰라?) 아님, 조겨팬다고 해야 실감이 날 것 같다. 어쨌거나 힘들고 어려웠던 몇 개월이 지나고, 지금도 역시 초짜는 못 면하였지만…… 난 그래도 엇그제 설악 문화제 수상인의 밤 대무대 위에서 다시 한 번 장구를 두들겨 팽 수 있었다는 사실에서 무언가 조금은 얻을 수 있었다는 것에 쾌감을 느낀다.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민속 음악이란 고작 궁중 음악이나 민요 정도이었다. 그러나 한국의 민속 음악 중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이고 가장 널리 연행되어 오던 놀이는 농악이다. 사물놀이란 바로 이 같은 장구가 역사의 농악놀이에 뿌리를 둔 음악이다. 사물이란 농악에 쓰이는 기본적인 타악기를 지칭하는 데 팽과리와 징, 장구와 북이 곧 그것이다. 또 사물놀이의 원천이 “비나리”, “판굿”, “설장고가락”, “삼도농악가락”인 점이 사물놀이의 모체가 농악놀이였음을 여실히 증명해 주는 것이다. 내가 아는 사물놀이의 발랄한 음향은 우리의 정서적 향수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고 우리네 핏줄기에 흐르는 민족적 속성을 깨워 일으키기에 부족함이 없다. 은은하게 저변을 흐르는 징소리, 방정맞은 듯 요란한 재롱동이 팽과리, 높은 솟대의 웅장함과 창공에 나부끼는 농기(깃발), 상모쟁이가 그려내는 멋드러진 포물선, 이것이 우리의 농악이며, 풍물이었다면 그것을 그대로 이 시대의 밀폐된 공간에서 재현해 내고 있는 것이 곧 오늘날의 사물놀이일 것이다. 결국 사물놀이는 한국적 심성의 예술로서 가장 우리의 정서와 시대적 흐름에 적중한 독보적이고 진귀한 우리의 음악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시대적 물결에 편승하고 있는 나 자신을 돌이켜보면 한편 대견스럽고,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고 사물놀이를 사랑하는 주위의 모든 이들에게 사랑과 찬사를 보내며, 이들의 발전을 위하여 미력을 다하리라.



한 명 옥

속초문화원 장구교실

장려 바 다

김명희

교동현대1차A 102동 903호

바다를 생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바다” 라는 말 자체만으로도 낭만적으로만 생각하고들 살아갈 것이다. 하지만 바다가 먹고 사는 생활의 수단일 수 밖에 없는 사람들에게는 낭만적으로만 생각하기에는 너무도 힘들어 때가 많을 것이다.

요즈음 같이 어수선한 이곳 속초 지역에서는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아야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어려운 고충들이 이곳 저곳에서 슬렁거린다. 생각지도 않았던 북한 잠수함의 출현으로 통행 제한이 실시됨으로써 어업에 종사하던 모든 어민들은 그저 막막히 손을 놓고 한숨만 쉴 뿐이다. 바다가 있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지 마찬가지일 것이다. 항구가 북적거리고 활기를 띄어야 만이 그 지역을 살아나는 생동감이 넘쳐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산다는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 것이다. 그러기에 때로는 내 삶의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간절히 필요할 때도 있다. 어느 것 하나도 바쁘지 않으면 안 될 것같이 살아가는 요즘 자꾸만 서두르고 살다보니 반성할 시간도 좀 갖고 살아가야 하는데 무엇이 바쁘지도 모르게 마음이 조급해지다보니 사람들은 모두가 이기적이어야 하고 아이 어른 할것 없이 다들 자신들이 똑똑하다고 목청 높이는 사람들 뿐이니 사방을 둘러 보아도 마음 편히 앉아서 숨을 쉴 때가 없는 것 같다.

자신 스스로는 나이를 먹어 가면서 순수함을 잃지 않으려고 애쓰지만 나도 모르게 적당히 오염되어 가는 자신을 볼 때마다 실망스러울 때가 있을 것이다.

멋대로 살기는 쉬워도 반듯하게 살기란 쉽지 않듯이 힘들어 때마다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싶다면 바다를 찾아가서 그저 바라만 보기를 해도 좋을 것이다. 바다라는 자체는 말이 없고 대답도 없다 하지만 그 속에서 자신을 진정시키고 바다처럼 묵묵히 조용히 있다보면 차분해지면서 겸손해지는 것을 느낄 것이다.

희망도, 절망도, 부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도 다 자신이 생각하기 나름이 아닌가 그저 절망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기 보다는 긍정적이고 희망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옳은 삶이 아닌가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친구가 필요 하듯이 좋은 주위 환경도 필요할 것이다.

거세고 심한 파도로 가족들을 위협하고 생계를 위협해서 절망감을 안겨줄 때도 있고 죽고 싶다는 생각으로 찾아온 사람들에게 확 트인 드넓은 모습으로 희망을 주기도 하는 바다…….

희망도 주고 절망감도 줄 수 있는 바다와 함께 살고있는 이런 주위 환경에 참으로 축복 받았다는 생각에 감사하면서 살아간다.

어느 곳에 간들 이렇게 자연스러운 미역냄새, 소금 냄새, 또 수많은 해초 냄새를 맡을 수 있을까? 바위 위에 붙은 이름도 알 수 없는 수많은 조개들. 파도가 밀려갔다 왔다 할 때마다 손으로 잡을 수 있는 미역과 다시마…….

바다야 네가 있는 한 우리들은 열심히 살아갈 것이야 멋진 바다야 화이팅!

秋 景

清爽金風搖樹林 청상금풍요수림
 夜深書讀寒陰侵 아심서독한음침
 馬肥木落秋容潔 마비목락추용결
 刈獲農民腰佩鎌 예확농민요패겸
 蟋蟀何妨余寢息 실슬하방여침식
 月明鴻雁一橫南 월명홍안일횡남
 梧桐無力蕭蕭盡 오동무력소소진
 騷客登亭作賦吟 소객등정작부음

가을정경

서늘한 가을바람 숲속의 정막을 깨고
 깊어가는 밤 서상에 한기가 심여드네.
 말을 살찌고 낙엽이 나뭇기는
 가을 벼 베는 농민 허리에 낫을 찼네.
 침상에 귀뚜라미 소리 잠못 들게하고
 달은 밝고 기러기 행렬 남쪽으로 뻗었네.
 오동잎 지는 소리 쓸쓸하기만 하는데
 시객은 정자에 올라 시를 읊조리네.



金 鍾 壬

秋野景

秋夕老蚊眠席侵 추석로문면석침
 點燈對案讀書臨 점등대안독서림
 夜寥蟋蟀恐寒泣 야요실슬공한음
 不睡家妻冬服針 불수가처동복침

가을밤 정경

추석 모기 잠자리에 보채나.
 등불을 밝히고 독서를 한다네.
 고요한 밤 귀뚜라미 추위가 두려워 우는데
 집에 처 잠자지 않고 겨울옷을 바느질하네.



文 樂 俊

春 歸

月夜梨花影映明 월아리화영영명
 仙峯谷霧霏浮登 선봉곡무영부등
 杜鵑啼處傳春息 두견체처전춘식
 芍藥東園夢未醒 작약동원몽미성

봄이 돌아오다

배꽃은 달빛받아 더욱 밝고
 산골짜기에 안개 구름 피어오르네.
 두견새 우는 곳에 봄소식 전해지고
 함박꽃 아직 잠 못깨었나 보다



李 起 煥

自 嘆

初志一貫活躍東 초지일관활약동
 全盛過去落楓冬 전성과거낙풍동
 東奔西走不休性 동분서주불휴성
 脫盡斜陽難渡江 탈진사양란도강

스스로 한탄한다

뜻한 바 있어 영동 지방에서 활동하였건만
 보람있던 시절이 지나고 나니 낙엽지는 겨울이라네.
 설 사이 없이 부지런한 성격이었건만
 늙고 나니 석양에 강 건너기조차 어렵다네.



金 鎔 基

※ 해설 : 한때는 영동 지방에서 활동한 보람도 있어 인정받기도 했는데 장년기의 전성기가 지나고 나니 떨어지는 낙엽처럼 스산하기 짝이 없다.
 설 줄도 모르고 부지런한 성격이었건만 몸이 늙어 황혼기에 접어드니 강조차 건너기 힘든 나그네의 신세라네.

仲秋會遊

遐邇親家一席逢 하이친가일석봉
 仲秋酒讌會遊從 증추주연회유중
 紅粧佳色勸杯唱 홍장가색권배창
 秋月清風枝舞松 추월청풍지무송
 蒼遠層林霜染病 초원층림상염병
 夕陽楓景楨霞峯 석양풍경정하봉
 連豐聖代安民樂 연풍성대안민락
 五穀金波稼穡農 오곡금파가색농

추석 명절 놀이

멀고 가까운 친척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햇곡식으로 만든 음식으로 함께 즐기네.
 곱게 단장한 여인들 술 권하며 노래하니
 달밝은 가을밤 나무가지도 춤을 춘다네.
 멀고 높은 산에는 단풍이 곱게 물들고
 석양에 가을 풍경 봉마다 다름다워라.
 풍요로운 태평성대 사람마다 즐겁고
 오곡이 무르익은 들판엔 농심이 아름답네.



尹 益 鉉

秋 情

山村孤屋晚秋深 산촌고옥만추심
 滿庭菊香月與岑 만정국향월여잠
 梧葉不眠身返泣 오엽불면신반음
 讀書三昧燈如心 독서삼매등여심

가을의 정경

산마을 외딴집에 가을은 깊어가고
 그윽한 국화 향기 달빛 더불어 뜰에 가득 고여있네.
 오동잎 잠 못이루어 님 그리듯 뒤척이며 호느끼는데
 책 속에 잠긴 주인의 마음도 등불과 함께 타고 있네.

姜 泰 成

讀書季節

蟋蟀在堂秋已深 실솔재당추이심
 點燈可讀古人心 점등가독고인심
 風清月白好時節 풍청월백호시절
 學海青春豈逸歎 학해청춘기일협

독서 할 때다

귀뚜라미 소리 가을이 깊었나보다
 등불 밝히고 옛 성현의 뜻 배워야지
 바람맑고 달밝은 이 좋은 계절에
 젊은 학도들 어찌 때를 놓칠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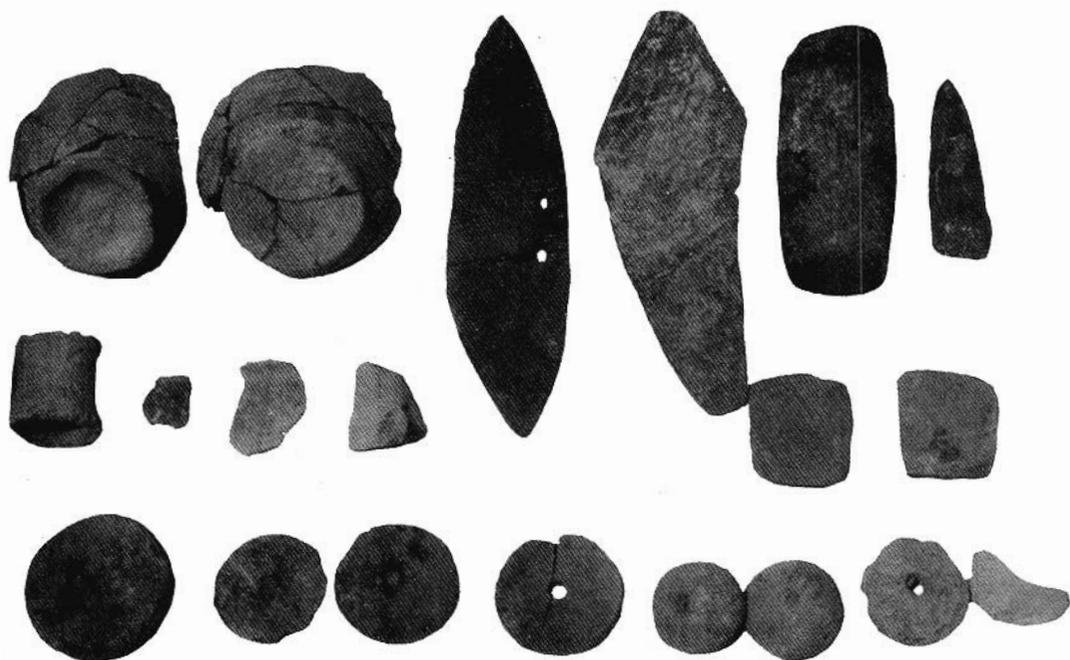
朴 益 勳

※ 해설 : 귀뚜라미 방안에서 우는 것 보니 벌써 가을이 깊어가나보다. 어서 등불 밝히고 옛 성현들의 뜻을 읽어야지 시원한 가을이 다 가기 전에. 배우고자 하는 젊은이들 자기 소망을 이루기 위해 어찌 이 좋은 계절을 헛되이 보내겠는가? 蟋蟀在堂은 詩經 唐風 蟋蟀條에 '蟋蟀在唐 歲聿其某'란 말을 인용한 것으로 中國山西省에 있었던 晉나라의 民謠로서 歲暮의 향연에서 부르던 노래다. 귀뚜라미 방안에서 우는 것 보니 어느덧 이해도 저문다는 뜻이다. 某는 '모'라 발음하고 저문다(暮)는 뜻이다.

● 문화원에서 일하는 사람들

직 위	성 명	주 소	전 화 번 호		비 고
			근무처	자 택	
원 장 부원장 이 사	최 용 문	동명동 250-5. 5/4	33-3969	33-3233	(주)대일레미콘이사
	이 인 철	교동 780-118. 15/4		33-2177	영북함북도민회장
	강 철 훈	영랑동 163. 5/6	31-5675 33-2088	32-0188	강동건설대표
	김 광 수	도문동 1628-14. 1/2	635-3366	635-3377 3388	속초자동차학원장
	김 기 명	청학동 482-72. 1/4	32-3936 33-5592	32-8518	속초프로스펙스사장
	김 봉 해	동명동 450-39. 4/2	33-2021	33-3411	합동문화인쇄사대표
	김 운 천	교동 현대1차APT 104동 202호	33-3120	31-0448	전 속초여고교장
	김 일 수	동명동 530-1. 3/4	32-1555	32-1555	동아서점 대표
	김 종 규	동명동 72. 2/4	639-2507	33-4472	시의회 의회과장
	김 철 섭	교동 현대1차APT 103동 1103호		31-2292	속초신협 이사
	김 호 응	동명동 250. 5/4	32-1231	33-3674	문화원 사무국장
	노 광 복	동명동 468-142. 1/2	32-8907	32-9014	장안슈퍼 대표
	동 문 성	동명동 450-22. 4/4	33-2180	33-3721	속초시장
	박 상 복	교동 627-130. 20/2	31-6290	32-3888	속초의료보험대표이사
	박 정 기	도문동 177-1. 4/5	636-7667	636-8738	기자유통상사사장
	안 동 섭	노학동 619-5. 2/3	639-2208	32-0909	속초시 기획실장
	오 윤 근	교동 656-5. 13/2	32-5357	33-8817	청운독서실 대표
	윤 숙 자	교동 627-42. 19/5	33-4014	33-4014	설악유치원장
	이 태 형	동명동 523. 10/3		33-3618	동우전문대 교수
	전 복 식	교동 삼환APT 108동 1004호	(02) 407-9520	31-7130	설악산대우장회장
	전 석 규	대포동 산33-1. 3/1		635-5679	전 대포국교교장
	조 동 룡	교동 현대1차APT 104동 205호	635-2185~6	635-2670	변호사
	최 경 순	중앙동 496-55. 1/4	33-3668	32-6590	화신상회 대표
	최 현 식	교동 664-164. 2/2	(0396) 672-2448	012-391-8275	낙산사종무실장
	홍 성 만	교동 청초APT 102동 1501호	31-4900	33-4026	다경피혁 대표
감 사	정 연 태	동명동 104-2		33-2364	전속고서무과장
	최 홍 순	동명동 469-33. 9/2		33-3671	행정동우회부회장

● ● ● 표지 이야기



표지화는 1992년 5월
속초시 조양동 택지 개발 지역에서
발굴된 선사, 청동기 시대(靑銅器時代)의
사적지(국가 지정 제376호·92년 10월 6일)
7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유물을 선정하였다.

이 조양동 선사 유적지의
주거지(7곳)와 유물들(168점)은
'랴오닝성(遼寧省)' 문화의
한반도 유입 확산 경로를
추적함에 확실한 자료로
사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글 / 박영도
사진 / 최춘영

束草文化 제12호

— 비매품 —

발행 : 1996년 12월 15일

인쇄 : 1996년 12월 1일

발행인 원 장 **崔 龍 文**

발행처 **특별 동북문화원**

2117 - 0110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570-5

전화 : 0392) 32-1231. 전송 0392) 32-1241

인쇄처 **文旺出版社**

편집 위원

주간 / 이 기 을

위원 / 박 익 훈 · 이 성 선 · 지 응 준

김 광 수 · 오 세 하 · 최 낙 민

최 영 래 · 최 현 식 · 윤 의 구

주 상 훈

간사 / 김 호 응

편집 / 박 영 도

束草文化는 강원도 문예진흥기금에서 제작비 일부를 지원받아 제작되고 있다.

안녕하십니까?

영북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이던
운전면허출장시험장 개설에

힘써 주신 여러분께
물심양면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신 시설과 넓은 교습장으로
자동차 문화를 선도하는

속초자동차학원

속초시 도문동 1628-14

TEL. 635-3377 · 3388

학원장 金光洙

大韓佛教曹溪宗 第三教區 本寺

雪 嶽 山 新 興 寺



新興寺는 新羅 眞德女王 6年 (652) 慈藏律師께서 創建하여 香城寺라 이름하였다. 그 후 화재로 소실된 것을 조선 인조 22年 (1644)에 靈瑞, 惠元, 蓮玉 세 스님이 중건하여 新興寺라 개명하였다. 新興寺에는 創建 당시 주조한 대종과 조선 순조께서 하사하신 청동시루, 극락보전 (指定文化財 14號), 경관 (指

定文化財 15號), 보제루 (指定文化財 104號) 및 香城寺址 三層石塔 (寶物 第443號)이 보존되어 있다.

강원도지방유형문화재 제14호 신흥사 극락보전 강원도지방유형문화재 제15호 신흥사 경관 강원도지방유형문화재 제104호 신흥사 보제루 지정문화재 이외의 문화재 제11호 신흥사 (계조암·내원암·안양암·부도 포함) 동산 문화재등록 : 신흥사 아미타3존좌상의 9점

백두 대간 명산 설악산의 수행하는 도량

설악산 신흥사

주 지 金 度 吼